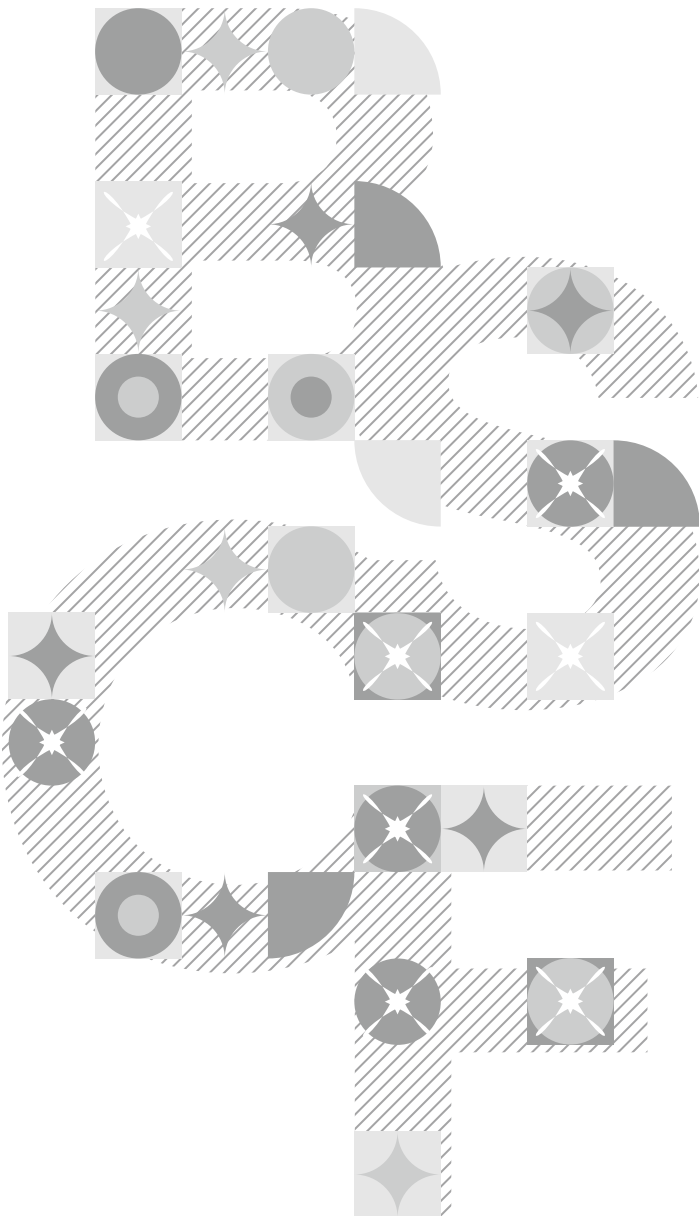

부산 문화예술 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



**부산
문화예술
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



책임연구 ▶ 박소윤(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장)

공동연구 ▶ 김해성(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교수) **송교성**(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김예인(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원향미**(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 선임연구원)
김 정(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 차장)

연구지원 ▶ 임진혜(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대리) **최강찬**(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 사원)

설문조사 ▶ 이광민(케이엠(KM) 대표) **정영주**(케이엠(KM) 연구원)

목차

I. 연구개요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2. 연구 범위 및 연구 대상	3
3.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11
4. 선행연구 검토 및 기대효과	18
II.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이론적 배경과 주요 지표	20
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및 사회적 효과성의 정책적 의미	21
2.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효과성 주요 지표	26
III. AHP 분석을 통해 본 세대별 주요 사회적 효과성	31
1. AHP조사를 통한 생애주기별 주요 사회적 효과성	32
2. AHP 분석 주요 결과	36
IV. 설문 분석을 통해 본 세대별 사회적 효과성 사전·사후 변화	38
1. 문화예술교육사업 영역별 효과 검증	39
2. 사전·사후 변화 분석 주요 결과	58
V.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효과성 차이	62
1. 생애주기별 사회적 효과성 차이	63
2.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76
VI. 세대별 특성에 따른 지속 의향과 영향 요인	78
1.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지속 의향	79
2. 지속 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	80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지속 의향과 영향 요인 분석	83

VII. AHP 및 설문조사 종합 해석 및 시사점	85
1. AHP 및 설문조사 종합 해석.....	86
2. 종합 해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89
VIII. FGI 조사 결과 분석과 시사점	92
1. FGI조사 결과 분석.....	93
2. FGI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95
IX. 부산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제언	97
1.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제고와 확산.....	98
2. 부산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강화를 위한 실행 전략.....	103
X. 요약 및 제언	112
1. 연구 결과 요약 및 제언.....	11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6

참고문헌.....	118
부록.....	121
<응답용 설문지>.....	122
1. 어린이용 설문지.....	122
2. 청소년 및 청년용 설문지.....	125
3. 신중년용 설문지.....	128
4. 노인용 설문지.....	131
<AHP 설문지>.....	134
1. 어린이, 청소년 및 청년, 신중년 교수자용.....	134
2. 노인담당 교수자용.....	140
<FGI 질문지>.....	144
1. 문화예술교육 단체용 FGI 질문지.....	144
2.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용 FGI 질문지.....	145
3. 문화예술교육 정책관계자용(전문가,아르떼,부산시,타지역) FGI 질문지.....	146

표목차

<표 1> AHP 연구 대상.....	4
<표 2> 사전·사후 설문조사 연구 대상.....	4
<표 3> 대상자 특성.....	9
<표 4> FGI 연구 대상.....	11
<표 5> 대상자 설문조사 도구의 구성.....	16
<표 6> 어린이 대상 지도교사의 AHP분석.....	32
<표 7>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지도교사의 AHP분석.....	33
<표 8> 신중년 대상 지도교사의 AHP분석.....	34
<표 9> 노인 대상 지도교사의 AHP분석.....	35
<표 10>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의 사전-사후 검정.....	40
<표 11> 문화예술 참여 태도의 사전-사후 검정.....	41
<표 12>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사전-사후 검정.....	42
<표 13>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의 사전-사후 검정.....	43
<표 14>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의 사전-사후 검정.....	44
<표 15>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의 사전-사후 검정.....	45
<표 16> 소통과 경청의 태도의 사전-사후 검정.....	46
<표 17>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의 사전-사후 검정.....	47
<표 18>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의 사전-사후 검정.....	48
<표 19>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의 사전-사후 검정.....	49
<표 20>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사전-사후 검정.....	50
<표 21> 자아성찰, 자아정체성, 삶의 의미, 우울감 완화.....	51

<표 22> 감정조절의 사전-사후 검정.....	52
<표 23> 또래 관계, 감정 표현, 자아 회복, 자존감회복.....	53
<표 24> 사회적 소속감의 사전-사후 검정.....	54
<표 25> 스트레스 대처력의 사전-사후 검정.....	55
<표 26> 지역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의 사전-사후 검정.....	56
<표 27>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의 사전-사후 검정.....	57
<표 28>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효과 검정 요약.....	60
<표 29>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전-사후 변화.....	61
<표 30> 생애주기별 문화적 감수성의 사전-사후 차이 검정.....	65
<표 31> 생애주기별 문화적 감수성의 사전-사후 변화.....	66
<표 32>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성의 사전-사후 차이 검정.....	68
<표 33>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성의 사전-사후 변화.....	69
<표 34> 생애주기별 정서적 회복성의 사전-사후 차이 검정.....	71
<표 35> 생애주기별 정서적 회복성의 사전-사후 변화.....	73
<표 36> 생애주기별 공동체 정체성의 사전-사후 차이 검정.....	75
<표 37> 생애주기별 공동체 정체성의 사전-사후 변화.....	75
<표 38>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79
<표 39> 대상자 특성에 따른 추천의도의 차이.....	79
<표 40>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재참여의도의 차이.....	80
<표 41>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	82

그림목차

<그림 1> 연구 표본 설계	7
<그림 2> AHP연구 수행 절차	12
<그림 3> 2025년도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106
<그림 4>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거점 기획 프로그램	106
<그림 5>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거점 5개소	107
<그림 6> 2025년도 15분 도시 특화 부산문화예술교육 지원(지역성)	111
<그림 7> 2025년도 15분 도시 특화 부산문화예술교육 지원(생애주기)	111

I.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연구 대상
3.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4. 선행연구 검토 및 기대효과



I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예술교육은 오랫동안 개인의 정서 함양과 창의성 증진을 중심으로 그 가치를 설명해 옴.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이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제도화되고, 학교와 지역을 넘어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
- 특히 지역사회 기반 문화예술교육이 확대될수록,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경험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음.
- 부산의 경우, 광역시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추진해 왔으며,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병행하며 다양한 사업 경험을 축적해 오다가 2017년부터 사회문화예술교육 중심으로 재편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지역사회의 변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참여 경험을 넘어 공동체 형성, 사회적 관계 회복, 지역 문제 대응 등 사회적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로 이어짐.
- 특히, 2022년을 기점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지역 이관이 본격화되면서, 부산의 문화예술교육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됨.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정책 기획과 운영의 주체로서 보다 큰 역할을 맡게 되면서,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동시에 확대됨.
-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주민의 삶과 사회적 관계, 공동체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참여자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는, 향후 부산형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가 될 것임.

1.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2022년 지역 이관 이후 부산 문화예술교육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참여자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부산의 발전적인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부산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대상으로, 실제 참여자들의 경험과 변화를 중심에 두고 분석을 진행함. 이는 정책 공급자의 관점이 아닌, 정책 수혜자인 참여자의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임.

-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참여자에게 어떠한 사회적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적인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단순한 만족도나 개인적 성취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적 감수성, 사회적 연결성, 정서적 회복성, 공동체 정체성이라는 사회적 효과성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 또한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참여자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가 연령대와 참여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획일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생애주기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으로 정교화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나아가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문화정책과 사회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함. 이는 문화예술교육을 단기적 사업이나 보조적 정책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공공정책으로 재인식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임.

2. 연구 범위 및 연구 대상

2.1 연구 범위

- 본 연구는 2025년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 프로그램 예술강사¹⁾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인식조사(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해 생애주기별 대상자들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효과성 지표를 조사하고, 이와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생애주기별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효과성의 적시성을 살펴보았음.
- 이어, 문화적 감수성 역량, 사회적 연결성 역량, 정서적 회복성 역량, 공동체 정체성 역량과 같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문화예술교육 대상별 효과성 차이와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지속 의향과 영향 요인도 함께 살펴봄.
- 또한,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강사, 지역 내외의 정책관계자 FGI를 병행함으로써,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해 다 밝히기 어려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언들을 수렴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보다 충실히 하고자 하였음. 다만, FGI 조사는 실증적 연구에 대한 보조자료로 활용함.

1) 본 보고서에서 '예술강사'라 함은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에서 활동한 강사에 한함.

2.2 연구 대상

2.2.1. AHP 연구 대상

- AHP 연구는 2025년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 6개 영역 33개 프로그램 예술강사 중 어린이, 청소년 및 청년, 신중년, 노인 교수자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추출하였음.

<표 1> AHP 연구 대상

지도자용 AHP		단체명	사업명
어린이	4	문화콘텐츠교육연구소큐브	동해남부선 탐험가 META 프로젝트
		극단해풍	꿈이는연극단 "부산독립만세"
		부산자연예술인협회	꿈꼬마예술단-꿈으로 빛나는 꽃마을
		상상편집소 피플	마을 이야기 줍기 실험, <온천놀장>
청소년 및 청년	4	주식회사어흥	청년 반딧불 스튜디오: 국악과 창작이 만나는 감성 아카이브
		세라비	신혼속려캠프
		어스아티 Earth Arti	나에게로 오! 소마
		예술탐구소몸과마음	학교밖 마을예술가
신중년	3	수민동락	신중년 동네한바퀴-이불마집
		(주)호밀밭	망미로컬아카이빙: 기억을 기록으로, 마을을 마음으로
		코아브 CoAB	골든프린트 프로젝트 (Goldenprint Project)
노인	2	잉스문화예술교육연구소	바람이 보여주는 빛
		콘텐츠창작소<봄>	맘마미아!

2.2.2. 사전·사후 설문조사 연구 대상

- 사전·사후 설문조사는 2025년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 6개 영역 33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6개 영역은 우리동네 문화예술교육(2개), 센터 거점 문화예술교육(1개), 예술교육 실험실 B(4개), 꿈다락 문화학교(9개), 예술로 일상섬표(6개), 황금빛 예술학교(11개)임. 프로그램 선정은 26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꿈다락 문화학교, 예술로 일상섬표, 황금빛 예술학교)을 중심으로 하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이 강조되는 7개 프로그램(우리동네 문화예술교육, 센터 거점, 예술교육 실험실B)을 추가로 선정하였음.

<표 2> 사전·사후 설문조사 연구 대상

구분	분류	단체명	사업명	대상 및인원수	장소	사업시기	특징
1	우리동네 문화예술 교육	모이다아트 협동조합	어린이바다예술제- 물령 물랑 바다 놀이터	어린이, 가족 대상 어린이바다연구소 10명 어린이예술단 20명 시민축제조직위 10명	수영구 광안리	어린이바다연구소 4/12-9/13 어린이예술단 5/31-9/13 시민축제조직위 4/1-9/6	해양도시 부산 지역특색 바다주제 (미술)

구분	분류	단체명	사업명	대상 및인원수	장소	사업시기	특징
2	우리동네 문화예술 교육	문화 콘텐츠 교육 연구소 큐브	동해 남부선 탐험가 메타 프로젝트	어린이 프로젝트 20명 영상캠프 30명	해운대구 시청자 미디어센터	동해남부선 탐험가 메타프로젝트 4/19-10/25 2025어린이 영상캠프 8/20-8/21	플로깅-기후문제 동해 남부선-지역소리장단 (영상)
3	센터 거점	호밀밭	망미 로컬 아카이빙: 기억을 기록으로 마을을 마음으로	청년~중장년층 수영구 주민 15명	수영구 비콘그라운드	5/20-9/24	망미단길-지역 (다원)
4	예술교육 실험실B (대상특화 사회참여 예술)	문화예술교육 연구소 플랫폼	사이, 춤이 머무는 곳	장애인 20명	동래구 장애인 복지관	4/26-10/26	지역성 강화 (무용)
5	지역성 강화지원 (예술교육 실험실B)	예술탐구소 몸과 마음	학교밖 마을 예술가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13-19세 10명	중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4/22-11/30	치유 (미술, 사진)
6		허경미 무용단 -무무	춤추는 골목-내가 만드는 움직이는 동네지도	아동 초2-중1 24명	가야지역 아동센터	4/1-7/31	커뮤니티 (무용, 영상)
7		상상 편집소 피플	마을 이야기 줍기 실험, <온천놀장>	아동 초1-6 15명	은천제일 지역 아동센터	4/8-11/22	지역 (인문학, 보드게임)
8	생애 주기별 특화지원 (꿈다락)	극단 해풍	꿈이는 연극단 "부산독립만세"	어린이 초등학생 20명	중구	4/5-10/25	지역성 (연극)
9		부산 자연예술인 협회	꿈꼬마 예술단 꿈으로 빛나는 꽃마을	어린이 초등학교 2-6학년 학생포함 가족 15명	서구	5/17-11/1	지역성 (미술)
10		인디고 서원	지구는 하나뿐인 우리집 _부산 어린이와 함께 배우는 생태인문학	아동 초4-6 30명	인디고 서원	4/1-11/30	사회참여형 (문학)
11		극단 이야기	꿈꾸는 도서관 우리동네이야기 탐험대	아동 초 1-4 30명	수영구 도서관	5/17-11/16	지역 (연극)
12		송협주판화 공방	[인터페이스 아트프로젝트] "16분 도시에서 만나는 인쇄문화예술"	가족 초 3-6 자녀를 둔 가정 30명	송협주판화 공방	6/7-8/10	가족참여형 (미술)
13		극단 자유바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태몽이야기	3세대 초1-3와 조부모 15명	안데르센 극장	6/1-10/31	세대공감 (연극)
14		청춘 나비	우리동네 동요만들기 <푸슈콩! 멜로디> 시즌7	아동 초1-6 15명	DRB 사회공헌 플랫폼 Campus D	5/10-10/11	스토리텔링 (음악)
15		문화예술교육 지원회	알아가는중입니다.	장애가정 장애인 초등학교 고학년 -고등학생과, 보호자 20명	헤베스	4/5-11/30	치유 (미술)
16		공연예술단체 아티스트릿	태어난김에 환경요원: 미래를 바꾸는 작은 행동의 힘	가족 초1-3 부모 15명	만덕 도서관	4/1-11/30	환경 (연극)

구분	분류	단체명	사업명	대상 및인원수	장소	사업시기	특징
17	생애 주기별 특화지원 (예술로 일상침투)	문화예술의 정원	내 마음의 정원 -아트 가드너	30-40대 다문화가정 육아맘 34명	해운대 (구, 해운대역 역사)	4/8-10/26	문화다양성 (다원)
18		심플리파이 심플리파이	감수성을 깨우는 환경그림책 교실	청년 부산 시내 비정규직 노동 및 구직 중인 청년 30명	남구 동네 청년 활동공간 '공간숲'	4/5-11/20	생태감수성 (출판)
19		주식 회사 어흥	청년 반딧불 스튜디오: 국악과 창작이 만나는 감성 아카이브	청년 만 19세-39세 30명	금정 문화회관	5/10-11/30	스토리텔링 (다원)
20		세라비	신혼숙려캠프	청년 만 19세-39세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4명	부산 진구 생활 문화센터	4/1-11/30	심리치유 (음악, 연극)
21		피스 카인드 홈	리부트 번아웃: 진zine 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	청장년 20-40대 45명	피스 카인드 홈	4/6-11/30	심리치유 (출판)
22		어스 아티 Earth Arti	나에게로 오! 소마 (vol.2)	청장년 20-40대 15명	해운대 마음 챙김 평생 교육원	5/10-10/31	심리치유 (미술, 무용)
23		생애주기별 특화지원 (황금빛 예술학교)	콘텐츠창작소 <봄>	맘마미아!	노인 30명	기장군 정관 노인복지관	5/13-10/21
24	잉스 문화예술교육 연구소		바람이 보여주는 빛	노인 12명	해운대구 파랑새종합 사회복지관	4/11-7/25	해운팔경-지역 (복합)
25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예술하는 습관 -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살다	신중년 50-70대 15명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8/4-10/26	자기돌봄 (연극)
26	고양이함수		삶을 짓는, 나의 아틀리에 수첩	신중년 10명	남산정 종합 사회 복지관 어울락	6/1-10/31	자아탐구 (문학, 미술, 출판)
27	하연화 무용단		몸과 소리로 그리는 나의 황금빛 인생	신중년 20명	금정구 종합사회 복지관	3/1-11/15	공감 (무용, 애듀테크)
28	에어리 무브먼트		우리 몸 돌보기	신중년 30명	중구 노인 복지관	4/1-11/30	자기 주도형 (미술, 음악, 무용)
29	문화예술 아트리브		달려라 인생 3막, 예술로 Chill하게	신중년 15명	영화의 전당 시네마운틴 리허설룸1	5/12-9/8	지역탐구 (사진, 디지털, 인문학)
30	김윤지 연구소		안녕! 나는 순자.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신중년 15명	금곡 종합사회 복지관	6/12-9/25	소통 (연극)
31	코아브 CoAB		골든 프린트 프로젝트 (Goldenprint Project)	신중년 15명	수영구 구락생활 문화센터	4/26-10/31	사회참여 (미술, 영상, 사진)
32	수민동락		신중년 동네한바퀴 -이불마집	신중년 20명	한이불 마을센터	4/1-11/30	자아탐구 (미술, 음악, 영상, 사진, 놀이)
33	달뚝기 예술기획		셋디마을 추억은 방울방울	신중년 10명	홍안의 상상	6/4-10/29	스토리텔링 (미술, 영상)

-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주요 정책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제공이라는 점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실증자료 추출을 위해 위 33개 프로그램 전 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애주기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 어린이(초등학생)
 - 청소년·청년(중·고등학생 및 45세 미만 청년층)
 - 신중년(45-64세 성인)
 - 노인(65세 이상 고령층)
- 사전·사후 조사 연구는 2025년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 6개 영역 33개 프로그램 참여자 655명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결과 유효표본 357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이 중 사전 또는 사후 설문이 단독으로만 존재하여 변화값 산출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전체 표본 구성 및 제외 기준의 흐름은 <그림 1> 연구 표본 설계에 제시하였음.

<그림 1> 연구 표본 설계



▪ 사전·사후 조사 대상자 특성은 다음 <표 3>과 같음.

◦ **연령 및 성별 특성**

- 연령을 살펴보면, 어린이 집단의 평균 연령은 10.09세(±1.24)였으며, 청소년 및 청년 집단은 28.95세(±8.21), 중장년 집단의 평균 연령은 54.45세(±5.84), 노인 집단은 70.50세(±5.35)로, 생애주기별로 뚜렷한 연령 차이가 확인되었음.
- 성별 분포를 보면, 어린이 집단은 남아 77명(45.3%), 여아 93명(54.7%)으로 여성이 다소 많았음. 청소년 및 청년 집단에서는 남성 12명(20.7%), 여성 46명(79.3%)으로 여성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중장년 집단도 남성 10명(9.9%), 여성 91명(90.1%)으로 여성 편중이 뚜렷하였으며, 노인 집단 역시 남성 5명(17.9%), 여성 23명(82.1%)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쳐 여성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참여 양상**

- 3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살펴보면, 어린이 집단에서는 '있음'이 118명(69.4%)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 및 청년 집단에서는 참여 경험이 '있음' 17명(29.3%), 중장년 집단은 '있음' 43명(42.6%), 노인 집단은 '있음' 15명(53.6%)으로 과반수가 최근 3년 내 참여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 참여 횟수의 평균을 보면, 어린이 집단은 2.33회(±3.245), 청소년 및 청년 집단은 1.66회(±1.584), 중장년 집단은 1.83회(±1.738), 노인 집단은 2.43회(±2.545)로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어린이와 노인 집단에서 평균 참여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음.
- 활동 기간을 살펴보면, 어린이 집단은 1년 미만이 136명(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청소년 및 청년 집단 역시 1년 미만이 51명(87.9%)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음. 중장년 집단은 1년 미만 79명(78.2%), 노인 집단도 1년 미만이 16명(57.1%)으로 가장 많았음.

◦ **참여 경로 특성**

- 프로그램 참여 경로를 살펴보면, 어린이 집단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주변사람의 참여 권유를 통해서'가 121명(71.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관련 정보 및 홍보물' 28명(16.5%),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 13명(7.6%), '기타' 8명(4.7%) 순으로 나타났음. 즉,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나 주변인의 권유를 통한 간접 참여가 중심적 경로였음.
- 청소년 및 청년 집단에서는 '주변 사람의 권유'가 33명(56.9%)으로 가장 많았고, '홍보물 등의 정보' 11명(19.0%),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 10명(17.2%), '기타' 4명(6.9%) 순으로 나타났음. 이 집단에서도 여전히 주변인의 권유가 중요한 참여 경로였으나, 자발적 참여 비율도 일정 수준 확인되었음.
- 중장년 집단은 '주변 사람의 권유'가 47명(46.5%)으로 가장 높았고, '관련 정보 및 홍보물' 34명(33.7%), '스스로 참여' 18명(17.8%), '기타' 2명(2.0%)으로 나타나, 정보 기반 참여와 권유 기반 참여가 함께 작동하는 양상이 확인되었음.
- 노인 집단의 경우 '주변 사람의 권유' 13명(46.4%), '홍보물 등의 정보' 7명(25.0%), '스스로 참여' 4명(14.3%), '기타' 4명(14.3%)으로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주변인의 권유가 가장 주요한 참여 경로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장년과 노인 집단에서는 홍보물과 정보 매체를 통한 참여도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거주지역 분포

- 거주지역을 보면, 어린이 집단은 영도구 28명(16.5%), 해운대구 23명(13.5%), 남구 22명(12.9%), 기장군 25명(14.7%) 등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동래구, 부산진구, 동구, 서구 등 부산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음.
- 청소년 및 청년 집단은 남구 10명(17.2%), 기장군 6명(10.3%), 부산진구 6명(10.3%), 서구 6명(10.3%), 강서구 9명(15.5%)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표본 수는 적지만 여러 구에 분산되어 있었음.
- 중장년 집단은 금정구 21명(20.8%), 연제구 5명(5.0%), 동구 15명(14.9%), 강서구 15명(14.9%), 기장군 11명(10.9%), 영도구 10명(9.9%) 등이 주요 거주지로 나타났으며, 일부 구에 다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음.
- 노인 집단은 연제구 13명(46.4%)과 기장군 14명(50.0%)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기타 구에는 표본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분포하여 노인 집단의 경우 특정 지역에 거주자가 편중된 양상을 보였음.

◦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 분포

- 교육이 이루어진 지역을 살펴보면, 어린이 집단은 부산진구 33명(19.4%), 영도구 41명(24.1%), 기장군 45명(26.5%), 강서구 10명(5.9%), 북구 15명(8.8%), 남구 15명(8.8%) 등으로 나타나, 특히 영도구와 기장군, 부산진구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청소년 및 청년 집단은 부산진구 16명(27.6%), 금정구 12명(20.7%), 해운대구 12명(20.7%), 강서구 10명(17.2%), 기장군 8명(13.8%)에서 교육이 이루어져, 주로 금정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강서구 등 일부 구에 교육공간이 집중되어 있었음.
- 중장년 집단은 금정구 18명(17.8%), 동구 18명(17.8%), 기장군 19명(18.8%), 강서구 15명(14.9%), 영도구 8명(7.9%), 북구 8명(7.9%), 사하구 10명(9.9%) 등에서 교육이 이루어져 여러 구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면서도 기장군, 금정구, 동구, 강서구 등 특정 지역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 노인 집단은 연제구 14명(50.0%), 기장군 14명(50.0%)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해당 연령층의 프로그램 운영 지역이 두 구에 집중되어 있었음.

<표 3> 대상자 특성

		어린이	청소년 및 청년	중장년	노인
연령		10.09±1.24	28.95±8.21	54.45±5.84	70.50±5.35
성별	남성	77(45.3)	12(20.7)	10(9.9)	5(17.9)
	여성	93(54.7)	46(79.3)	91(90.1)	23(82.1)
3년 내 프로그램 참여 경험	있음	118(69.4)	17(29.3)	43(42.6)	15(53.6)
	없음	52(30.6)	41(70.7)	58(57.4)	13(46.4)
참여횟수		2.33±3.245	1.66±1.584	1.83±1.738	2.43±2.545
활동기간	1년 미만	136(80.0)	51(87.9)	79(78.2)	16(57.1)
	1년~3년미만	25(14.7)	4(6.9)	12(11.9)	8(28.6)
	3년 이상	9(5.3)	3(5.2)	10(9.9)	4(14.3)
참여 경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 (지역 및 기관 홍보물)를 통해서	28(16.5)	11(19.0)	34(33.7)	7(25.0)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주변사람의 참여 권유를 통해서	121(71.2)	33(56.9)	47(46.5)	13(46.4)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 스스로 참여	13(7.6)	10(17.2)	18(17.8)	4(14.3)
	기타	8(4.7)	4(6.9)	2(2.0)	4(14.3)

		어린이	청소년 및 청년	중장년	노인
거주지역	동래구	11(6.5)	1(1.7)		
	금정구			21(20.8)	1(3.6)
	연제구	4(2.4)		5(5.0)	13(46.4)
	해운대구	23(13.5)	2(3.4)	3(3.0)	
	수영구	1(0.6)	1(1.7)	1(1.0)	
	남구	22(12.9)	10(17.2)	2(2.0)	
	부산진구	12(7.1)	6(10.3)	2(2.0)	
	동구	11(6.5)	2(3.4)	15(14.9)	
	중구	2(1.2)	4(6.9)		
	서구	14(8.2)	6(10.3)	1(1.0)	
	북구	2(1.2)	1(1.7)	9(8.9)	
	영도구	28(16.5)	5(8.6)	10(9.9)	
	사하구	3(1.8)	5(8.6)	5(5.0)	
	사상구	2(1.2)		1(1.0)	
	강서구	6(3.5)	9(15.5)	15(14.9)	
	기장군	25(14.7)	6(10.3)	11(10.9)	14(50.0)
	진해	4(2.4)			
교육 지역	동래구				
	금정구		12(20.7)	18(17.8)	
	연제구	4(2.4)		3(3.0)	14(50.0)
	해운대구		12(20.7)		
	수영구				
	남구	15(8.8)			
	부산진구	33(19.4)	16(27.6)	2(2.0)	
	동구	7(4.1)		18(17.8)	
	중구				
	서구				
	북구	15(8.8)		8(7.9)	
	영도구	41(24.1)		8(7.9)	
	사하구			10(9.9)	
	사상구				
	강서구	10(5.9)	10(17.2)	15(14.9)	
기장군	45(26.5)	8(13.8)	19(18.8)	14(50.0)	

2.2.3. FGI 연구대상

- FGI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수행단체 및 관계자 3개 그룹 14명을 대상으로 대면 및 서면으로 진행하였음.

<표 4> FGI 연구 대상

FGI		대상자	소속 및 직책
문화예술교육단체	4	모상미	모이다아트협동조합 대표
		강원재	청춘나비 대표
		이정미	쌔라비 기획자
		함수경	잉스문화예술교육연구소 대표
예술강사	5	탁경아	커뮤니티 아트센터 '숲' 대표
		김현진	댄스헌터(주) 대표
		김석희	조용한 수다 대표
		정진리	(주)호밀밭 기획자
		문소정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강사
정책관계자	5	임희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주무관
		이육상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겸임교수
		노준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문화예술교육본부장
		손동열	울산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정진주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3.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3.1. AHP조사 설계 및 분석 방법

3.1.1. AHP 분석이론의 개념과 특징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복잡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기법으로, 토마스 L. 새티(Thomas L. Saaty)에 의해 제안된 방법임.
 - AHP는 인간이 실제 의사결정을 할 때 단계를 나누어 사고하고 계층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개발된 방법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를 계층적 구조로 재편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며,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 AHP는 의사결정 문제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준을 구조화하여 층계별로 중요도를 도출하는 방식이며, 주로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평가가 이루어짐.
 - 이 방법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상위 요인과 하위 요인으로 계층화한 뒤, 각 요소 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수행하여 평가자의 경험·지식·직관을 반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
 - AHP는 단순성과 명확성, 범용성 등의 특징으로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적용되어 왔으며, 적용 과정에는 척도 선정, 가중치 산출, 민감도 분석 등 수리적·실증적 검증 절차가 포함됨.

- 자헤디 (F.Zahedi)(1986)에 의한 AHP 4단계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음.

<그림 2> AHP연구 수행 절차



- AHP는 관광, 자원, 정책, 교육, 환경, 도시, 의료, 생산 및 제조, 품질,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권태 일, 2008),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조근태 외, 2003).
 - 첫째, AHP는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적으로 구조화함. 의사결정 요소들을 다층적 레벨로 나누어 배열함으로써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사고 방식과 유사함.
 - 둘째,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모두 반영한 광범위한 의사결정 모형을 제공함. AHP에서는 상대적 중요도 산출을 위한 척도와 우선순위 설정 방법을 제공하며, 정성적 요소도 논리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음.
 - 셋째, 평가자의 판단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검토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음. 일관성 검증은 전이성(transitivity)에 기반하며, 일관성비율(CR: Consistency Ratio)이 0.1 이내일 경우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0.2 이내일 경우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함(송근원·이영, 2013). 이 기준보다 클 경우 재평가가 필요함.
 - 넷째, 평가기준 가중치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이 가능함. 가중치 변화에 따라 대안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 다섯째,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수정이 가능한 구조임. 계층요소의 추가·삭제 및 선호도 변경이 가능하며, 다수 평가자의 판단을 통합하여 그룹 의사결정에도 활용될 수 있음.
- AHP의 분석 절차는 일반적으로 문제의 계층 구조 설정, 요소 간 상대비교 수행, 가중치 도출 및 일관성 검증 등의 단계로 구성되며, 최상위 계층에는 의사결정 목적, 중간 계층에는 평가 기준, 최하위 계층에는 여러 대안이 위치하게 됨.

- AHP는 이론적 기반으로 네 가지 공리를 포함하고 있음.
 - 첫째, 역수성(reciprocal) 공리임. 동일 계층에 있는 두 요소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A가 B보다 x 배 중요하다면 B는 A보다 $1/x$ 배 중요해야 함.
 - 둘째, 동질성(homogeneity) 공리임. 비교되는 요소들은 동일 범주의 척도 안에서 측정 가능해야 하며, 동질적이지 않은 기준 간 비교는 유효한 쌍대비교가 성립하지 않음.
 - 셋째, 종속성(dependency) 공리임. 한 계층의 요소는 인접한 상위 계층 요소의 범주 안에서 종속되어야 하며, 특정 대안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가중치 왜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넷째, 기대성(expectation) 공리임. 계층 구조에 포함된 모든 요소는 의사결정 목적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요소가 계층에 포함되면 의사결정의 효용성이 떨어지게 됨.

3.1.2. 단계별 분석과정

-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구성하는 요인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AHP 분석 과정을 적용하였음.
 - AHP는 복잡한 평가요소를 계층 구조로 체계화하고 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데 적합한 기법임.
 -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및 청년, 신중년, 노인을 교육하는 교수자를 평가자로 선정하여 중요도를 판단하도록 하였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1단계: 계층구조 설정

- 본 연구의 AHP 분석을 위한 계층구조는 총 3단계로 구성하였음.
 - 최상위 계층(Goal): 문화예술교육의 중요 요인 평가
 - 중간 계층(Level 1): 네 가지 상위 평가영역
 - ① 문화적 감수성
 - ② 사회적 연결성
 - ③ 정서적 회복성
 - ④ 공동체 정체성
 - 최하위 계층(Level 2): 각 상위영역에 속하는 하위 평가요인들(예: 예술적 감성·참여태도·소통·감정조절·지역 소속감 등 영역별 세부 항목).
 - 이와 같은 계층 구조 설정을 통해 평가자가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2단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설계

- 계층 구성 이후, 각 계층 내 요소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 쌍대비교 설문을 구성하였음.
 - 교수자는 동일 계층 내 두 항목을 비교하여 "어느 요소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9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음.
 - 비교 대상은 상위 4개 영역 간 쌍대비교와, 각 영역에 속하는 하위요인 간 쌍대비교로 구성하였음.
 - 이를 통해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반영하는 상대적 중요도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3) 3단계: 가중치 산출 및 일관성 검증

- 수집된 쌍대비교 행렬을 바탕으로 고유벡터법(Eigenvector Method)을 적용하여 각 항목의 가중치를 산출하였음.
 - 각 평가자의 응답으로부터 영역별 및 하위요인별 가중치를 계산하였음.
 - 쌍대비교의 논리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을 산출하였으며, $CR \leq 0.1$ 을 기준으로 일관성이 확보된 응답만 분석에 활용하였음.
 - CR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응답은 재검토 또는 제외함으로써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음.

(4) 4단계: 가중치 통합 및 우선순위 도출

- 각 계층에서 산출된 가중치를 종합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음.
 - 상위 4개 영역의 가중치를 산출한 뒤, 하위요인의 국지적(local) 가중치를 곱하여 전역적(global) 가중치를 계산하였음.
 -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구성하는 전체 요인 중 어떤 영역과 하위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교수자 평가 기반으로 도출하였음.

3.2 대상자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 방법

- 본 연구는 AHP조사와 FGI조사도 이루어졌으나, AHP조사의 경우, 교수자들이 기대하는 사회적 효과성의 경중을 확인하는 절차였고, FGI조사는 변화하는 정책적 환경에 대한 현장의 제언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음.
-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전·후 변화를 설문조사 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둬, 문화예술교육 대상자들의 정서 및 인식 변화 양상은 차후 문화예술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이에 따라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음.

3.2.1. 설문조사 설계

(1) 조사 원칙

- 첫째,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생애주기별 효과 분석을 통해 연령대에 따른 수용성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문화예술교육의 파급효과는 단순한 만족도 차원을 넘어 심리·사회·관계적 변화까지 폭넓게 확장되지만, 그 효과는 구조적으로 측정·기록되지 않으면 정책 활용도가 떨어짐.
따라서 본 연구는 사전-사후 설문을 기반으로 정량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 세부항목 변화 및 참여 특성별 차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효과 검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셋째,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 당위성 확보와 더불어, 실제 참여자의 경험과 변화를 근거로 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함.

본 연구는 2025년 설문데이터를 통해 사업의 강점과 취약점을 동시에 파악하고, 향후 프로그램 재구조화, 참여자 기반 확대,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2) 조사 방식

-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방식은 프로그램 시작 직전(사전)과 종료 직전(사후) 두 시점에서 동일 문항을 반복 측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음.

(3) 설문 구성

- 본 연구에서는 박소연·이진구(2019)가 개발한 「생애단계별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 개발」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 하였음.
- 설문지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다각도로 측정하기 위해 5개 핵심 영역(문화적 감수성, 사회적 연결성, 정서적 회복성, 공동체 정체성, 사후검정용 행동의도(만족도·추천의도·재참여의도))으로 구성하였음.
- 각 영역은 이론적 근거(박소연·이진구, 2019)에 따라 측정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과 이해 정도를 고려하여 일부 문항은 연령군별로 조정하였음.
- 구체적인 요인은 다음 <표 1>과 같으며, 노인의 경우 사회적 소속감에 대한 설문문항을 추가하였음.
- 사업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타당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내적 일관성 및 신뢰도 확보
 - 현장 적용성 및 실용성 고려
 - 응답자의 부담과 응답 편의를 고려한 문항 길이 및 난이도 조정

<표 5> 대상자 설문조사 도구의 구성

대항목	하위 항목	문항 번호	
문화예술 이해 및 표현 역량	·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1, 2, 3	
	· 문화예술 참여 태도	4, 5, 6	
	·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15, 16	
	·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17, 18	
	·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	19, 20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 역량	·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	7, 8	
	· 소통과 경청의 태도	9, 10	
	·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	11, 12	
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역량	·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13, 14	
	·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21, 22	
	·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23, 24	
	· 어린이(자아 성찰) · 청소년 및 청년(자아 정체성) · 신중년(삶의 의미) · 노인(우울감 완화)	25, 26	
	· 감정 조절	29, 30	
	· 어린이(또래 관계) · 청소년 및 청년(감정 표현) · 신중년(자아 회복) · 노인(자존감회복)	27, 28	
	· 스트레스 대처력	31, 32, 33	
	· 사회적 소속감(노인만 사용)	노인(34, 35)	
	지역성	· 지역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	34, 35/노인(36, 37)
		·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	36, 37, 38/노인(38, 39, 40)
행동의도	· 만족도	39(노인, 41)	
	· 추천의도	40(노인, 42)	
	· 재참여의도	41(노인, 43)	

3.2.2. 분석 방법

- 대상자 설문조사는 생애주기별 사전-사후 조사를 바탕으로 한 변화 분석과 집단 간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사용하였음.

(1) 기술통계 분석

- 각 영역 및 세부 문항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 통계량을 산출하여 전체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였음.

(2) 사전-사후 변화 분석

- 동일 집단 내 사전-사후 변화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음.
- 독립된 두 집단 간 평균 비교가 필요한 경우 독립표본 t-test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음.

(3)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measures ANOVA)

- 생애주기 및 응답자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음.
 - 주효과: 시간 효과(사전-사후 변화)
 - 집단효과: 생애주기 집단 간 차이
 - 상호작용효과: 집단 × 시간의 상호작용
- 각 분석에서는 사전-사후의 평균변화를 도식화하여 변동 방향과 특징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였음.

(4) 행동의도 영향요인 분석

- 사후설문에서 조사된 만족도, 추천의도, 재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별·하위요인별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3.3 FGI 조사 설계 및 분석 방법

3.3.1. FGI 설계 방식과 연구 설계 유형

- 본 연구의 FGI는 혼합연구(Mixed Methods) 가운데 설명적 순차 설계(Explanatory Sequential Mixed Methods Design)의 구조를 따름. 이는 1단계에서 정량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을 측정한 후, 2단계에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정량 결과의 의미를 해석·보완·심화하는 연구 설계 방식임.
- 이러한 설계 하에서 FGI는 정량 분석 결과를 재검증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이 아니라, 정량 결과가 보여주는 수치적 변화의 배경과 맥락을 설명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함. 특히 FGI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강화되거나 제약되는지를 드러냄으로써, 정책적 해석과 제언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3.3.2. FGI 조사 대상 및 표집 방식

- FGI 조사 대상은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기획과 운영,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한 실무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표집 방식은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을 적용하여,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전 과정을 경험하고 정량 설문에서 확인된 효과를 현장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집단을 선정함.
- 구체적으로는 수행단체 담당자, 문화예술교육 강사, 정책·행정 관계자가 주요 참여자로 포함되었음. 이들은 사업 기획-운영-성과 관리의 전 과정을 경험한 주체로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사회적 효과를 실제 실행 맥락에서 검증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FGI 조사 대상자로서의 적합성을 지님.

- FGI 질문지는 정량 설문조사와의 논리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사회적 효과성 지표 체계를 그대로 차용한 반구조화 질문(semi-structured interview) 방식으로 설계되었음. 이를 통해 정량 지표, 질적 질문, 정책 제언이 하나의 분석 흐름 안에서 연결되도록 하였음.
- FGI 자료 수집은 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기본 방식으로 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서면 회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집단 면접에서는 동일한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 토론을 유도하면서도, 개별 응답을 통해 참여자 각자의 경험과 인식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음.
- 수집된 자료는 녹취 요약문, 서면 회신 자료, 실무 의견 정리본 등 텍스트 형태로 정리되었으며, 이후 분석을 위해 체계적으로 전환·정리됨. 이러한 자료 수집 방식은 현장 전문가의 경험과 인식을 폭넓게 반영하면서도, 정책 분석에 활용 가능한 자료 구조를 확보하여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기본 방법론으로 자료 분석하였음.

4. 선행연구 검토 및 기대효과

-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지난 10여 년간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왔으며, 특히 문화예술교육 참여가 개인의 정서, 사회적 관계, 공동체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실증적 분석을 해왔음.
- 임영식·정경은(2017)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척도개발」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행연구로 평가됨. 이 연구는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에 대한 태도, 사회적 관계 인식, 자기 인식 변화 등을 요인 분석을 통해 구조화하였음.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개념적으로 가시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척도 개발에 초점을 둔 연구 특성상 해당 효과들이 실제 참여자의 삶과 지역사회 맥락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음.
- 류기혁·김선경(2018)의 「학교 주도형 문화예술교육 운영 효과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이 학생의 예술 이해도와 표현 자신감, 참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이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이 학습자의 문화 예술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으나, 분석의 초점이 학교 교육 맥락과 개인의 역량 변화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 관계나 공동체 인식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음.
- 정보람·김휘정(2012)의 「문화예술교육이 아동의 정서반응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이 공감능력과 분노조절 등 정서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정서적 효과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한 연구임. 이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참여가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으나, 정서적 변화가 이후 대인관계나 공동체 차원의 사회적 효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음.

- 구승희(2020)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의 사회적 효과가 감성지능 및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감성지능과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이 연구는 정서적 요인과 사회적 관계 요인을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특정 연령 집단의 관계 변화로 한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나 공동체 차원의 의미까지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음.
- 정문성 외(2012)의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문화예술교육이 학생 간 관계 변화와 학교 문화 개선, 지역사회 연계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이 연구 역시 개별 프로그램 사례 분석에 집중되어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체계적인 지표 구조로 통합하거나 정책 설계 수준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었음.
- 보다 최근의 연구로 김시아·홍나미·최유정·정익중(2023)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공동체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음. 이 연구는 성공 경험과 협업 능력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 공동체 의식 형성의 경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다만 연구 대상이 특정 시설 유형과 연령대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반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에는 분석 범위의 제약이 존재함.
- 이처럼 기존의 개인 소논문들은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정서, 관계, 공동체 인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해 왔으나, 대체로 단일 효과 영역에 초점을 두거나 특정 대상·프로그램 중심의 분석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임. 또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정책 환경 변화, 특히 2022년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지방 이관 이후 지역이 정책 주체로 전환된 맥락을 반영한 참여자 분석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음.
-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 인식 속에서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문화적 감수성, 정서적 회복성, 사회적 연결성, 공동체 정체성이라는 네 가지 지표로 통합적으로 설정하고, 부산 지역 문화예술교육 교수자와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뚜렷한 차별성을 가짐.
- 특히 본 연구는 개별 효과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수자 AHP조사와 함께 참여자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수 의도와 참여자 결과 간 영향관계 역시 파악하고자 함.
- FGI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기존의 개별 프로그램 성과 분석을 넘어, 지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지님.

II.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이론적 배경과 주요 지표

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및
사회적 효과성의 정책적 의미
2.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효과성
주요 지표



II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이론적 배경과 주요 지표

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및 사회적 효과성의 정책적 의미

1.1. 문화예술교육의 사상적 기원과 개념

-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히 예술을 가르치는 교육의 한 갈래가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형성하고 사회를 어떻게 유지·발전시킬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 교육 사상적 실천임.
- 임마누엘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미적 판단을 쾌락이나 효용의 문제가 아닌,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판단 능력의 발현으로 규정하였음. 그는 미적 경험을 통해 인간이 도덕적 강제나 목적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한다고 봄. 이때 예술은 감각적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자율적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인식론적 훈련의 장이 됨.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 경험은 교육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 자유롭고 자율적인 시민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로 이해됨. 칸트의 미학은 문화예술교육을 기능 습득 이전에 ‘판단하는 인간’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프리드리히 쉴러는 칸트의 미학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사회적이고 인간학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킴. 쉴러는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에서 근대 사회가 인간을 이성과 감각, 노동과 자유로 분열시켰다고 진단하였음. 그는 이러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매개로서 ‘유희 충동’을 제시하며, 예술을 이 유희 충동이 실현되는 장으로 봄. 예술은 감각과 이성을 대립시키지 않고 조화롭게 통합함으로써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 회복시키는 힘을 지님. 쉴러에게 미적 교육은 단순한 개인 수양을 넘어, 사회적 분열을 완화하고 공동체적 조화를 회복하는 사회적 교육의 의미를 가짐.
- 20세기에 들어 존 듀이는 이러한 미학적 논의를 교육학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전환시켰음. 듀이는 『민주주의와 교육』과 『경험으로서의 예술』을 통해 예술을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닌, 일상의 경험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재정의하였음. 그는 예술을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라 경험하는 활동으로 보았으며, 학습자 역시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주체로 이해했음. 듀이의 관점에서 교육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며,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민주적 삶을 연습하는 장임. 이러한 경험 중심 교육관은 문화예술교육을 기술 훈련이나 감상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표현·소통을 핵심 가치로 하는 교육 실천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됨.
- 칸트, 쉴러, 듀이로 이어지는 이 사상적 흐름은 문화예술교육이 왜 단순한 예술 기능 교육을 넘어, 인간 형성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는지를 설명해 줌. 칸트가 자율적 판단 능력의 형성을 강조했다면, 쉴러는 전인적 인간 회복과 사회적 조화를, 듀이는 경험과 참여를 통한 민주적 시민 형성을 강조하였음. 이 세 사상은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지만, 예술 경험이 인간의 내적 성장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
- 이러한 이론적 축적을 바탕으로 현대의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통해 개인의 감각과 정서를 일깨우고, 자기 이해와 정서적 회복을 촉진하며,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공동체 인식을 확장하는 교육 실천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과정은 곧 예술을 인간과 사회의 중심에 다시 위치시키려는 사상적 노력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은 예술 경험을 매개로 개인의 문화적 감수성과 정서적 회복성을 증진하고, 사회적 연결성과 공동체 정체성을 확장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공공적 교육 실천임.
- 즉, 국가와 지역사회가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정책 영역의 문화 활동임. 이는 단순한 예술 기능 교육을 넘어, 문화 접근권과 문화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1.2. 한국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형성과 전개

1.2.1. 한국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배경과 목표

-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은 오랜 기간 학교 교육 안에서 음악·미술·무용과 같은 교과 중심의 예술교육 형태로 존재해 왔음. 이 시기의 예술교육은 주로 기능 습득과 감상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으며, 교육과정의 보조적 영역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음. 예술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수 영역이거나, 정서 순화를 위한 부가적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문화예술교육을 사회적 가치나 시민 역량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흐름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음.
-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 초반 문화정책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됨. 문화가 경제 성장의 부속 요소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예술교육 역시 문화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재조명됨. 특히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교육 활동으로 확장되었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시도가 등장하였음.
-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제정은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됨.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공공정책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은 일시적 사업이나 선택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을 갖춘 정책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같은 해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학교와 지역을 아우르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음. 이 시기에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비롯해 지역 문화시설, 복지시설, 평생교육 공간으로 문화예술교육이 확산되며 양적 성장을 이룸.
- 문화예술교육정책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문화예술교육법)의 제정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국가 문화정책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문화예술교육법 제1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전개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정책에는 국민의 문화권 개념과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 2000년대 초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태동할 때 지향한 사회적 가치는 두 방향이었음. 하나는 산업경제시대에서 지식경제시대로 전환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사회와 국가의 창의적 역량의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과 같은 경제적 가치였음. 다른 하나는 다양성과 개방성, 참여에 기초하는 소통과 통합의 가치였음(염신규, 2025). 특히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서로 다른 지역·세대·계층·집단 간의 소통과 공감을 촉진하고, 통합적 가치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임.

- 즉,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단순히 개인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나 예술적 능력 개발을 넘어서, 공동체의 문화적 역량을 동시에 증진하려는 지향점을 가지고 전개된 것임. 즉, 창의성과 감수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나아가 창조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문화교육을 지향하고 있음. 이는 전통적인 장르 중심의 예능교육을 넘어, 창의성·감수성·공동체성 등을 통합적으로 형성하는 교육 형태로 발전해온 것임.
- 본 연구 결과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을 넘는 사회적 효과성이 있음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음. 참여자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문화적 감수성), 사회적 관계 인식의 긍정적 변화(사회적 연결성),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의 지원(정서적 회복성),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재인식하는 계기(공동체 정체성)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음.

1.2.2.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전개와 성과

-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은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전환의 단계로 진입하게 됨.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가보다, 문화예술교육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함. 이 시기부터 문화예술교육은 정서적 안정, 자존감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며 논의됨. 특히 아동·청소년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성인·노인·취약계층을 포함한 생애주기 전반의 문화예술교육이 강조되면서 문화복지, 평생교육, 지역 공동체 정책과의 결합이 본격화됨.
- 2010년대를 지나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 정책 예산도 2013년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넘어섰고, 수혜 대상자의 호응도 높아졌음. 특히 다양한 사회 문제 완화의 대안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주목받기 시작했음. 전 사회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은 공동체와 개인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필수적인 교육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외. 2025).
- 동시에 지방분권과 문화자치 기조에 따라 지역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확장되기 시작하였음. 2015년 문화예술교육법 개정으로 5년 단위 중장기 종합계획(중앙, 지역)의 수립이 법적 의무화가 되면서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이하 1차 종합계획),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23~2027>(이하 2차 종합계획)이 수립 및 시행되고 있음. 부산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정부 계획에 발맞춰,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
- 1차 종합계획은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적 특성과 교육 환경을 반영해 '지역분권화에 따른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을 토대로 맞춤형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펼치는 것이 핵심이었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외. 2025).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하는 2차 종합계획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중앙-광역-기초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지역의 생활권에 기반을 두고 생활밀착형으로 실현하려는 정책 방향임.
 - 1-2차 종합계획 이행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같은 중앙기관은 정책 기획 및 조정자 역할로서 광역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일부 직접지원(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 문화다양성 지역주간 개최 등)을 제외하고, 간접지원(지역성과 포럼·백서발간, 지역협력위원회, 연수·워크숍, 연구·조사, 정보서비스 플랫폼, 법령·제도 개선 등) 형태로 전환하고 있으며, 광역센터는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점 및 플랫폼 역할로서 직간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FGI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노준석본부장). 특히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광역-기초 간 협업 지원 등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자율 기반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음.

-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문화예술교육은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을 맞이하게 됨.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이관 체계가 본격화됨. 이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동시에, 각 지역이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과 성과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음을 의미함.
- 2022년을 기점으로 유아문화예술교육사업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역센터 운영)과 같은 주요 사업들이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역으로 이양(지역 주도의 정책, 예산, 사업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사업의 설계나 실행에서 지역 자율성의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2013년 도입되어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함으로써 지역 현장의 교육의 질 향상과 인력 풀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은 중앙의 지원과 지역의 특성을 결합하여 수혜자의 저변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를 이루어왔음.
- 부산의 경우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확충, 유아·성인·실버세대 대상 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성장시켜 왔음. 또한 축제, 자율연구모임 지원,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한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의 추진, 문화예술교육 담론을 담아내는 총서와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발자취와 성과에 관한 기록서를 발간 등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차 종합계획은 <어디서나 모두 함께, 부산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일상에 스미는 문화예술교육', '지역이 이끄는 문화예술교육',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음. 지역 주도의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과 지역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특히 민간단체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2025년 기준)에서 사회참여, 15분도시, 효과분석의 3대 핵심가치를 강조하며 <센터 거점>, <우리동네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 실험실 B>와 같은 지역성 강화지원 사업과 <꿈다락 문화학교>, <예술로 일상심포>, <황금빛 예술학교> 등 생애주기별 특화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1.2.3.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의미와 중요성

-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은 창의성 증진, 정서 함양, 자기표현 능력 강화와 같은 개인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음. 그러나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이 왜 공공정책으로 지속되어야 하는지, 왜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고 투자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움.
- 사회적 효과란 개인의 변화가 관계와 집단, 나아가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영향과 결과를 의미함.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에서 사회적 효과는 예술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인의 인식과 태도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되고, 공동의 의미를 만들어내며,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 인식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즉, 사회적 효과는 개인적 효과와 분리된 또 다른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축적되고 확장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논의하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술 경험의 성격을 재정의하는 데 있음. 예술은 흔히 개인의 감수성과 내면적 세계에 머무는 활동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예술 경험은 대부분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짐. 함께 보고, 듣고, 만들고, 표현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소통과 협력, 공감과 조율을 요구함.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참여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는 동시에,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고 관계를 맺는 법을 학습하게 됨.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내적 변화와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동시에 촉발하는 특성을 지님.

- 사회적 효과의 중요성은 또한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됨. 현대 사회는 고립, 단절, 불신, 세대 간 갈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정책 수단은 아니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 회복과 신뢰 형성, 공동의 경험 축적을 통해 사회적 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적 연결성을 증진하고,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회적 효과라 할 수 있음.
-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는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 문화예술교육은 언어 능력이나 학습 성취 중심의 교육 방식과 달리, 다양한 표현 방식과 참여 경로를 허용함. 이로 인해 기존의 교육 환경에서 소외되기 쉬운 참여자들도 자신의 방식으로 경험에 참여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자존감 회복과 정서적 안정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에 다시 편입되는 계기를 제공함.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는 사회적 포용과 통합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임. 문화예술교육이 공공 재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만족이나 단기적 성과를 넘어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사회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문화예술교육을 문화복지, 평생교육, 지역공동체 정책과 연결시키며, 문화정책을 사회정책의 한 축으로 확장시키는 근거가 됨.
- 최근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체계로의 전환은 사회적 효과 논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지역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 주민 간의 관계를 연결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실천으로 기능함. 이때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는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함. 지역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 사회적 효과는 핵심적인 분석 틀을 제공함.
- 한편,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정책적 정당성과 효과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함께 증가함.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취향이나 여가 활동을 넘어 공공정책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사회적 의미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거나, 질적 변화의 양상을 분석하려는 연구와 평가 시도가 점차 확대되었음.

2.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주요 지표

-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은 단일 차원의 성과가 아니라, 개인의 경험·정서·관계·공동체 인식이 서로 맞물려 나타나는 다층적 변화 과정으로 이해됨.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네 가지 주요 지표, 즉 문화적 감수성, 사회적 연결성, 정서적 회복성, 공동체 정체성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을 구성하였음. 이 네 지표는 어느 하나가 다른 지표의 선행 요인이나 결과로 고정되는 인과적 단계 구조가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참여 과정에서 동시에, 그리고 상호 관련성을 맺으며 나타날 수 있는 병렬적 효과 영역으로 설정됨.
- 문화적 감수성은 문화예술을 인식하고 수용하며, 예술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과 태도를 포괄함. 이는 예술적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흥미와 개방적 태도, 다양한 문화적 관점과 형식을 존중하려는 인식 등을 포함하고 있음. 문화예술교육은 참여자가 예술을 관람의 대상이나 전문 영역으로만 인식하는 데서 나아가, 자신의 삶과 연결된 경험으로 받아들이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감수성 증진과 밀접하게 관련됨. 이러한 문화적 감수성은 단순히 예술적 취향이나 관심도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표현과 차이를 받아들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와도 연결된 가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사회적 연결성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 상호작용, 협력적 경험과 관련된 지표임. 이는 함께 활동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뢰감, 타인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려는 태도,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 등을 포함함. 문화예술교육은 다수의 프로그램이 소집단협력 기반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경험이 필연적으로 축적됨.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는 상대방과 감정·경험을 공유하고, 차이를 조율하며, 함께 결과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됨. 사회적 연결성 지표는 이러한 경험이 관계 인식과 상호작용 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기 위한 영역으로 설정되었음.
- 정서적 회복성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표현하고, 정서적 긴장이나 불안 상태를 완화하며,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는 경험과 관련된 영역임. 문화예술교육은 언어적 설명이나 정형화된 사고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함. 참여자는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내면을 탐색하고, 이를 창작·표현이라는 형식으로 바꾸어 내는 경험을 하게 됨. 이러한 경험은 스트레스 완화, 정서적 안정감, 자기 이해 증진과 같은 심리·정서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짐. 정서적 회복성 지표는 문화예술교육이 참여자의 내면적 경험과 정서적 안정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기 위해 설정됨.
- 공동체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지역·집단·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 인식, 그리고 공동의 활동에 참여하려는 태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됨.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공간과 문화 자원, 지역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참여자는 지역을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니라 경험과 의미가 축적되는 장소로 인식하게 됨.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인식,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 공동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음. 공동체 정체성 지표는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학습 경험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역량임.
- 이와 같이 네 가지 지표는 서로 독립된 영역이면서도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 속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상호 관련되는 사회적 효과성의 구성요소로 이해됨. 본 연구는 이 지표들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단순한 만족도나 프로그램 평가 수준을 넘어, 개인·관계·정서·공동체 차원에서 폭넓게 해석하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정책적 가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고자 함.

2.1. 문화적 감수성 역량

- 문화적 감수성은 문화예술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표현에 공감할 수 있는 태도와 인지적 경험의 폭을 의미함. 본 연구에서 문화적 감수성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되며, 특정 기술이나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접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식적·정서적 경험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임.
- 문화적 감수성 개념의 이론적 토대는 근대 미학과 교육철학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음. 칸트는 미적 경험을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판단 능력으로 설명하며, 미적 판단이 감각과 사고의 상호작용 속에서 세계를 해석하도록 이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이러한 관점에서 미적 경험은 단순한 감각적 자극이 아니라, 인간이 사물과 타인을 인식하는 태도와 연결된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문화적 감수성은 예술 경험을 통해 세계를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음.
- 쉐러는 미적 교육을 감각과 이성의 조화를 이루는 인간의 전인적 형성 과정으로 보았으며, 예술 경험이 인간의 내적 성숙과 사회적 조화 가능성을 회복시키는 잠재적 힘을 지닌다고 보았음. 그의 논의에서 감수성은 단순한 정서 반응이 아니라, 타인·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감각적 기반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됨.
- 듀이는 예술을 삶과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과정으로 보며, 감각적 인식과 의미 형성이 일상적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음. 그의 경험 중심 미학에서 감수성은 수동적 감상이 아니라, 적극적 참여와 해석의 반복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능력으로 이해되며,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감수성 형성의 경험적 환경을 제공하는 교육적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문화적 감수성은 문화적 대상과 타인의 표현을 감각적으로 수용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며, 이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종합적 인식 역량으로 이해됨. 이는 인지적 이해와 정서적 공감, 표현의 가능성이 결합된 형태의 경험으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고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으로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강화되는 특성을 보임.
- 문화적 감수성이 형성된 참여자는 타인의 표현과 차이를 보다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인지적·정서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감정의 교류 방식, 집단 활동 속 참여 태도와도 관련성을 갖는 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문화적 감수성은 개인의 내면적 경험을 확장하는 지표이자, 사회적 관계 경험 및 의미 형성과 연계하여 해석될 수 있는 지표이며,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질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핵심 분석 틀로서 연구적 가치를 지님.

2.2. 사회적 연결성 역량

- 사회적 연결성이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신뢰와 공감을 형성하고,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의미함.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이 혼자 수행하기보다 함께 참여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참여자 간 상호작용과 관계 경험이 축적됨.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연결성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주요 영역 가운데 하나로 이해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사회적 연결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협력, 의사소통, 관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이는 단순히 접촉 빈도나 만남의 수와 같은 양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배려·공감·책임감 등이 수반되는 질적 관계 경험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사회적 연결성 개념의 이론적 기반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이해하는 사회철학·사회심리학적 전통에서 찾을 수 있음. 미드(G. H. Mead)는 인간의 자아가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부버(M. Buber)는 타자와의 '나-너' 관계 속에서 인간 존재의 관계적 차원이 열리며, 친밀한 만남이 주체의 자기 이해와 세계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음. 이러한 논의는 개인의 정체성, 정서적 경험, 사회적 태도가 관계 맥락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음을 보여줌.
- 올포트(G. Allport)의 접촉 가설 역시 사회적 연결성을 해석하는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함. 동등한 지위, 공동의 목표, 협력적 과업 수행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편견이 완화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된다는 그의 논의는, 경쟁보다 협업과 공동 수행을 중시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구조와 일정 부분 맞닿아 있음. 이러한 환경에서 참여자들은 타인을 경쟁적 타자가 아니라 함께 과정에 참여하는 동료로 인식하게 되며, 관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의 집단 참여, 협력적 창작 활동, 공동 수행 경험은 이러한 상호작용적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경험 공간으로 기능함. 문화예술 활동은 과제 수행을 넘어 감정·해석·표현을 공유하는 상징적 소통 과정으로 구성되며,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축적하는 경험을 하게 됨. 따라서 사회적 연결성은 문화예술교육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 경험의 질적 변화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서 이론적 의미를 지님.
-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연결성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설명하는 주요 지표이자, 지역사회 관계망 회복, 사회적 고립 완화, 상호 신뢰 형성과 같은 공공정책적 목표와 연계하여 논의될 수 있는 가치 지표로서 의미를 지님.

2.3. 정서적 회복성 역량

- 문화예술교육에서 정서적 회복성은 개인이 예술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려는 내적 능력과 관련된 경험을 의미함.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내면적 영역에 미치는 중요한 효과 가운데 하나로, 다른 사회적 경험 및 관계적 변화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효과성 지표로 이해됨.
- 정서적 회복성의 이론적 배경은 매스틴(Ann S. Masten)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연구와 데시와 라이언(Edward L. Deci & Richard M. Ryan)의 자기결정성이론에서 찾을 수 있음. 회복탄력성 이론은 개인이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고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능력에 주목하며, 정서적 자각·자기조절·내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문화예술교육은 언어적 설명보다 감각적·비언어적 경험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자기 인식이 강화될 가능성을 지닌 경험 환경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정서적 회복성은 또한 예술치료학·심리학·교육철학 전통과도 연결됨. 루빈(J. Rubin)과 크라머(E. Kramer) 등의 연구는 예술적 표현이 억압된 감정과 긴장을 비교적 안전한 방식으로 표출하도록 돕는 과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정서적 이해와 자기 성찰을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해석해 왔음. 윈니컷(D. Winnicott)의 놀이이론과 전이 공간 이론 역시 예술 및 놀이 활동이 현실과 내면 사이의 상징적 공간을 제공하여, 개인이 감정을 탐색하고 의미화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보여줌.
- 쉴러(F. Schiller)의 미적 교육론은 정서적 회복성을 보다 철학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근거를 제공함. 그는 근대 사회에서 감성·이성의 분열을 지적하며, 예술 경험을 통해 이러한 긴장이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다고 보았음.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정서적 경험은 단순한 위안이나 감정 해소를 넘어, 자기 내적 경험을 재정렬하고 통합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정서적 회복성은 감정 인식, 정서 표현, 심리적 안정감, 긴장 완화와 관련된 경험 전반을 포괄하는 지표로 사용됨. 이는 임상적 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정리·완화하는 경험이 강화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사회적 효과성 지표로 설정된 것임. 참여자는 음악·이미지·움직임·서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이러한 과정은 감정을 회피하기보다 수용하고 해석하려는 경험으로 축적됨.
- 정책적 관점에서 정서적 회복성은 문화예술교육이 정신건강·복지·돌봄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접점임.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문화예술교육은 예방적 차원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 경험을 지원하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지님. 이러한 점에서 정서적 회복성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을 설명하는 핵심 지표로서 중요한 정책적·사회적 가치를 가짐.

2.4. 공동체 정체성

- 공동체 정체성은 장소성, 사회적 소속감, 공동체 기억을 다루는 인문-사회과학적 논의에서 그 이론적 기반을 찾을 수 있음. 르페브르(H. Lefebvre)와 투안(Y.-F. Tuan)의 공간-장소 이론은 공간을 단순한 물리적 영역이 아니라 경험-기억-관계가 축적된 의미 공간으로 이해하였으며, 노라(P. Nora)의 기억의 장소(lieux de mémoire) 개념은 공동체의 정체성이 장소와 서사 속에서 재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줌. 이러한 논의는 개인의 지역 인식과 공동체 의식이 특정 장소에서의 경험과 관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의미화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줌.
-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의 공간, 역사, 문화 자원을 탐색하고 재해석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을 단순한 생활 환경이 아니라 의미와 기억이 축적되는 장소로 인식하도록 하는 경험적 조건을 형성함. 공동 창작 활동, 지역 기록 작업, 세대 간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은 참여자가 지역사회와 자신을 연결하는 서사를 구성하도록 돕는 경험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소속감과 관련된 태도 변화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 본 연구에서 공동체 정체성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과 공동체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인식, 지역과의 관계를 의미화하는 경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이는 특정 행동 변화나 참여 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개념이라기보다, 문화예술교육 참여 과정에서 형성되는 지역 인식과 공동체 관련 태도의 질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사회적 효과성 지표로 설정됨.
- 공동체 정체성의 사회적 효과성은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문화적 경험을 공동의 기억과 의미의 차원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음. 공동체 정체성과 관련된 인식과 태도가 강화된 참여자는 지역 문화 활동 참여 의지나 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사회 관계망의 유지와 문화적 기반 형성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줌.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체 정체성은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효과성 지표로 의의를 가짐.

III. AHP분석을 통해 본 세대별 주요 사회적 효과성

1. AHP조사를 통한 생애주기별
주요 사회적 효과성
2. AHP 분석 주요 결과



III AHP 분석을 통해 본 세대별 주요 사회적 효과성

1. AHP 조사를 통한 생애주기별 주요 사회적 효과성

1.1. 어린이

- 상위영역 우선순위는 문화적 감수성 역량(48.6%) 정서적 회복성 역량(29.7%) 사회적 연결성 역량(18.4%) 공동체 정체성(3.3%) 순이었음.
 -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17.6%)와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14.5%) 비중이 높았고 문화예술 참여 태도(5.9%)와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5.8%)가 뒤를 이었음.
 - 정서 영역에서는 또래관계(6.6%)와 감정 조절(5.4%)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5.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는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9.7%)가 핵심이었음.
 - 공동체 정체성은 전체 비중이 낮았으며 정서적 소속감(2.5%)이 지역 정체성과 문화 인식(0.8%)보다 높았음.
- 종합하면 어린이 교육에서는 표현과 창의의 기초 역량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정서조절과 또래관계를 함께 중시함.

<표 6> 어린이 대상 지도교사의 AHP분석

	중요도
문화적 감수성 역량	48.6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17.6
문화예술 참여 태도	5.9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4.8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14.5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	5.8
사회적 연결성 역량	18.4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	9.7
소통과 경청의 태도	5.4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	3.3
정서적 회복성 역량	29.7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4.7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1.8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5.1
자아성찰	3.8
감정 조절	5.4
또래관계	6.6
스트레스 대처력	2.3
공동체 정체성	3.3
지역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	0.8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	2.5
총합	100.0

1.2. 청소년·청년

- 상위영역 우선순위는 사회적 연결성 역량(35.9%) 문화적 감수성 역량(28.3%) 정서적 회복성 역량(26.3%) 공동체 정체성(9.5%) 순이었음.
 -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는 소통과 경청의 태도(15.8%)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10.6%)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9.5%)의 비중이 높았음.
 -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8.1%)와 문화예술 참여 태도(6.8%)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5.9%)이 핵심이었음.
 - 정서 영역에서는 감정 조절(5.9%)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4.7%) 스트레스 대처력(4.3%)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공동체 정체성은 정서적 소속감(5.6%)이 지역 정체성과 문화 인식(3.9%)보다 높았음.
- 종합하면 청년 교육에서는 대인 소통과 협력 역량을 최우선으로 하되 자기표현과 감정·스트레스 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구성이 적합함.

<표 7>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지도교사의 AHP분석

	중요도
문화적 감수성 역량	28.3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4.7
문화예술 참여 태도	6.8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2.8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5.9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	8.1
사회적 연결성 역량	35.9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	9.5
소통과 경청의 태도	15.8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	10.6
정서적 회복성 역량	26.3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3.5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2.4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4.7
자아정체성	2.4
감정 조절	5.9
감정표현	3.1
스트레스 대처력	4.3
공동체 정체성	9.5
지역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	3.9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	5.6
총합	100.0

1.3. 신중년

- 상위영역 우선순위는 사회적 연결성 역량(38.4%) 문화적 감수성 역량(25.9%) 정서적 회복성 역량(24.9%) 공동체 정체성(10.8%) 순이었음.
 -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는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15.4%) 소통과 경청의 태도(12.4%)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10.6%)가 고르게 높았음.
 -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문화예술 참여 태도(9.4%)와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7.6%)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정서 영역에서는 삶의 의미(6.2%)가 가장 높았고 감정 조절(4.1%)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3.9%) 스트레스 대처력(3.9%)이 뒤를 이었음.
 - 공동체 정체성은 정서적 소속감(6.9%)이 지역 정체성과 문화 인식(3.9%)보다 높았음.
- 종합하면 신중년 교육에서는 관계 형성·소통 중심의 대인역량을 최우선하면서 삶의 의미 탐색과 자기긍정 강화를 병행하는 구성이 효과적임.

<표 8> 신중년 대상 지도교사의 AHP분석

	중요도
문화적 감수성 역량	25.9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7.6
문화예술 참여 태도	9.4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1.8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3.1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	4.0
사회적 연결성 역량	38.4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	10.6
소통과 경청의 태도	12.4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	15.4
정서적 회복성 역량	24.9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2.2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1.5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3.9
삶의 의미	6.2
감정 조절	4.1
자아 회복	3.1
스트레스 대처력	3.9
공동체 정체성	10.8
지역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	3.9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	6.9
총합	100.0

1.4. 노인

- 상위영역 우선순위는 사회적 연결성 역량(41.8%) 정서적 회복성 역량(23.4%) 문화적 감수성 역량(21.8%) 공동체 정체성(13.0%) 순이었음.
 -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는 소통과 경청의 태도(17.8%)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12.5%)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11.5%)가 모두 높았음.
 - 정서 영역에서는 사회적 소속감(4.8%) 자존감 회복(4.6%) 우울감 완화(3.9%)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문화예술 참여 태도(5.8%)와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5.4%)가 핵심이었음.
 - 공동체 정체성은 정서적 소속감(8.5%)이 지역 정체성과 문화 인식(4.5%)보다 높았음.
- 종합하면 노인 교육에서는 대인관계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역 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과 자존감 회복을 함께 강화하는 구성이 바람직함.

<표 9> 노인 대상 지도교사의 AHP분석

	중요도
문화적 감수성 역량	21.8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4.9
문화예술 참여 태도	5.8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2.3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3.4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	5.4
사회적 연결성 역량	41.8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	11.5
소통과 경청의 태도	17.8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	12.5
정서적 회복성 역량	23.4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1.9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1.5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2.4
우울감 완화	3.9
감정 조절	2.7
자존감회복	4.6
사회적소속감(노인만)	4.8
스트레스 대처력	1.6
공동체 정체성	13.0
지역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	4.5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	8.5
총합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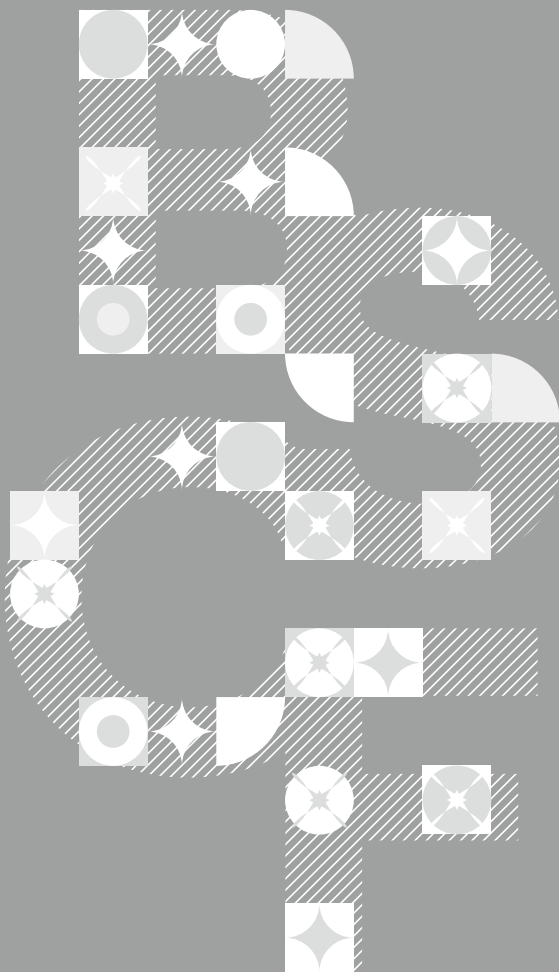
2. AHP 분석 주요 결과

- AHP 분석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인—문화적 감수성, 사회적 연결성, 정서적 회복성, 공동체 정체성—이 각 참여 집단에서 어떠한 상대적 중요도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본 분석은 요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며, 각 요인이 집단별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인식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해석하였음.
- 어린이 집단의 AHP 분석 결과, 문화적 감수성은 네 가지 사회적 효과성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남. 이는 어린이에게 문화예술교육이 새로운 경험을 접하고, 예술적 자극을 수용하며, 표현의 즐거움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반영함. 즉, 어린이 집단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가 사회적 관계나 공동체 인식 이전에,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감각의 형성과 태도 변화라는 차원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에서 문화적 감수성이 단순한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교육 경험의 핵심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동시에 정서적 회복성이나 사회적 연결성 역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지만, 문화적 감수성에 비해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확인됨.
- 청소년·청년 집단에서는 문화적 감수성과 정서적 회복성이 모두 중요한 사회적 효과성 요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남. AHP 결과는 이 연령대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적 경험 자체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 감정 표현, 자기 이해와 같은 심리적 효과를 동시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청소년·청년기가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변화가 집중되는 시기라는 점과도 맞물리는데,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는 이 집단에서 특정 요인 하나로 수렴되기보다는, 문화적 경험과 정서적 경험이 병렬적으로 의미를 갖는 구조로 인식되고 있음. 사회적 연결성 역시 일정한 중요도를 갖지만, 주로 개인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된 효과들에 비해 상대적 중요도는 다소 낮게 인식되는 경향을 보임.
- 중·장년 집단의 AHP 분석 결과에서는 사회적 연결성이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요인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두드러짐. 이는 중·장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적 표현의 장을 넘어, 타인과의 소통, 관계 회복, 사회적 교류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이 집단에서는 문화적 감수성이나 정서적 회복성 역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지만, 특히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확장하는 공공적 장으로 기능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됨. 이는 중·장년층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개인 중심의 교육 효과뿐 아니라, 관계 형성과 사회적 역할 회복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노년 집단의 AHP 분석 결과에서는 정서적 회복성과 공동체 정체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남. 이는 노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이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연결과 소속감을 확인하는 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공동체 정체성은 노년 집단에서 단기 성과라기보다, 문화예술교육이 삶의 의미와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노년기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여가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참여와 공동체적 의미를 포함하는 정책 영역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함.
- 집단별 AHP 분석 결과,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요인은 모든 집단에서 동일한 중요도로 인식되기보다, 생애주기와 삶의 조건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됨. 이는 네 가지 요인이 인과적으로 연결된 단계가 아니라, 각 집단에서 서로 다른 비중으로 인식되는 병렬적 사회적 효과 구성 요소임을 뒷받침함.
-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특정 사회적 효과 하나를 중심으로 설계되기보다, 생애주기별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효과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함.

IV. 설문 분석을 통해 본 세대별 사회적 효과성 사전·사후 변화

1. 문화예술교육사업 영역별 효과 검증
2. 사전·사후 변화 분석 주요 결과



IV 설 분석을 통해 본 세대별 사회적 효과성 사전·사후 변화

-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 총 4개의 영역(문화적 감수성 역량, 사회적 연결성 역량, 정서적 회복성 역량, 공동체 정체성)이 있으며 각 영역별 하위 요인은 다음과 같음.
 - 문화적 감수성 역량: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문화예술 참여 태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 사회적 연결성 역량: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 소통과 경청의 태도,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
 - 정서적 회복성 역량: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자아성찰 및 또래관계(어린이), 자아정체성 및 감정표현(청소년 및 청년), 삶의 의미 및 자아회복(신중년), 우울감 완화 및 자존감 회복(노인), 감정 조절, 스트레스 대처력, 사회적소속감(노인)
 - 공동체 정체성 역량: 지역 정체성과 문화대한 인식,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

1. 문화예술교육사업 영역별 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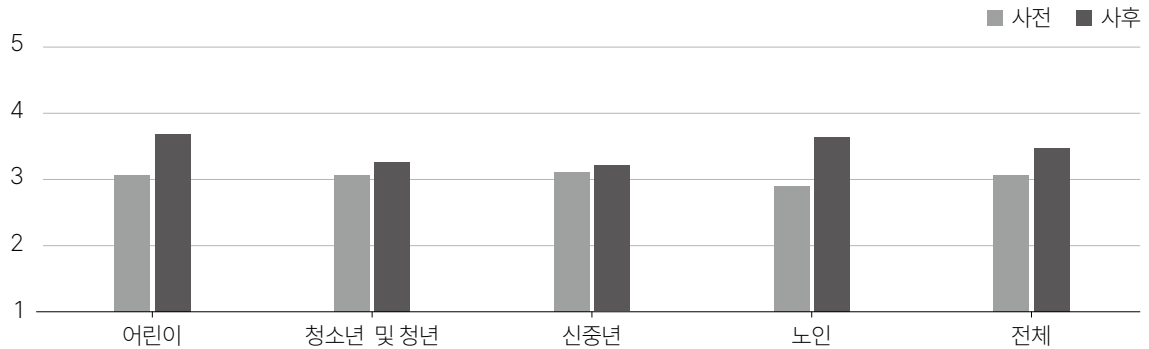
1.1 문화적 감수성 역량의 사전·사후 변화

1.1.1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 문화적 감수성 역량의 하위영역 중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는 어린이 집단($p < .001$)과 청소년 및 청년 집단($p < .05$), 노인 집단($p < .001$)에서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신중년 집단은 $p = .18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평균값 자체는 사전 대비 사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전체 생애주기 참여자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p < .001$)하여, 사업 참여 이후 전반적인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의 향상이 나타났음.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Delta = 0.75$)과 어린이($\Delta = 0.60$) 집단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청소년 및 청년($\Delta = 0.19$), 신중년($\Delta = 0.10$) 집단 역시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참여 태도가 향상되는 일관된 패턴이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음.

<표 10>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의 사전-사후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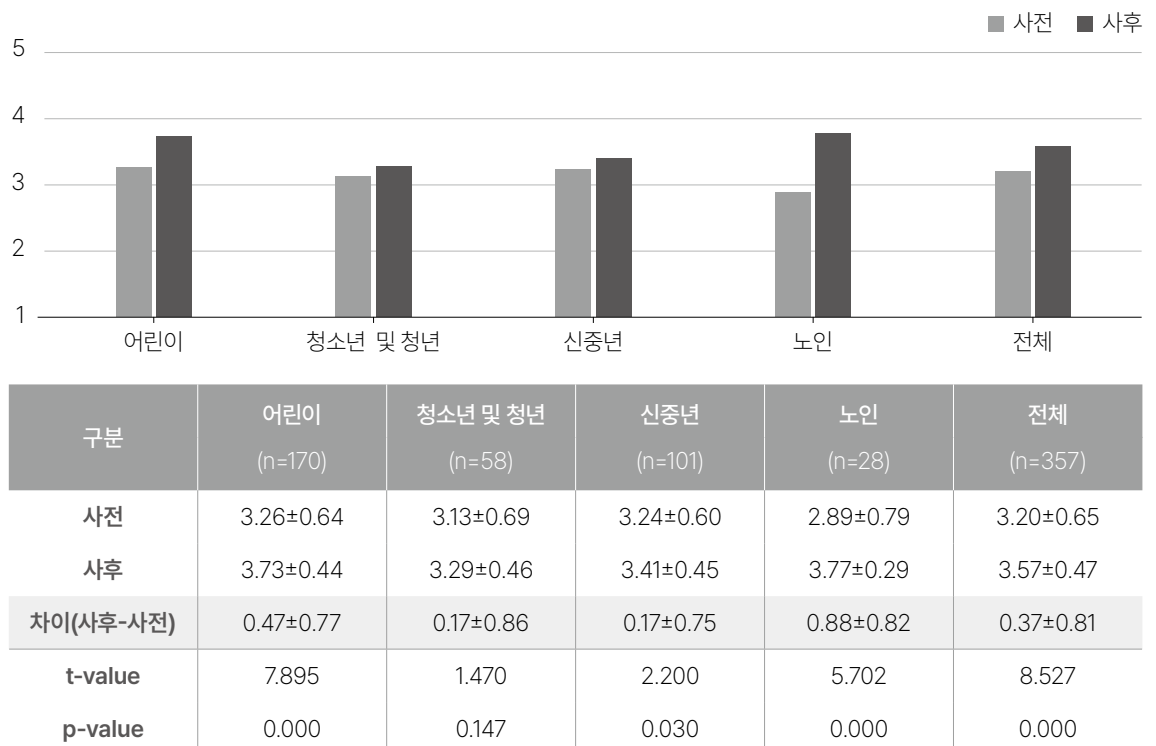


구분	어린이 (n=170)	청소년 및 청년 (n=58)	신중년 (n=101)	노인 (n=28)	전체 (n=357)
사전	3.07±0.69	3.06±0.62	3.10±0.67	2.89±0.74	3.06±0.68
사후	3.67±0.46	3.25±0.40	3.20±0.35	3.64±0.42	3.46±0.47
차이(사후-사전)	0.60±0.87	0.19±0.68	0.10±0.74	0.75±0.82	0.40±0.83
t-value	9.015	2.138	1.339	4.842	9.117
p-value	0.000	0.037	0.184	0.000	0.000

1.1.2 문화예술 참여 태도

- 문화적 감수성 역량의 하위영역 중 문화예술 참여 태도는 어린이 집단($p < .001$)과 신중년 집단($p < .05$), 노인 집단($p < .001$)에서 문화예술 참여 태도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청소년 및 청년 집단은 $p = .14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평균값 자체는 사전 대비 사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전체 생애주기 참여자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p < .001$)하여, 사업 참여 이후 전반적인 문화예술 참여 태도의 향상이 나타났음.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Delta = 0.88$)과 어린이($\Delta = 0.47$) 집단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청소년 및 청년($\Delta = 0.17$), 신중년($\Delta = 0.17$) 집단 역시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참여 태도가 향상되는 일관된 패턴이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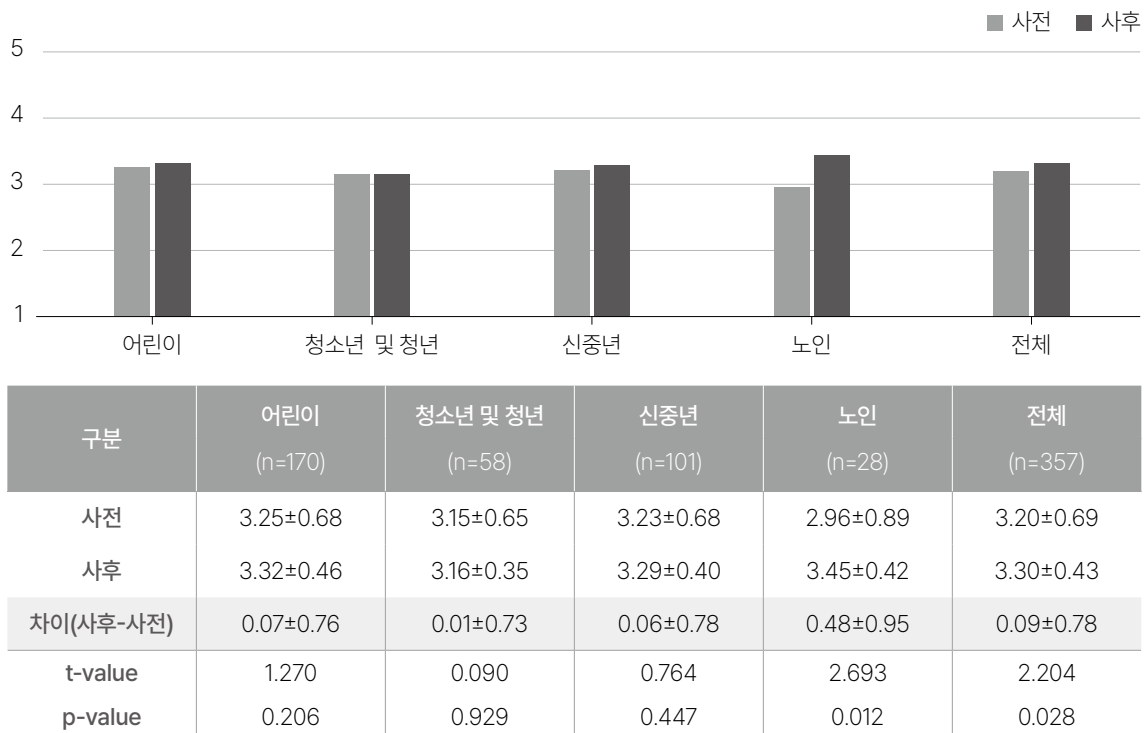
<표 11> 문화예술 참여 태도의 사전-사후 검정



1.1.3.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 문화적 감수성 역량의 하위영역 중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노인 집단($p < .05$)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어린이 집단($p = .206$), 청소년 및 청년 집단($p = .929$), 신중년 집단($p = .447$)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평균값은 모두 사전 대비 사후에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전체 생애주기 참여자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p < .05$)하여, 사업 참여 이후 전반적인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향상이 나타났음.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Delta = 0.48$)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어린이($\Delta = 0.07$), 청소년 및 청년($\Delta = 0.01$), 신중년($\Delta = 0.06$) 집단에서도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향상되는 일관된 패턴이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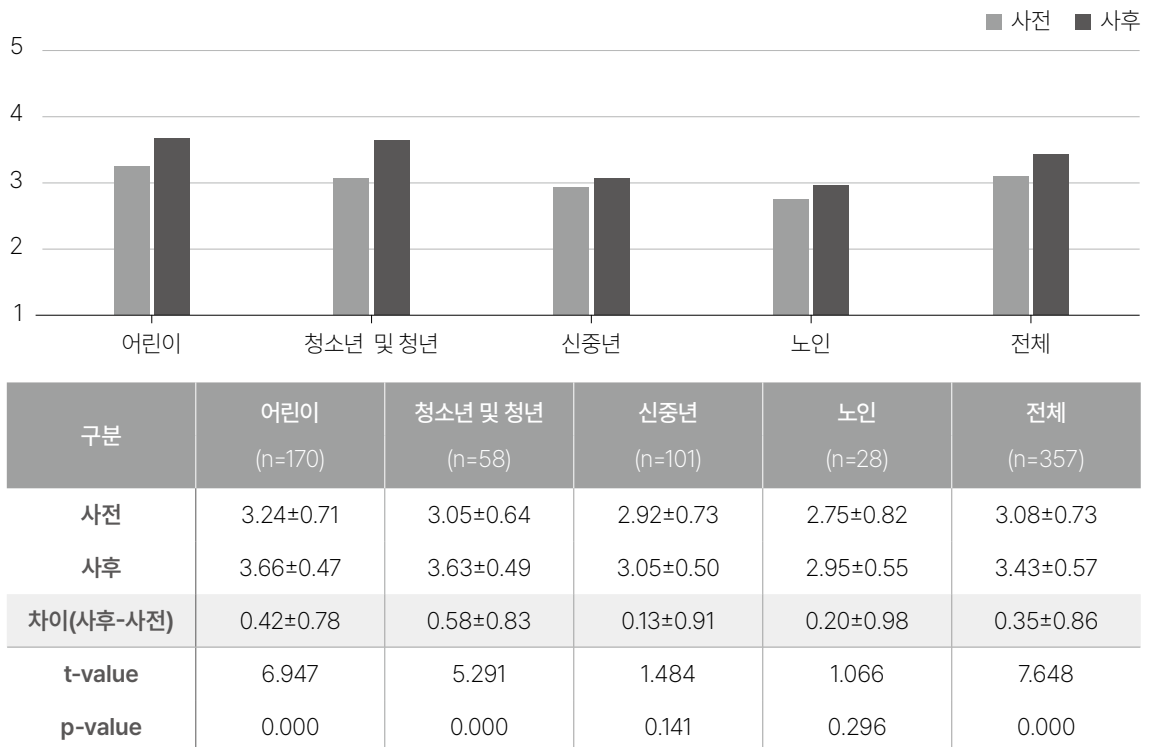
<표 12>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사전-사후 검정



1.1.4.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 문화적 감수성 역량의 하위영역 중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은 어린이 집단($p < .001$)과 청소년 및 청년 집단($p < .001$)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신중년 집단($p = .141$)과 노인 집단($p = .296$)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평균값은 모두 사전 대비 사후에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전체 생애주기 참여자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p < .05$)하여, 사업 참여 이후 전반적인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의 향상이 나타났음.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및 청년($\Delta = 0.58$)과 어린이($\Delta = 0.42$) 집단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신중년($\Delta = 0.13$), 노인($\Delta = 0.20$) 집단 역시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이 향상되는 일관된 패턴이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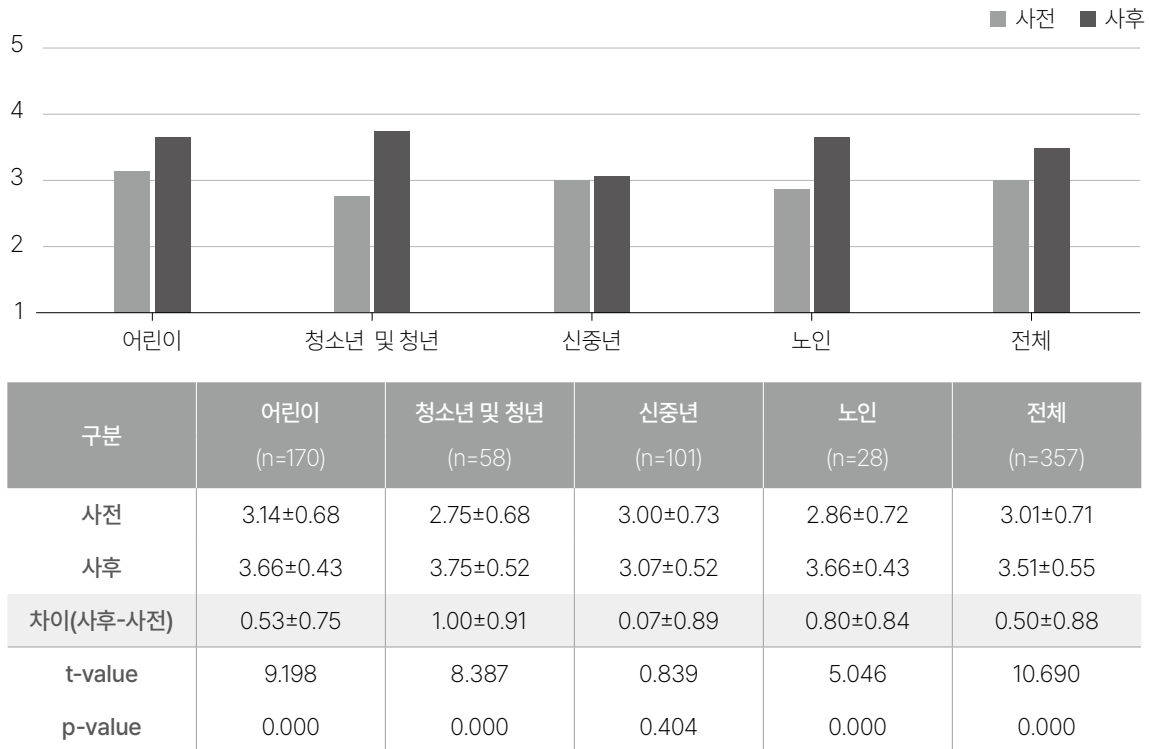
<표 13>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의 사전-사후 검정



1.1.5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

- 문화적 감수성 역량의 하위영역 중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는 어린이 집단($p < .001$)과 청소년 및 청년 집단 ($p < .001$), 노인 집단($p < .001$)에서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신중년 집단($p = .404$)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평균값은 사후가 다소 높은 방향을 보였음.
- 전체 생애주기 참여자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p < .001$)하여, 사업 참여 이후 전반적인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의 향상이 나타났음.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및 청년($\Delta = 1.00$)과 노인($\Delta = 0.80$), 어린이($\Delta = 0.53$) 집단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신중년($\Delta = 0.07$) 집단 역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그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가 향상되는 일관된 패턴이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음.

<표 14>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의 사전-사후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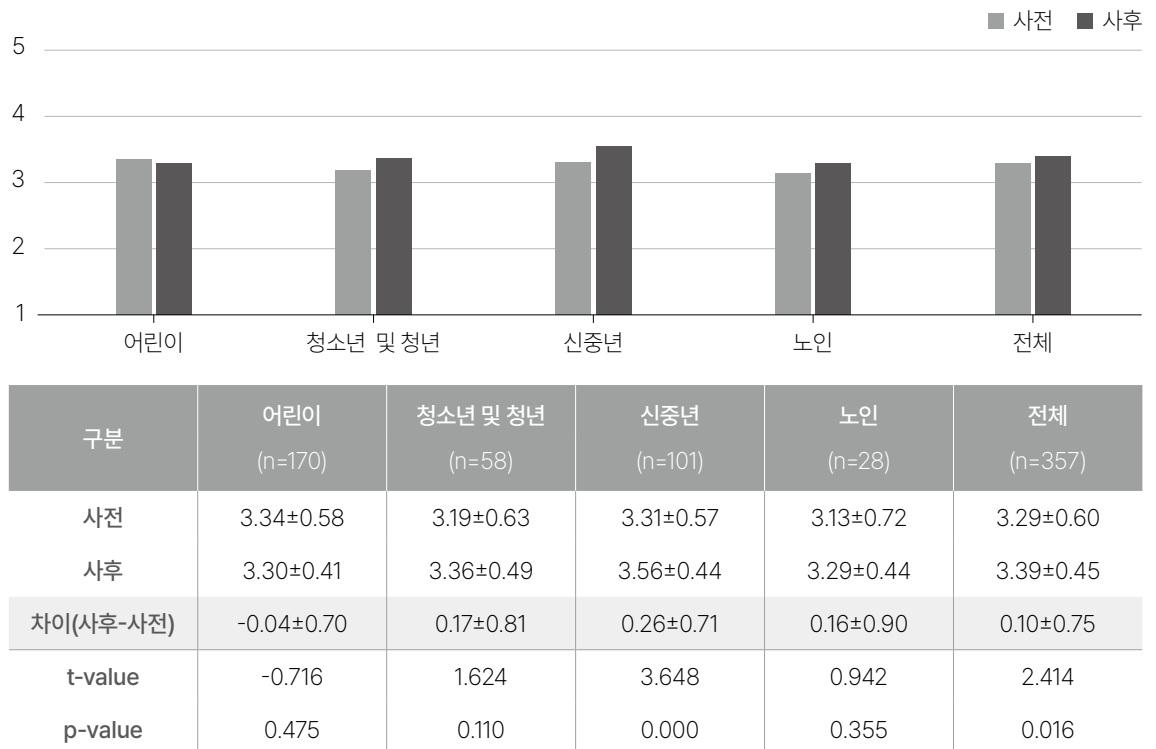


1.2. 사회적 연결성 역량의 사전·사후 변화

1.2.1.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

- 사회적 연결성 역량의 하위영역 중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는 신중년 집단($p < .001$)에서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어린이 집단($p = .475$), 청소년 및 청년 집단($p = .110$), 노인 집단($p = .35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집단에서는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 전체 생애주기 참여자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p < .05$)하여, 사업 참여 이후 전반적인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의 향상이 일부 확인되었음.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신중년($\Delta = 0.26$) 집단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청소년 및 청년($\Delta = 0.17$), 노인($\Delta = 0.16$) 집단 역시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반면 어린이 집단은 $\Delta = -0.04$ 로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가 향상되는 일관된 패턴이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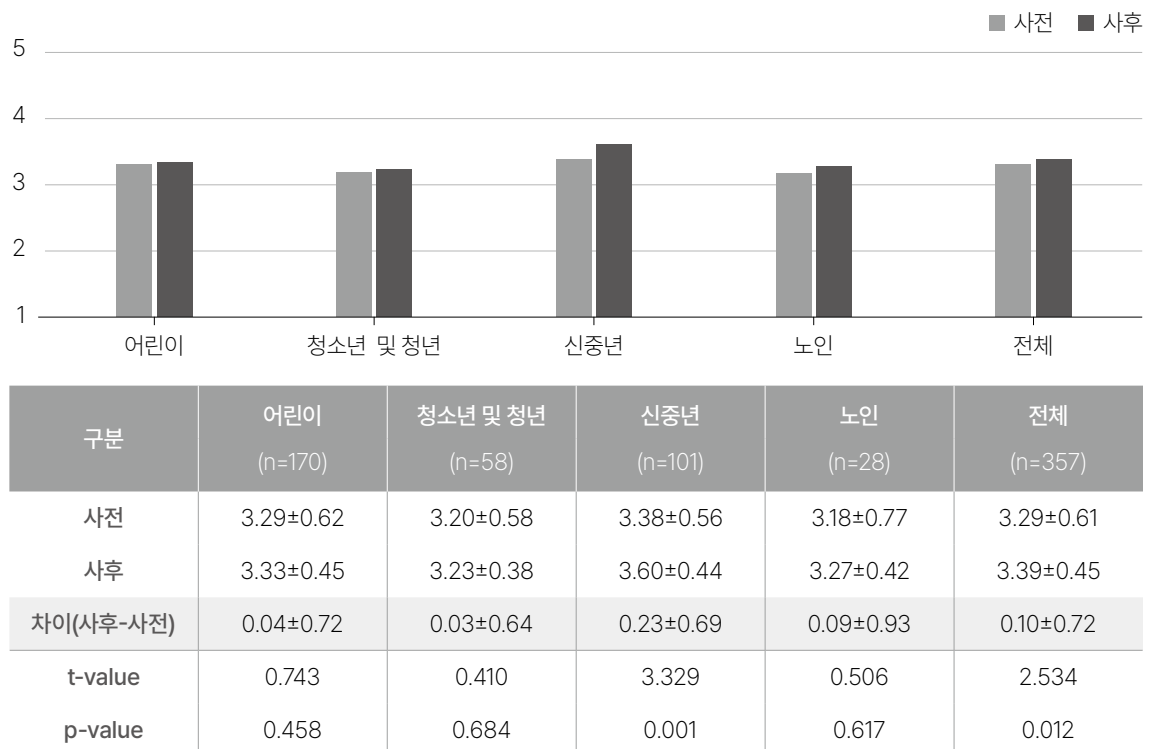
<표 15>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의 사전·사후 검정



1.2.2. 소통과 경청의 태도

- 사회적 연결성 역량의 하위영역 중 소통과 경청의 태도는 신중년 집단($p < .01$)에서 소통과 경청의 태도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어린이 집단($p = .458$), 청소년 및 청년 집단($p = .684$), 노인 집단($p = .617$)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전체 생애주기 참여자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p < .05$)하여, 사업 참여 이후 전반적인 소통과 경청의 태도의 향상이 일부 확인되었음.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신중년($\Delta = 0.23$) 집단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노인($\Delta = 0.09$), 어린이($\Delta = 0.04$), 청소년 및 청년($\Delta = 0.03$) 집단 역시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소통과 경청의 태도가 향상되는 일관된 패턴이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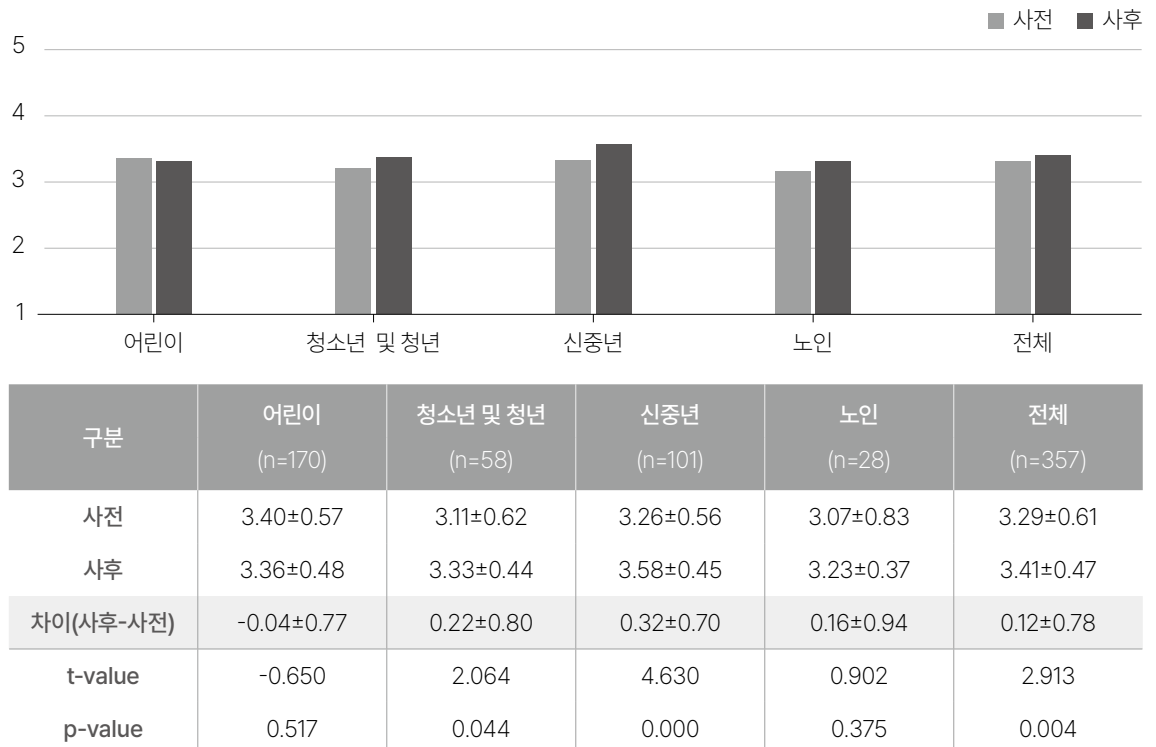
<표 16> 소통과 경청의 태도의 사전-사후 검정



1.2.3.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

- 사회적 연결성 역량의 하위영역 중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은 청소년 및 청년 집단($p < .05$)과 신중년 집단($p < .001$)에서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어린이 집단($p = .517$)과 노인 집단($p = .37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어린이 집단의 평균값은 사전보다 사후가 감소하였고, 노인집단의 평균값은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전체 생애주기 참여자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p < .01$)하여, 사업 참여 이후 전반적인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의 향상이 일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신중년($\Delta = 0.32$) 집단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청소년 및 청년($\Delta = 0.22$), 노인($\Delta = 0.16$), 어린이($\Delta = -0.04$) 집단에서도 변화가 관찰되었음.
-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이 향상되는 일관된 패턴이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음.

<표 17>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의 사전-사후 검정



1.3. 정서적 회복성 역량 사전 사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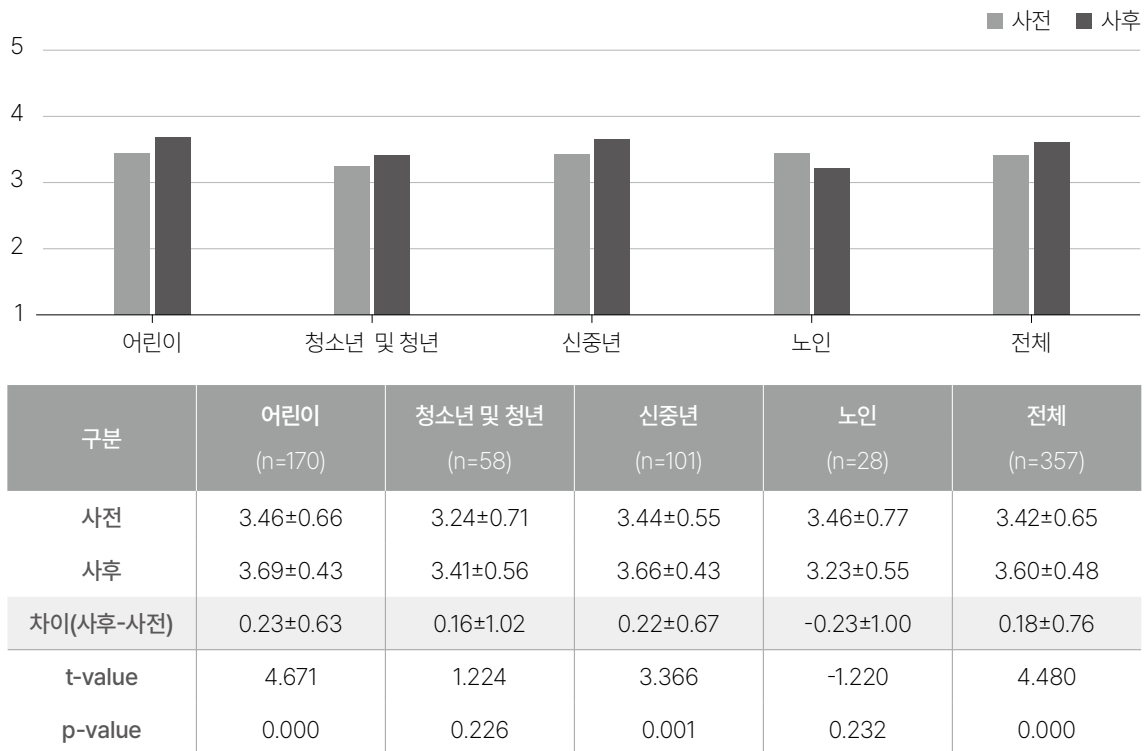
1.3.1.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 정서적 회복성 역량의 하위영역 중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는 어린이 집단($p < .001$)과 신중년 집단($p < .01$)에서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청소년 및 청년 집단($p = .226$)과 노인 집단($p = .23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노인의 평균값은 사전보다 사후가 감소하였고, 청소년 및 청년 집단의 평균값은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전체 생애주기 참여자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증가($p < .001$)하여, 사업 참여 이후 전반적인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의 향상이 나타났음.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어린이($\Delta = 0.23$)와 신중년($\Delta = 0.22$) 집단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청소년 및 청년($\Delta = 0.16$) 집단에서도 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 반면 노인 집단은 $\Delta = -0.23$ 으로 사후 점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노인을 제외한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가 향상되는 일관된 패턴이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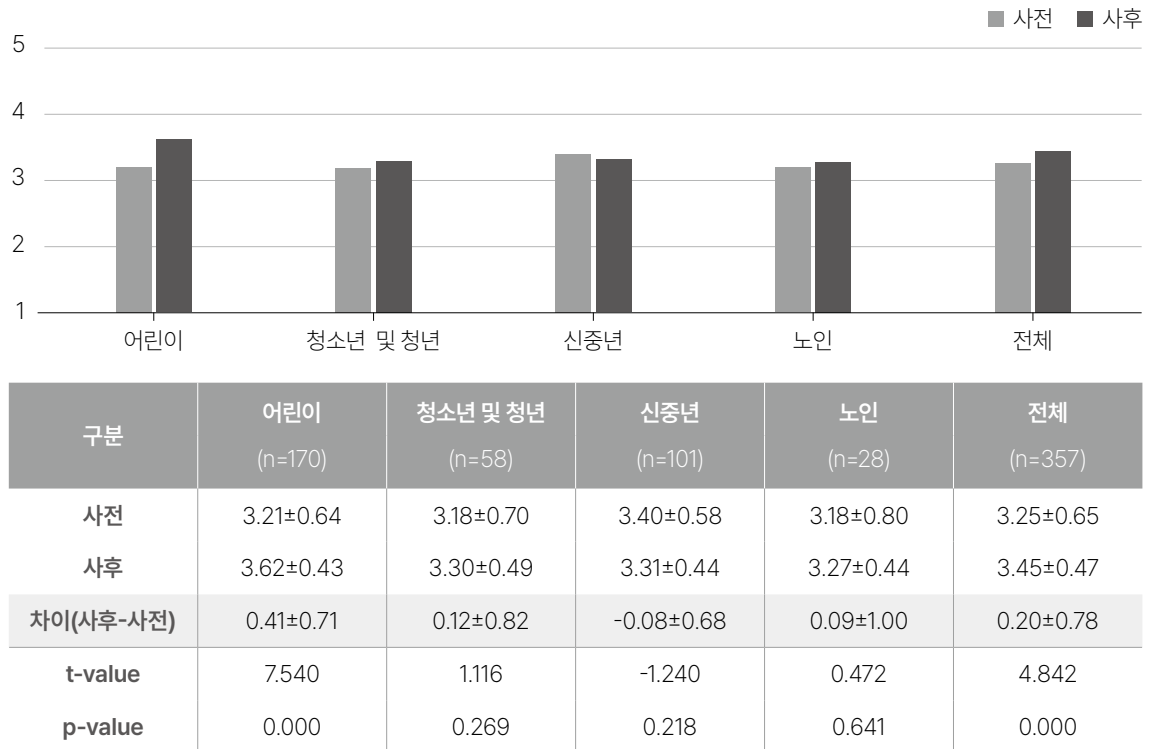
<표 18>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의 사전-사후 검정



1.3.2.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 정서적 회복성 역량의 하위영역 중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는 어린이 집단($p < .001$)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청소년 및 청년 집단($p = .269$), 신중년 집단($p = .218$), 노인 집단($p = .64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신중년 집단의 평균값은 사전보다 사후가 감소하였고, 청소년 및 청년과 노인 집단의 평균값은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전체 생애주기 참여자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증가($p < .001$)하여, 사업 참여 이후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의 향상이 확인되었음.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어린이($\Delta = 0.41$) 집단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청소년 및 청년($\Delta = 0.12$), 노인($\Delta = 0.09$) 집단에서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반면 신중년 집단은 $\Delta = -0.08$ 로 사후 점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신중년을 제외한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가 향상되는 일관된 패턴이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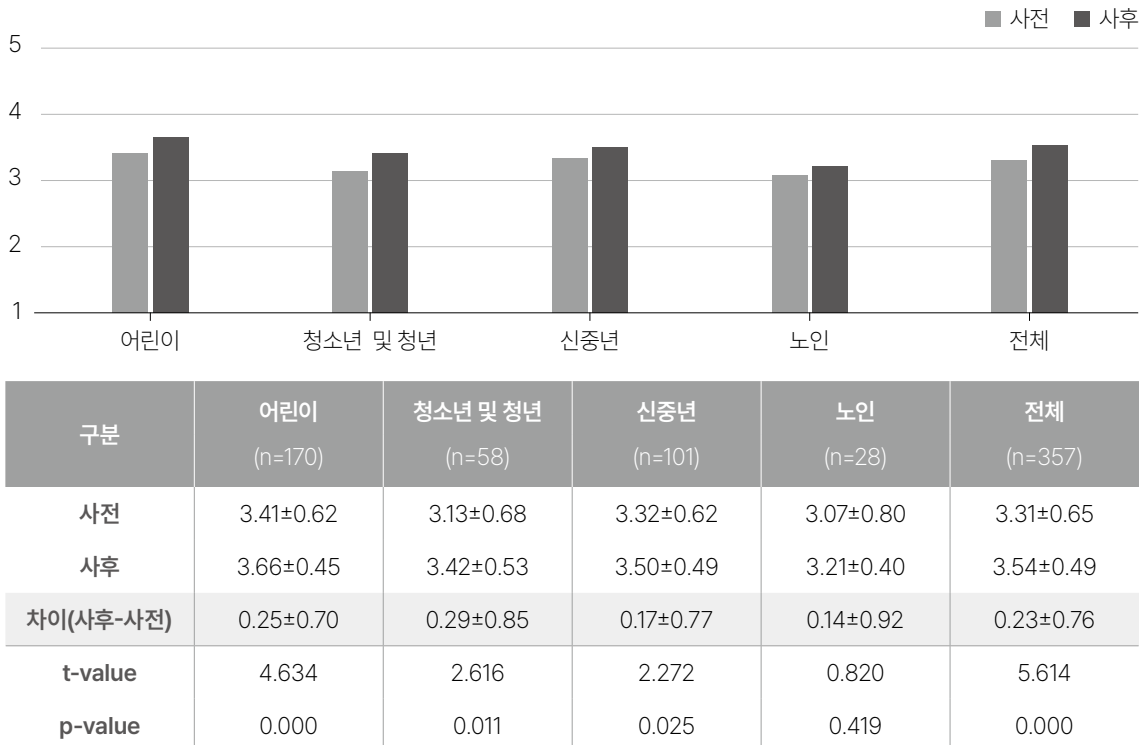
<표 19>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의 사전·사후 검정



1.3.3.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정서적 회복성 역량의 하위영역 중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어린이 집단($p < .001$)과 청소년 및 청년 집단($p < .05$), 신중년 집단($p < .05$)에서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노인 집단($p = .419$)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평균값은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전체 생애주기 참여자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증가($p < .001$)하여, 사업 참여 이후 전반적인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향상이 나타났음.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및 청년($\Delta = 0.29$)과 어린이($\Delta = 0.25$) 집단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신중년($\Delta = 0.17$) 집단에서도 상승 경향이 확인되었음
 - 반면 노인 집단의 증가폭은 $\Delta = 0.14$ 로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었음.
- 그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향상되는 일관된 패턴이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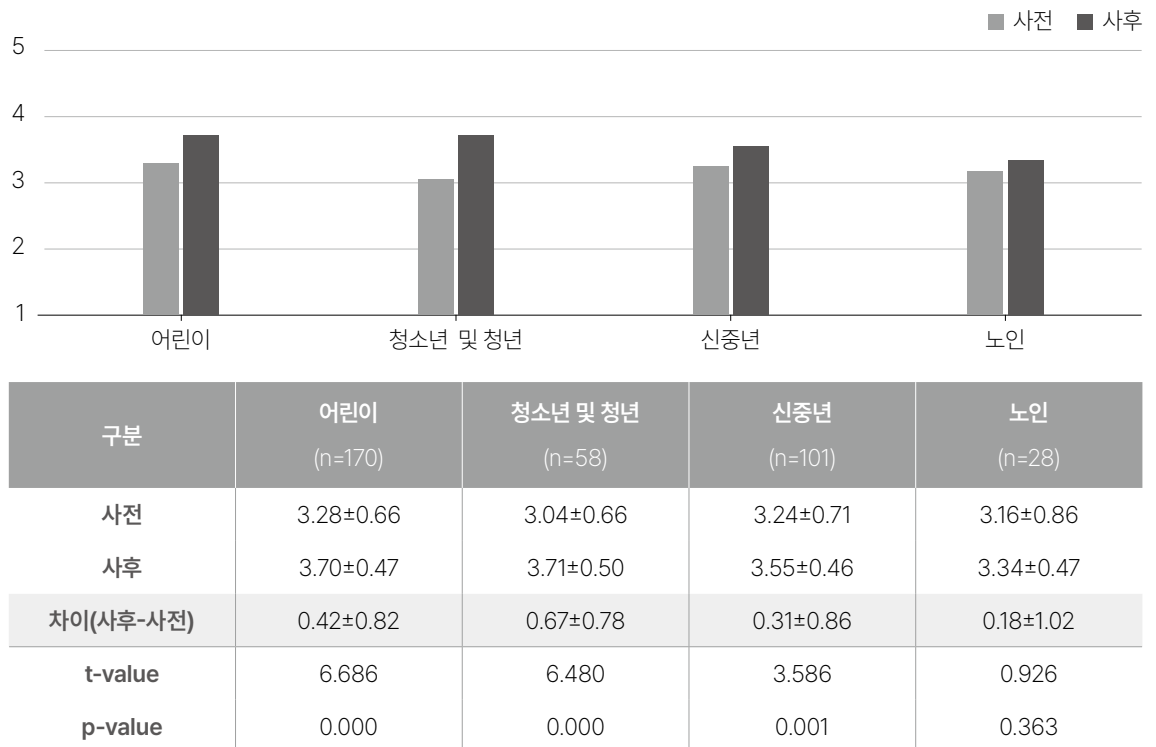
<표 20>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사전-사후 검정



1.3.4. 자아성찰, 자아정체성, 삶의 의미, 우울감 완화

-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정서적 요인들을 확인하였으며, 어린이는 자아 성찰, 청소년 및 청년은 자아 정체성, 신중년는 삶의 의미, 노인은 우울감 완화의 차이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어린이의 자아 성찰($p < .001$), 청소년 및 청년의 자아 정체성($p < .001$), 신중년의 삶의 의미($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확인 되었음.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및 청년($\Delta = 0.67$)과 어린이($\Delta = 0.42$) 집단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신중년($\Delta = 0.31$) 집단에서도 상승 경향이 확인되었음.
 - 반면 노인 집단의 증가폭은 $\Delta = 0.18$ 로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었음.
 -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별 정서적 요인들의 상승이 확인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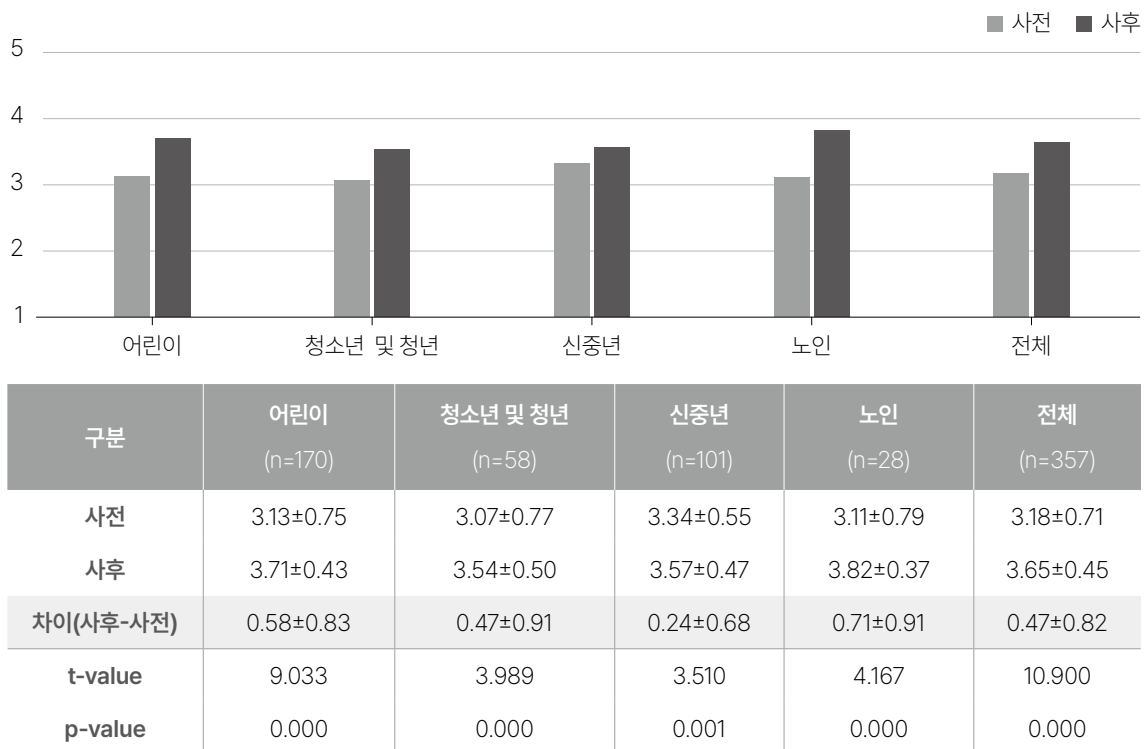
<표 21> 자아성찰, 자아정체성, 삶의 의미, 우울감 완화



1.3.5. 감정조절

- 정서적 회복성 역량의 하위영역 중 감정조절은 어린이 집단($p < .001$)과 청소년 및 청년 집단($p < .001$), 신중년 집단($p < .01$), 노인 집단($p < .001$)에서 감정조절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생애주기 참여자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증가($p < .001$)하여, 사업 참여 이후 감정조절의 향상이 나타났다.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Delta = 0.71$)과 어린이($\Delta = 0.58$) 집단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청소년 및 청년($\Delta = 0.47$), 신중년($\Delta = 0.24$) 집단 역시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정조절이 향상되는 일관된 패턴이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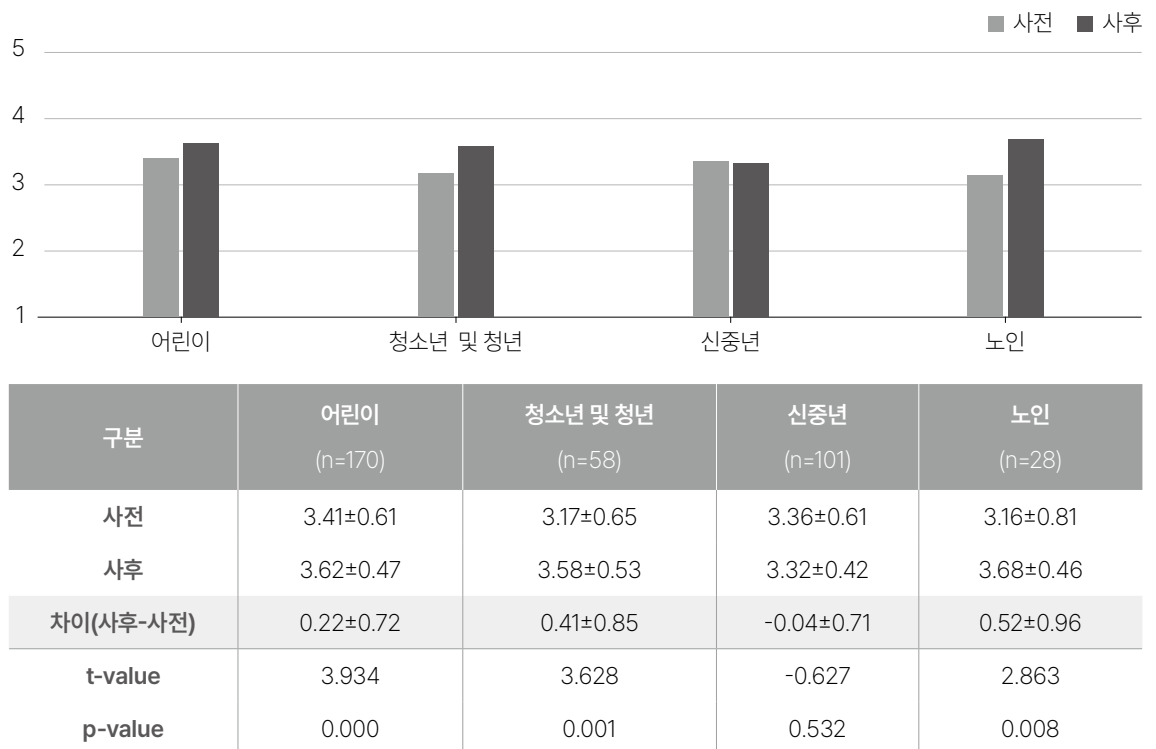
<표 22> 감정조절의 사전-사후 검정



1.3.6. 또래 관계, 감정 표현, 자아 회복, 자존감회복

-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정서적 요인들을 확인하였으며, 어린이는 또래 관계, 청소년 및 청년은 감정 표현, 신중년은 자아 회복, 노인은 자존감회복의 차이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어린이의 또래관계($p < .001$), 청소년 및 청년의 감정표현($p = .001$), 노인의 자존감회복($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확인 되었음.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Delta = 0.52$)과 청소년 및 청년($\Delta = 0.41$) 집단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어린이($\Delta = 0.22$) 집단에서도 상승 경향이 확인되었음.
 - 반면 신중년 집단의 경우 $\Delta = -0.04$ 로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었음.
 -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별 정서적 요인들의 상승이 확인 되었음.

<표 23> 또래 관계, 감정 표현, 자아 회복, 자존감회복



1.3.7. 사회적 소속감

- 정서적 회복성 역량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 소속감은 노인 집단($p < .01$)에서 사회적 소속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노인 집단에서 $\Delta = 0.55$ 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사회적 소속감이 향상되는 일관된 패턴이 분명하게 나타났음.

<표 24> 사회적 소속감의 사전-사후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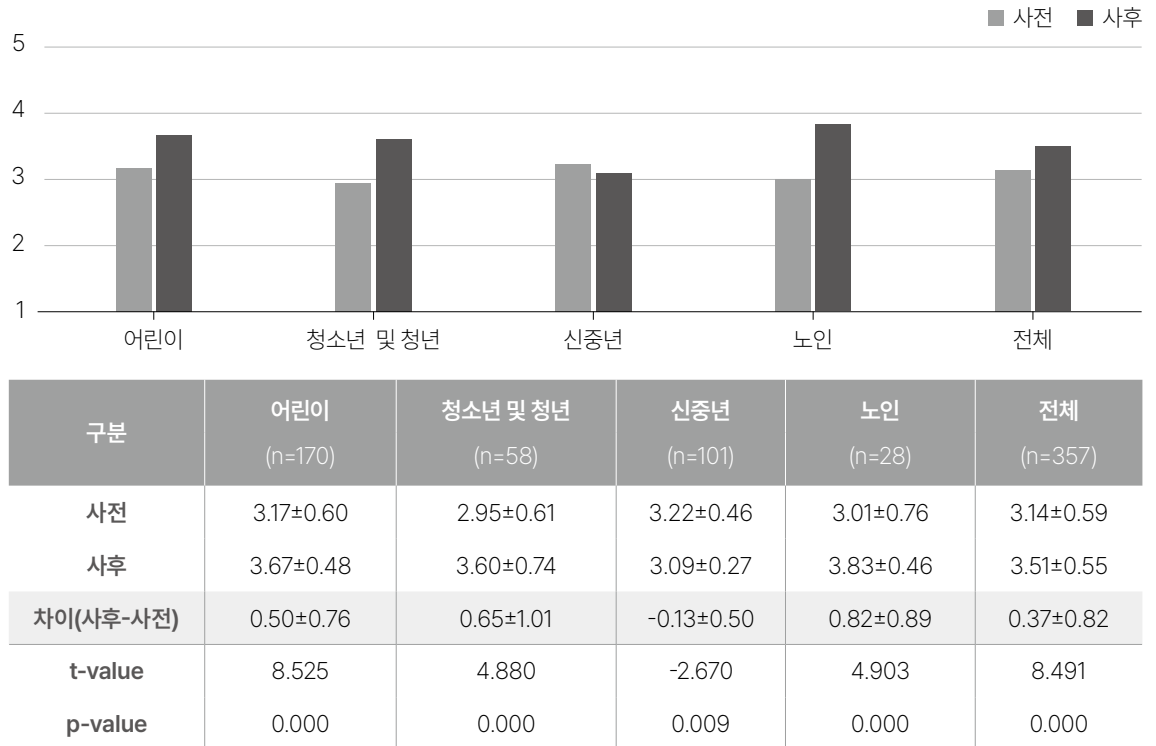


구분	어린이 (n=170)	청소년 및 청년 (n=58)	신중년 (n=101)	노인 (n=28)	전체 (n=357)
사전				3.14±0.85	3.14±0.85
사후				3.70±0.48	3.70±0.48
차이(사후-사전)				0.55±0.91	0.55±0.91
t-value				3.233	3.233
p-value				0.003	0.003

1.3.8. 스트레스 대처력

- 정서적 회복성 역량의 하위영역 중 스트레스 대처력은 어린이 집단($p < .001$)과 청소년 및 청년 집단($p < .001$), 노인 집단($p < .001$)에서 스트레스 대처력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신중년집단($p < .01$)에서 스트레스 대처력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생애주기 참여자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p < .001$)하여, 사업 참여 이후 전반적인 스트레스 대처력의 향상이 나타났음.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Delta = 0.82$)과 청소년 및 청년($\Delta = 0.65$), 어린이($\Delta = 0.50$) 집단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신중년($\Delta = -0.13$) 집단에서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신중년을 제외한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대처력이 향상되는 일관된 패턴이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음.

<표 25> 스트레스 대처력의 사전-사후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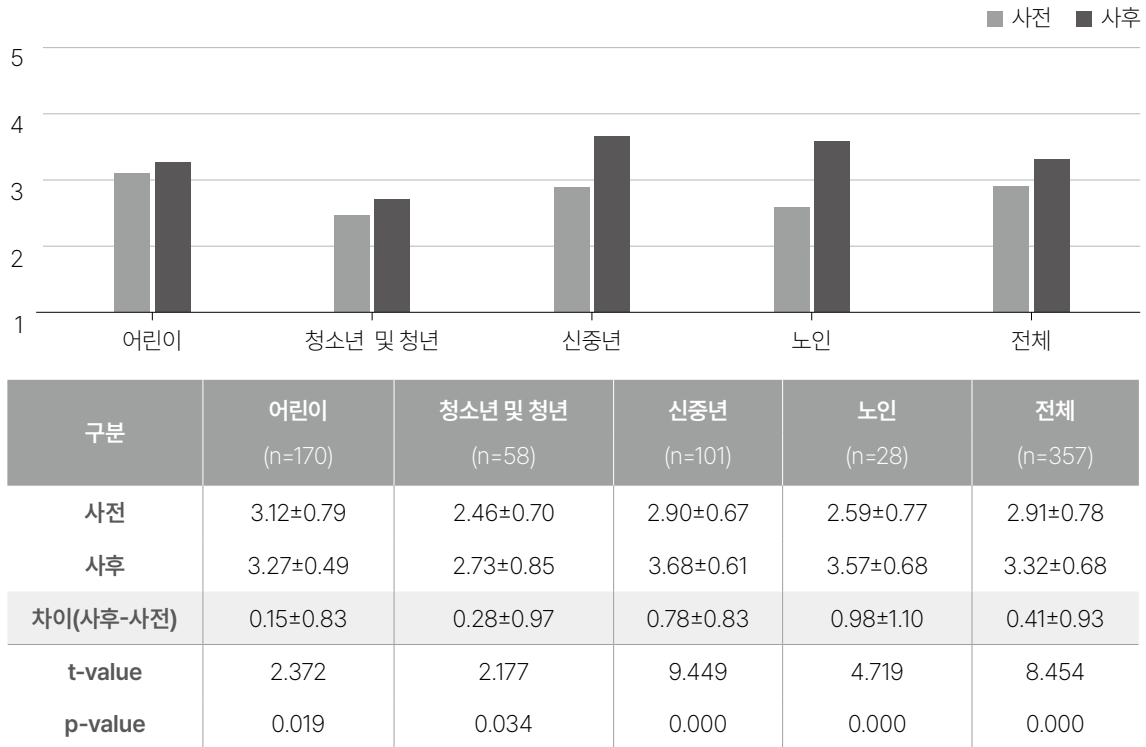


1.4. 공동체 정체성 역량의 사전·사후 변화

1.4.1. 지역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

- 공동체 정체성의 하위영역 중 지역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은 어린이 집단($p < .05$)과 청소년 및 청년 집단 ($p < .05$), 신중년 집단($p < .001$), 노인 집단($p < .001$)에서 지역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생애주기 참여자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증가($p < .001$) 하여, 사업 참여 이후 전반적인 지역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의 향상이 나타났음.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Delta = 0.98$)과 신중년($\Delta = 0.78$) 집단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청소년 및 청년($\Delta = 0.28$), 어린이($\Delta = 0.15$) 집단 역시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역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일관된 패턴이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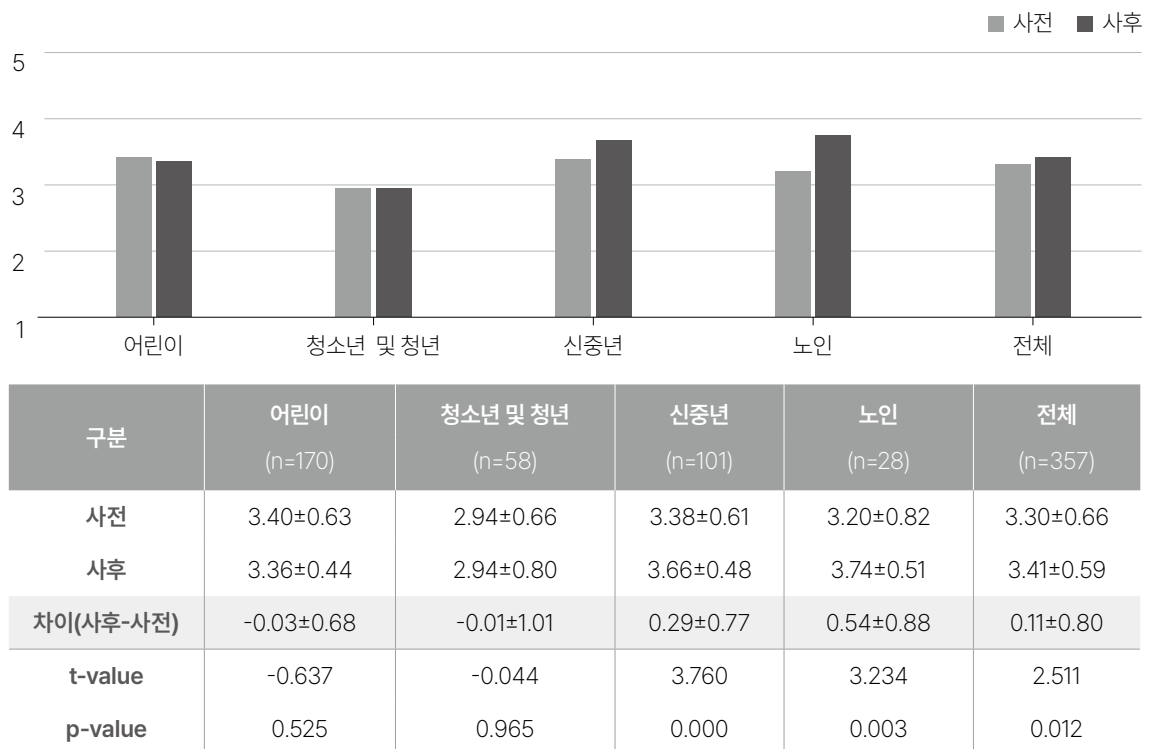
<표 26> 지역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의 사전-사후 검정



1.4.2.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

- 공동체 정체성의 하위영역 중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은 신중년 집단($p < .001$)과 노인 집단($p < .01$)에서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어린이 집단($p = .525$)과 청소년 및 청년 집단($p = .96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평균값 또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생애주기 참여자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p < .05$)하여, 사업 참여 이후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의 향상이 나타났음.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Delta = 0.54$)과 신중년($\Delta = 0.29$) 집단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어린이($\Delta = -0.03$) 및 청소년 및 청년($\Delta = -0.01$) 집단은 사전 대비 사후 점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신중년과 노인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신중년과 노인 집단에서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이 향상되는 패턴이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음.

<표 27>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의 사전-사후 검정



2. 사전·사후 변화 분석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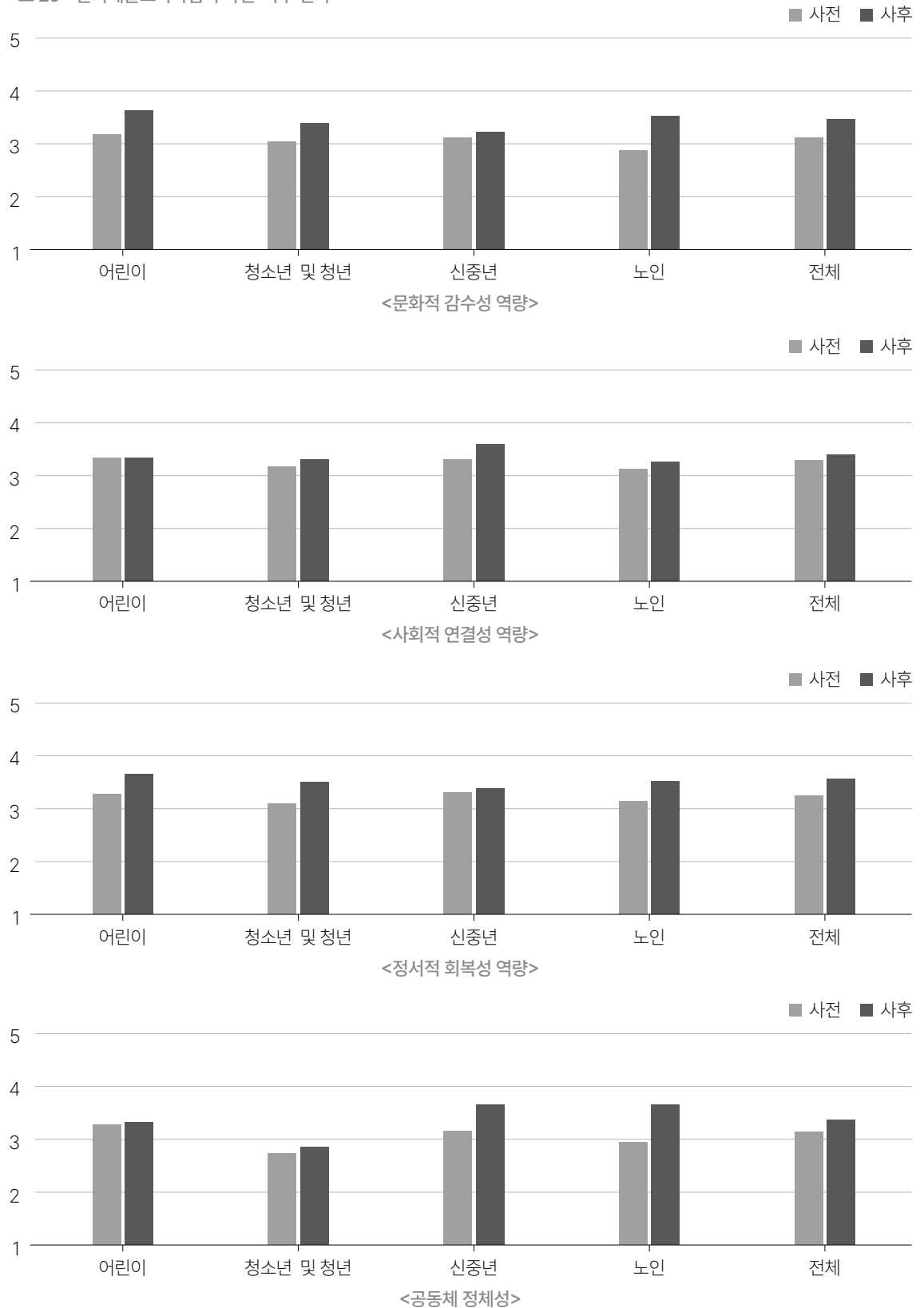
- 문화적 감수성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문화예술 참여 태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창의적 사고와 탐색,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 등 대부분의 하위 문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됨.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참여자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집단에서 문화적 감수성의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생애 초기 단계에서 새로운 감각 경험과 표현 기회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함.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남녀 모두 사후 점수 상승이 확인되었으나, 일부 하위 항목에서는 증가 폭에 차이가 나타나 문화적 감수성의 형성 방식이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줌.
- 생애주기별 문화적 감수성 역량은 어린이 집단($p < .001$)과 청소년 및 청년 집단($p < .001$), 노인 집단($p < .001$)에서 문화적 감수성 역량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신중년 집단에서도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었음.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Delta = 0.65$)과 어린이($\Delta = 0.44$) 집단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청소년 및 청년($\Delta = 0.35$), 신중년($\Delta = 0.11$) 집단 역시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표 28>에서도 확인되듯이,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문화적 감수성 역량이 향상되는 일관된 패턴이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음.
- 사회적 연결성 영역에서도 사전-사후 비교 결과 전반적인 향상이 확인됨.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 협력과 소통 경험, 관계 형성에 대한 인식 등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문항에서 사후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함.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사전-사후 변화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이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의미함.
-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성 역량은 신중년 집단($p < .001$)에서 사회적 연결성 역량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신중년($\Delta = 0.27$) 집단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청소년 및 청년($\Delta = 0.14$), 노인($\Delta = 0.14$) 집단에서도 상승 경향이 관찰되었음.
 - 반면 어린이 집단($p = .805$), 청소년 및 청년 집단($p = .085$), 노인 집단($p = .397$)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 집단에서는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표 28>에서도 확인되듯이, 대부분의 생애주기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회적 연결성 역량이 향상되는 일관된 패턴이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음.
- 정서적 회복성 영역에서는 정서 안정감, 감정 조절, 스트레스 완화, 자기 이해와 관련된 문항에서 사전 대비 사후 점수의 상승이 확인됨. 특히 노년층과 중·장년층에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과 관련된 항목의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 영역의 변화는 문화예술교육이 단순한 문화 향유를 넘어, 참여자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함. 다만 변화의 크기와 양상은 연령과 참여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정서적 회복성이 개인의 삶의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효과 영역임을 보여줌.
- 생애주기별 정서적 회복성 역량은 어린이 집단($p < .001$)과 청소년 및 청년 집단($p < .001$), 신중년 집단($p < .05$), 노인 집단($p < .05$)에서 정서적 회복성 역량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및 청년($\Delta = 0.41$)과 어린이($\Delta = 0.38$), 노인($\Delta = 0.38$) 집단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신중년($\Delta = 0.08$) 집단 역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서적 회복성 역량이 향상되는 일관된 패턴이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음.
- 공동체 정체성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변화 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났으나, 사전-사후 비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가 확인되었음. 지역에 대한 관심, 공동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식과 관련된 문항에서 사후 점수가 상승함.
-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공동체와의 연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재인식하는 계기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줌. 다만 공동체 정체성은 단기간의 교육 참여만으로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반복적 경험과 장기적 참여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됨.
- 생애주기별 공동체 정체성은 신중년 집단($p < .001$)과 노인 집단($p < .001$)에서 공동체 정체성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Delta = 0.71$)과 신중년($\Delta = 0.49$) 집단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청소년 및 청년($\Delta = 0.11$), 어린이($\Delta = 0.04$) 집단에서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반면 어린이 집단($p = .427$)과 청소년 및 청년 집단($p = .360$)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두 집단 모두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공동체 정체성이 향상되는 일관된 패턴이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음.

<표 28>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효과 검정 요약

		문화예술 이해 및 표현 역량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 역량	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역량	공동체 정체성
어린이	사전	3.19±0.512	3.34±0.484	3.29±0.491	3.29±0.620
	사후	3.62±0.328	3.33±0.419	3.67±0.339	3.33±0.417
	차이(사후-사전)	0.44±0.570	-0.01±0.622	0.38±0.532	0.04±0.655
	t-value	9.982	-0.247	9.322	0.797
	p-value	0.000	0.805	0.000	0.427
청소년 및 청년	사전	3.04±0.485	3.17±0.499	3.10±0.481	2.75±0.563
	사후	3.39±0.306	3.31±0.365	3.51±0.339	2.86±0.726
	차이(사후-사전)	0.35±0.558	0.14±0.612	0.41±0.579	0.11±0.882
	t-value	4.821	1.753	5.424	0.923
	p-value	0.000	0.085	0.000	0.360
신중년	사전	3.11±0.487	3.31±0.456	3.32±0.394	3.18±0.538
	사후	3.22±0.274	3.58±0.379	3.40±0.207	3.67±0.428
	차이(사후-사전)	0.11±0.551	0.27±0.573	0.08±0.398	0.49±0.673
	t-value	2.018	4.718	2.069	7.244
	p-value	0.046	0.000	0.041	0.000
노인	사전	2.87±0.660	3.12±0.681	3.15±0.711	2.96±0.749
	사후	3.53±0.217	3.26±0.397	3.53±0.279	3.67±0.502
	차이(사후-사전)	0.65±0.722	0.14±0.841	0.38±0.817	0.71±0.903
	t-value	4.796	0.861	2.436	4.184
	p-value	0.000	0.397	0.022	0.000
전체	사전	3.12±0.519	3.29±0.501	3.26±0.490	3.14±0.629
	사후	3.46±0.348	3.39±0.414	3.56±0.322	3.37±0.561
	차이(사후-사전)	0.35±0.597	0.10±0.635	0.30±0.550	0.23±0.758
	t-value	11.010	3.096	10.340	5.729
	p-value	0.000	0.002	0.000	0.000

<표 29>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전·사후 변화



V.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효과성 차이

1. 생애주기별 사회적 효과성 차이
2.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V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효과성 차이

1. 생애주기별 사회적 효과성 차이

-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사업 효과분석을 위해 대응표본 사전-사후 차이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교육 특성 변인 (과거 교육 참여 여부, 교육 기간)의 집단별 효과 차이를 알아보고자 집단과 사전-사후를 모두 고려하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²⁾를 실시하고 사전과 사후에 대한 집단간 차이는 t-test³⁾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⁴⁾을 실시함.
-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간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역량에서 자아성찰 및 또래관계(어린이), 자아정체성 및 감정표현(청소년 및 청년), 삶의 의미 및 자아회복(신중년), 우울감 완화 및 자존감 회복(노인), 사회적소속감(노인)과 같이 대상자 특성에 맞는 하위요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1.1.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적 감수성 역량 차이

-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집단(어린이·청년·신중년·노인)과 사전·사후 변화에 따른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은 문화적 감수성 역량과 그 하위요인인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문화예술 참여 태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에 대해 각각 수행하였음.
- 그림은 각 영역별로 사전·사후 평균 변화를 시각화한 것임.

(1) 문화적 감수성 역량

-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생애주기 집단의 주효과(Group)는 유의하였으며($F=16.390, p<.001$), 사전·사후 변화(Time) 역시 유의하였음($F=98.980, p<.001$). 상호작용(Group×Time) 또한 유의하였음($F=9.055, p<.001$).
 - 평균값을 비교하면 노인(3.19→3.62), 어린이(2.87→3.53), 신중년(3.04→3.39), 청년(3.11→3.22) 모두 사후 점수가 상승하였음.
 - 그림에서도 전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보다 높게 나타나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 집단에서 상승 폭이 크게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음.

2) 동일한 대상(사람·집단)을 여러 번 반복 측정했을 때 측정 시점·조건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정하는 방법

3) 두 집단(또는 두 시점)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정하는 통계 분석 방법

4) 하나의 독립변수(집단 구분 변수)에 의해 세 개 이상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정하는 통계 기법

(2)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 효과(Group)는 유의하였음($F=8.368, p<.001$), 시간 효과(Time) 역시 유의하였음($F=61.650, p<.001$). 또한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였음($F=11.500, p<.001$).
 - 사전·사후 평균은 어린이(2.89→3.64), 노인(3.07→3.67), 신중년(3.06→3.25), 청년(3.10→3.20) 모두 사후 점수가 상승하였음.
 - 그림에서도 전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보다 높게 나타나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상승 폭이 크게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음.

(3) 문화예술 참여 태도

-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 효과(Group)($F=9.400, p<.001$), 시간 효과(Time)($F=67.470, p<.001$), 상호작용 효과(Group×Time)($F=8.531, p<.001$) 모두 유의하였음.
 - 평균은 어린이(2.89→3.77), 노인(3.26→3.73), 청년(3.24→3.41), 신중년(3.13→3.29)으로 모든 집단에서 상승하였음.
 - 그림에서도 전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보다 높게 나타나며 특히 어린이 집단의 증가 폭이 가장 크게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음.

(4)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Group)는 유의하지 않았음($F=1.695, p=.167$), 시간 효과(Time)만 유의하였음($F=8.608, p=.003$). 하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음($F=2.449, p=.063$).
 - 평균값은 어린이(2.96→3.45), 노인(3.25→3.32), 청년(3.23→3.29), 신중년(3.15→3.16) 모두 사후점수가 소폭 상승하였음.
 - 그림에서도 전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보다 높게 나타나며 특히 어린이 집단의 상승 폭이 가장 크게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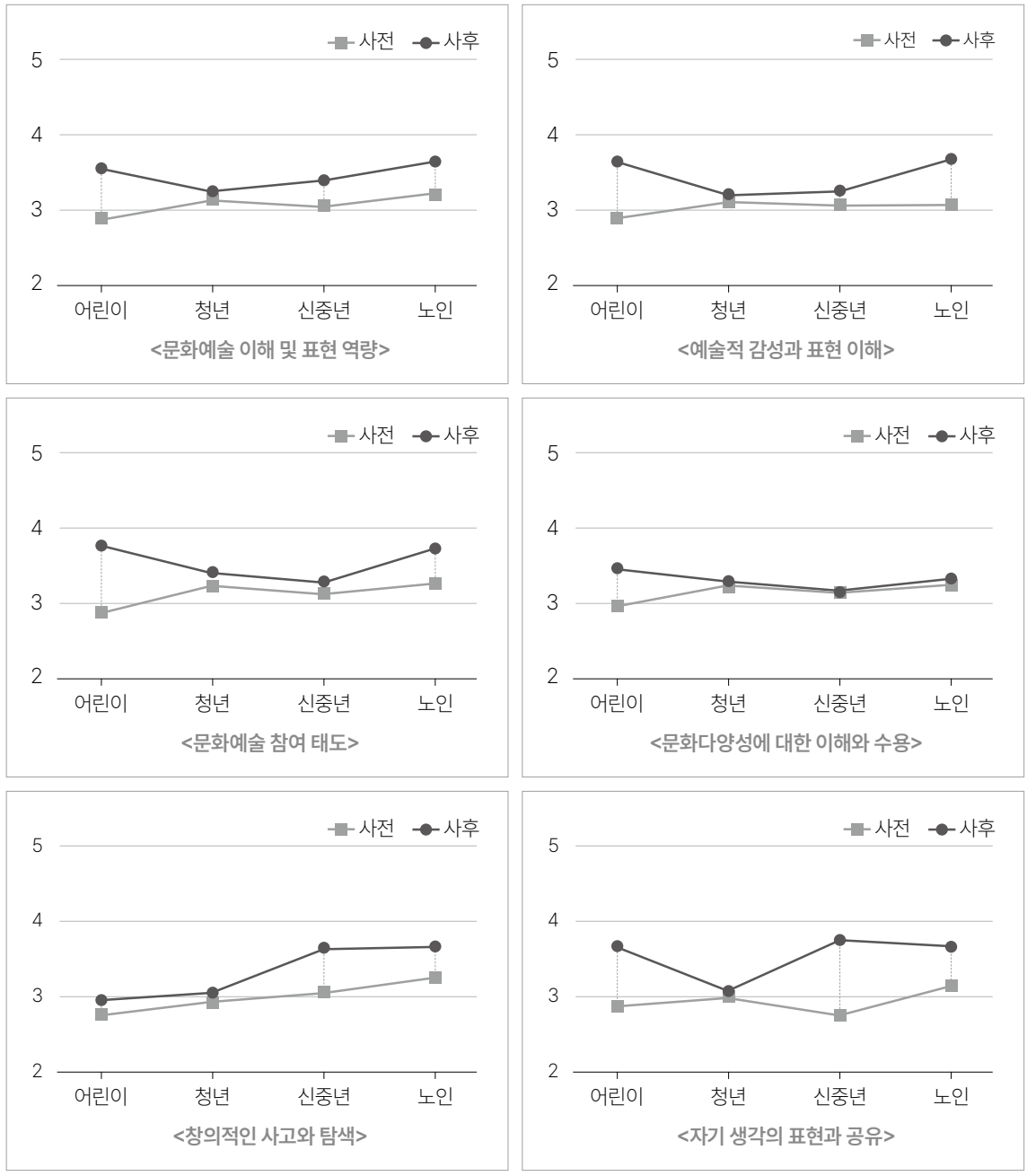
(5)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 효과(Group)($F=33.660, p<.001$), 시간 효과(Time)($F=34.070, p<.001$), 상호작용 효과(Group×Time)($F=4.072, p=.007$) 모두 유의하였음.
 - 사전·사후 평균은 신중년(3.05→3.63), 노인(3.24→3.66), 청년(2.92→3.05), 어린이(2.75→2.95) 모두 사후점수가 상승하였음.
 - 그림에서도 전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보다 높게 나타나며 특히 신중년과 노인 집단의 상승 폭이 크게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음.

<표 30> 생애주기별 문화적 감수성의 사전-사후 차이 검정

영역	Group	Time		Repeated ANOVA
		사전	사후	
문화예술 이해 및 표현 역량	노인	3.19±0.51	3.62±0.33	Group[F=16.390, p=0.000] Time[F=98.980, p=0.000] Group*Time[F=9.055, p=0.000]
	신중년	3.04±0.49	3.39±0.31	
	청년	3.11±0.49	3.22±0.27	
	어린이	2.87±0.66	3.53±0.22	
	F	3.601	39.030	
	p	0.014	0.000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노인	3.07±0.69	3.67±0.46	Group[F=8.368, p=0.000] Time[F=61.650, p=0.000] Group*Time[F=11.500, p=0.000]
	신중년	3.06±0.62	3.25±0.40	
	청년	3.10±0.67	3.20±0.35	
	어린이	2.89±0.74	3.64±0.42	
	F	0.692	34.420	
	p	0.557	0.000	
문화예술 참여 태도	노인	3.26±0.64	3.73±0.44	Group[F=9.400, p=0.000] Time[F=67.470, p=0.000] Group*Time[F=8.531, p=0.000]
	신중년	3.13±0.69	3.29±0.46	
	청년	3.24±0.60	3.41±0.45	
	어린이	2.89±0.79	3.77±0.29	
	F	2.967	22.350	
	p	0.032	0.000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노인	3.25±0.68	3.32±0.46	Group[F=1.695, p=0.167] Time[F=8.608, p=0.003] Group*Time[F=2.449, p=0.063]
	신중년	3.15±0.65	3.16±0.35	
	청년	3.23±0.68	3.29±0.40	
	어린이	2.96±0.89	3.45±0.42	
	F	1.527	3.544	
	p	0.207	0.015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노인	3.24±0.71	3.66±0.47	Group[F=33.660, p=0.000] Time[F=34.070, p=0.000] Group*Time[F=4.072, p=0.007]
	신중년	3.05±0.64	3.63±0.49	
	청년	2.92±0.73	3.05±0.50	
	어린이	2.75±0.82	2.95±0.55	
	F	6.667	45.030	
	p	0.000	0.000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	노인	3.14±0.68	3.66±0.43	Group[F=15.530, p=0.000] Time[F=118.200, p=0.000] Group*Time[F=16.640, p=0.000]
	신중년	2.75±0.68	3.75±0.52	
	청년	3.00±0.73	3.07±0.52	
	어린이	2.86±0.72	3.66±0.43	
	F	4.977	39.990	
	p	0.002	0.000	

<표 31> 생애주기별 문화적 감수성의 사전-사후 변화



1.2.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연결성 역량 차이

(1) 사회적 연결성 역량

-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생애주기 집단의 주효과(Group)는 유의하였음($F=7.891, p<.001$), 사전·사후 변화(Time) 또한 유의하였음($F=10.270, p=.001$). 상호작용 효과(Group×Time) 역시 유의하였음($F=4.225, p=.006$).
 - 평균값을 비교하면 청년(3.31→3.58), 신중년(3.17→3.31), 어린이(3.12→3.26), 노인(3.34→3.33) 노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사후 점수가 상승하였음.
 - 그림에서도 노인을 제외한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보다 높게 나타나며 특히 청년 집단의 상승 폭이 크게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음.

(2)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

-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Group)는 유의하였고($F=4.245, p=.006$), 사전·사후 변화(Time)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음($F=8.201, p=.004$). 상호작용(Group×Time) 역시 유의하였음($F=3.789, p=.010$).
 - 평균값을 비교하면 청년(3.31→3.56), 신중년(3.19→3.36), 어린이(3.13→3.29), 노인(3.34→3.30) 노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사후 점수가 상승하였음.
 - 그림에서도 노인을 제외한 집단에서 사후 평균이 사전보다 높게 나타나며, 특히 청년과 신중년 집단의 상승 폭이 크게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음.

(3) 소통과 경청의 태도

-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Group)는 유의하였음($F=8.945, p<.001$), 사전·사후 변화(Time) 또한 유의하였음($F=4.013, p=.046$). 하지만 상호작용 (Group×Time)은 유의하지 않았음($F=1.481, p=.218$).
 - 평균값을 비교하면 평균은 청년(3.38→3.60), 노인(3.29→3.33), 어린이(3.18→3.27), 신중년(3.20→3.23) 모두 사후 점수가 상승하였음.
 - 그림에서도 전 집단에서 사후 평균값이 사전보다 높게 나타나며 특히 청년 집단의 상승 폭이 비교적 크게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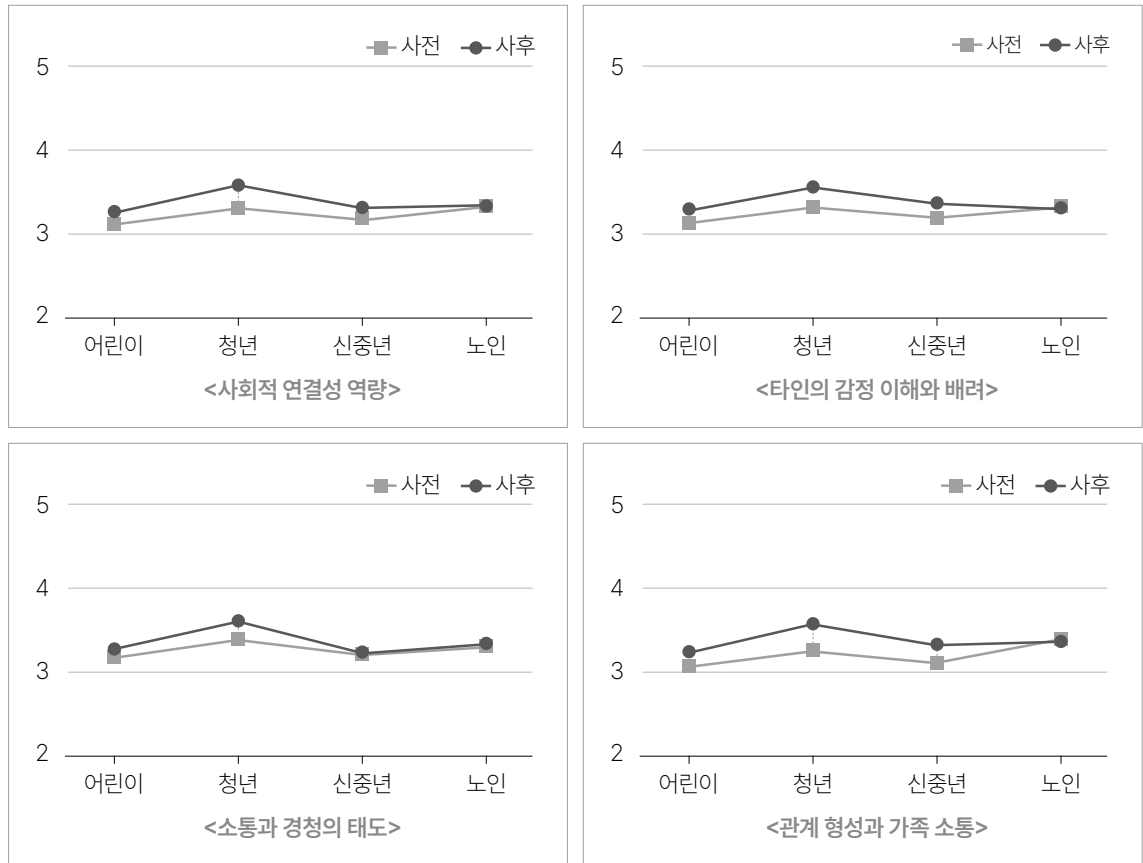
(4)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

-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Group)는 유의하였음($F=6.337, p<.001$), 사전·사후 변화(Time) 또한 유의하였음($F=11.230, p=.001$). 상호작용 (Group×Time) 역시 유의하였음($F=5.285, p=.001$).
 - 평균값을 비교하면 평균은 청년(3.26→3.58), 신중년(3.11→3.33), 어린이(3.07→3.23), 노인(3.40→3.36) 노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사후 점수가 상승하였음.
 - 그림에서도 노인을 제외한 집단에서 사후 평균이 사전보다 높게 나타나며, 청년과 신중년 집단의 증가 폭이 크게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음.

<표 32>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성의 사전-사후 차이 검정

영역	Group	Time		Repeated ANOVA
		사전	사후	
사회적 연결성 역량	노인	3.34±0.48	3.33±0.42	Group[F=7.891, p=0.000] Time[F=10.270, p=0.001]]Group*Time[F=4.225, p=0.006]
	신중년	3.17±0.50	3.31±0.37	
	청년	3.31±0.46	3.58±0.38	
	어린이	3.12±0.68	3.26±0.40	
	F	2.897	10.980	
	p	0.035	0.000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	노인	3.34±0.58	3.30±0.41	Group[F=4.245, p=0.006] Time[F=8.201, p=0.004] Group*Time[F=3.789, p=0.010]
	신중년	3.19±0.63	3.36±0.49	
	청년	3.31±0.57	3.56±0.44	
	어린이	3.13±0.72	3.29±0.44	
	F	1.722	8.305	
	p	0.162	0.000	
소통과 경청의 태도	노인	3.29±0.62	3.33±0.45	Group[F=8.945, p=0.000] Time[F=4.013, p=0.046] Group*Time[F=1.481, p=0.218]
	신중년	3.20±0.58	3.23±0.38	
	청년	3.38±0.56	3.60±0.44	
	어린이	3.18±0.77	3.27±0.42	
	F	1.420	12.820	
	p	0.237	0.000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	노인	3.40±0.57	3.36±0.48	Group[F=6.337, p=0.000] Time[F=11.230, p=0.001] Group*Time[F=5.285, p=0.001]
	신중년	3.11±0.62	3.33±0.44	
	청년	3.26±0.56	3.58±0.45	
	어린이	3.07±0.83	3.23±0.37	
	F	4.872	7.434	
	p	0.002	0.000	

<표 33>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성의 사전-사후 변화



1.3. 생애주기에 따른 정서적 회복성 역량 차이

(1) 정서적 안정 및 자기 이해 역량

-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생애주기 집단의 주효과(Group)는 유의하였음($F=7.039, p<.001$), 사전-사후 변화(Time) 또한 유의하였음($F=69.470, p<.001$), 상호작용(Group×Time) 역시 유의하였음($F=6.915, p<.001$).
 - 평균값을 비교하면 어린이(3.15→3.53), 신중년(3.10→3.51), 노인(3.29→3.67), 청년(3.32→3.40) 모두 사후 점수가 상승하였음.
 - 그림에서도 전 집단에서 사후 평균이 사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어린이와 신중년, 노인 집단의 상승 폭이 크게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음.

(2)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Group)는 유의하였음($F=7.644, p<.001$), 사전·사후 변화(Time)는 유의수준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였음($F=3.351, p=.068$). 상호작용 효과(Group×Time)는 유의하였음($F=2.817, p=.038$).
 - 평균값을 비교하면 청년(3.44→3.66), 신중년(3.24→3.41), 노인(3.46→3.69)에서는 사후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어린이(3.46→3.23)는 사후 점수가 다소 감소하였음.
 - 그림에서도 어린이를 제외한 세 집단은 사후 평균이 사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과 노인에서 상승 폭이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어린이 집단에서는 사후 값이 감소하는 특성이 관찰되었음.

(3)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Group)는 유의하였음($F=4.014, p=.008$), 사전·사후 변화(Time) 또한 유의하였음($F=6.875, p=.009$). 상호작용 효과(Group×Time) 역시 유의하였음($F=8.987, p<.001$).
 - 평균값을 비교하면 노인(3.21→3.62), 신중년(3.18→3.30), 어린이(3.18→3.27)에서는 사후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청년(3.40→3.31)은 소폭 감소하였음.
 - 그림에서도 노인과 신중년, 어린이 집단은 사후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 집단에서 증가 폭이 크게 표현되었음. 반면 청년 집단에서는 사후 점수가 낮아지는 변화가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음.

(4)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Group)는 유의하였음($F=11.840, p<.001$), 사전·사후 변화(Time) 또한 유의하였음($F=16.830, p<.001$). 하지만 상호작용 효과(Group×Time)는 유의하지 않았음($F=0.435, p=.728$).
 - 평균값을 비교하면 청년(3.32→3.50), 신중년(3.13→3.42), 어린이(3.07→3.21), 노인(3.41→3.66) 모든 집단에서 사후 점수가 상승하였음.
 - 그림에서도 전집단에서 사후 평균이 사전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노인과 신중년 집단의 증가 폭이 크게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음.

(5) 감정 조절

-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주효과(Group)는 유의하지 않았음($F=1.774, p=.151$), 하지만 사전·사후 변화(Time)는 유의하였음($F=83.710, p<.001$). 상호작용(Group×Time) 또한 유의하였음($F=4.326, p=.005$).
 - 평균값을 비교하면 어린이(3.11→3.82), 신중년(3.07→3.54), 청년(3.34→3.57), 노인(3.13→3.71) 모두 사후 점수가 상승하였음.
 - 그림에서도 모든 집단에서 사후 평균이 사전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 집단의 증가 폭이 크게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음.

(6) 스트레스 대처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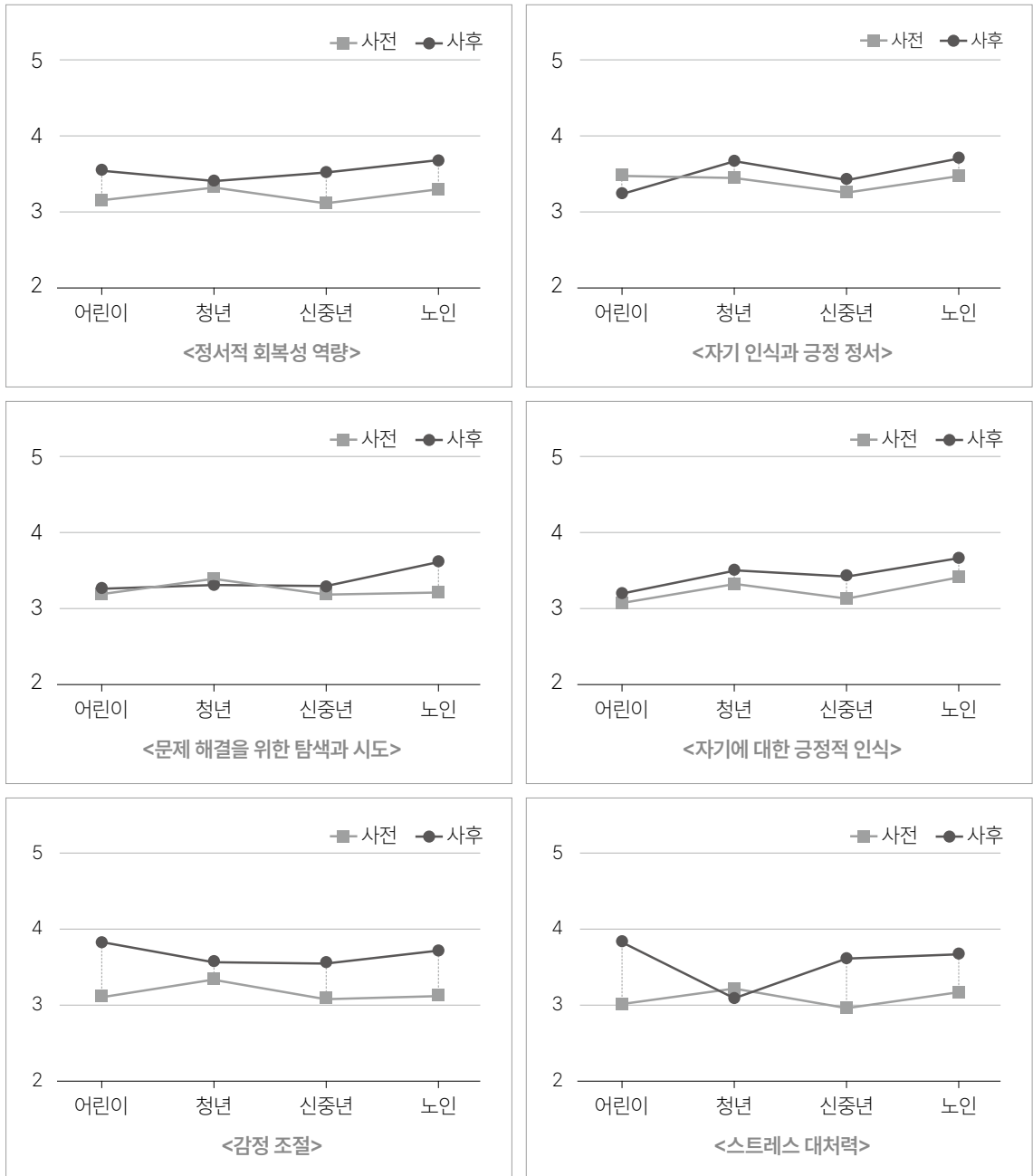
-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Group)는 유의하였음($F=11.530, p<.001$), 사전-사후 변화(Time) 또한 유의하였음($F=85.460, p<.001$). 상호작용 효과(Group×Time) 역시 유의하였음($F=22.330, p<.001$).
 - 평균값을 비교하면 어린이(3.01→3.83), 신중년(2.95→3.60), 노인(3.17→3.67)에서는 사후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청년(3.22→3.09)은 사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음.
 - 그림에서도 어린이, 신중년, 노인 집단은 사후 값이 뚜렷하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어린이 집단의 증가 폭이 매우 크게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음. 반면 청년 집단은 사후 값이 오히려 낮아지는 패턴이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음.

<표 34> 생애주기별 정서적 회복성의 사전-사후 차이 검정

영역	Group	Time		Repeated ANOVA
		사전	사후	
정서적 회복성 역량	노인	3.29±0.49	3.67±0.34	Group[F=7.039, p=0.000] Time[F=69.470, p=0.000] Group*Time[F=6.915, p=0.000]
	신중년	3.10±0.48	3.51±0.34	
	청년	3.32±0.39	3.40±0.21	
	어린이	3.15±0.71	3.53±0.28	
	F	3.259	16.520	
	p	0.022	0.000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노인	3.46±0.66	3.69±0.43	Group[F=7.644, p=0.000] Time[F=3.351, p=0.068] Group*Time[F=2.817, p=0.038]
	신중년	3.24±0.71	3.41±0.56	
	청년	3.44±0.55	3.66±0.43	
	어린이	3.46±0.77	3.23±0.55	
	F	1.783	11.950	
	p	0.150	0.000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노인	3.21±0.64	3.62±0.43	Group[F=4.014, p=0.008] Time[F=6.875, p=0.009] Group*Time[F=8.987, p=0.000]
	신중년	3.18±0.70	3.30±0.49	
	청년	3.40±0.58	3.31±0.44	
	어린이	3.18±0.80	3.27±0.44	
	F	2.284	15.490	
	p	0.079	0.000	

영역	Group	Time		Repeated ANOVA
		사전	사후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노인	3.41±0.62	3.66±0.45	Group[F=11.840, p=0.000] Time[F=16.830, p=0.000] Group*Time[F=0.435, p=0.728]
	신중년	3.13±0.68	3.42±0.53	
	청년	3.32±0.62	3.50±0.49	
	어린이	3.07±0.80	3.21±0.40	
	F	4.205	9.780	
	p	0.006	0.000	
감정 조절	노인	3.13±0.75	3.71±0.43	Group[F=1.774, p=0.151] Time[F=83.710, p=0.000] Group*Time[F=4.326, p=0.005]
	신중년	3.07±0.77	3.54±0.50	
	청년	3.34±0.55	3.57±0.47	
	어린이	3.11±0.79	3.82±0.37	
	F	2.502	4.407	
	p	0.059	0.005	
스트레스 대처력	노인	3.17±0.60	3.67±0.48	Group[F=11.530, p=0.000] Time[F=85.460, p=0.000] Group*Time[F=22.330, p=0.000]
	신중년	2.95±0.61	3.60±0.74	
	청년	3.22±0.46	3.09±0.27	
	어린이	3.01±0.76	3.83±0.46	
	F	3.302	36.510	
	p	0.021	0.000	

<표 35> 생애주기별 정서적 회복성의 사전-사후 변화



1.4. 생애주기에 따른 공동체 정체성 역량 차이

(1) 공동체 정체성

-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Group)는 유의하였음($F=34.330, p<.001$), 사전·사후 변화(Time) 또한 유의하였음($F=43.950, p<.001$). 상호작용 효과(Group×Time) 역시 유의하였음($F=11.200, p<.001$).
 - 평균값을 비교하면 어린이(2.96→3.67), 청년(3.18→3.67), 신중년(2.75→2.86), 노인(3.29→3.33) 모두 사후 점수가 상승하였음.
 - 그림에서도 전 집단에서 사후 평균이 사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년 집단에서 증가 폭이 크게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음.

(2) 지역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

-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Group)는 유의하였음($F=28.760, p<.001$), 사전·사후 변화(Time) 또한 유의하였음($F=75.930, p<.001$). 상호작용 효과(Group×Time) 역시 유의하였음($F=12.940, p<.001$).
 - 평균값을 비교하면 어린이(2.59→3.57), 청년(2.90→3.68), 신중년(2.46→2.73), 노인(3.12→3.27) 모두 사후 점수가 상승하였음.
 - 그림에서도 네 집단 모두 사후 평균이 사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년 집단에서 상승 폭이 크게 시각적으로 드러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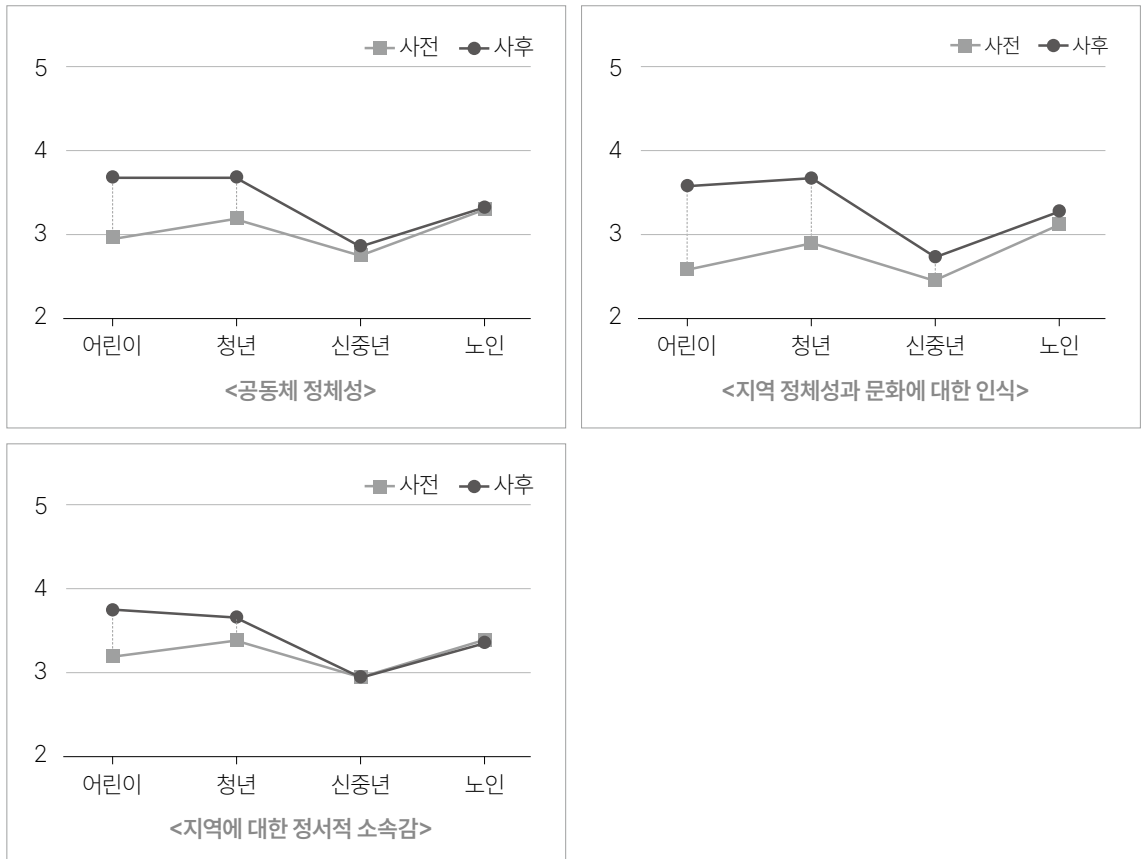
(3)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

-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Group)는 유의하였음($F=25.420, p<.001$), 사전·사후 변화(Time) 또한 유의하였음($F=12.870, p<.001$). 상호작용 효과(Group×Time) 역시 유의하였음($F=6.005, p<.001$).
 - 평균값을 비교하면 어린이(3.20→3.74), 청년(3.38→3.66), 신중년(2.94→2.94), 노인(3.40→3.36) 중 어린이와 청년에서 상승이 나타났고, 신중년은 변화가 없었으며 노인은 소폭 감소하였음.
 - 그림에서도 어린이와 청년집단은 사후 점수가 사전에 비해 높게 나타나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표현되었으나, 신중년 집단은 변화가 거의 없고 노인집단은 약간 감소하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음.

<표 36> 생애주기별 공동체 정체성의 사전-사후 차이 검정

영역	Group	Time		Repeated ANOVA
		사전	사후	
공동체 정체성	노인	3.29±0.62	3.33±0.42	Group[F=34.330, p=0.000] Time[F=43.950, p=0.000] Group*Time[F=11.200, p=0.000]
	신중년	2.75±0.56	2.86±0.73	
	청년	3.18±0.54	3.67±0.43	
	어린이	2.96±0.75	3.67±0.50	
	F	12.680	37.910	
	p	0.000	0.000	
지역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	노인	3.12±0.79	3.27±0.49	Group[F=28.760, p=0.000] Time[F=75.930, p=0.000] Group*Time[F=12.940, p=0.000]
	신중년	2.46±0.70	2.73±0.85	
	청년	2.90±0.67	3.68±0.61	
	어린이	2.59±0.77	3.57±0.68	
	F	13.620	31.490	
	p	0.000	0.000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	노인	3.40±0.63	3.36±0.44	Group[F=25.420, p=0.000] Time[F=12.870, p=0.000] Group*Time[F=6.005, p=0.000]
	신중년	2.94±0.66	2.94±0.80	
	청년	3.38±0.61	3.66±0.48	
	어린이	3.20±0.82	3.74±0.51	
	F	7.971	27.140	
	p	0.000	0.000	

<표 37> 생애주기별 공동체 정체성의 사전-사후 변화



2.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이 생애주기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참여자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효과성 지표의 사전-사후 변화 양상과 인식 차이를 비교·검토하였음. 분석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청년, 중·장년, 노년으로 구분되었으며, 문화적 감수성, 사회적 연결성, 정서적 회복성, 공동체 정체성의 네 가지 사회적 효과성 지표를 중심으로 변화의 정도와 특징을 살펴보았음.
- 분석 결과,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각 생애주기에서 강조되는 효과 영역은 상이하게 나타남. 어린이와 청소년·청년 집단에서는 문화적 감수성과 정서적 회복성이, 중·장년 집단에서는 사회적 연결성과 문화적 감수성이, 노년 집단에서는 정서적 회복성과 공동체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효과로 확인되었음.
-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가 단일한 결과로 수렴되기보다, 생애주기별 삶의 과제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체감되고 축적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전 연령대에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생애주기별로 강조되는 사회적 효과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와 장기적 참여 구조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1) 어린이 집단의 사회적 효과성 변화

- 어린이 집단에서는 문화적 감수성과 정서적 회복성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변화 폭이 관찰되었음. 문화적 감수성 측면에서는 예술적 표현에 대한 흥미, 감각적 반응, 자기 표현에 대한 개방성이 사후 조사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이 어린이에게 예술을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닌 '직접 표현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했음을 의미함.
- 정서적 회복성 영역에서도 감정 표현의 용이성, 정서 안정감, 활동 참여 이후의 긍정적 정서 경험이 강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이는 언어적 설명이 제한적인 어린이에게 있어 예술 활동이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중요한 매개로 작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반면 사회적 연결성과 공동체 정체성 영역에서는 변화가 관찰되었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나타남. 이는 어린이의 사회적 관계 인식이 아직 가족이나 또래 중심에 국한되어 있으며, 지역이나 공동체 차원의 인식으로 확장되기까지는 반복적 경험이 요구됨을 보여줌.

(2) 청소년·청년 집단의 사회적 효과성 변화

- 청소년·청년 집단에서는 정서적 회복성과 문화적 감수성 영역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특히 스트레스 완화, 감정 인식, 자기 이해와 관련된 정서적 회복성 지표에서 사전 대비 사후 점수 상승 폭이 비교적 크게 관찰되었음. 이는 학업, 진로,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는 시기에 문화예술교육이 정서적 안정과 자기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음을 시사함.

- 문화적 감수성 영역에서도 자기 생각과 감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경험, 타인의 표현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태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청년에게 자기 정체성을 탐색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줌.
- 반면 공동체 정체성 영역에서는 다른 지표에 비해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남. 이는 청소년·청년기의 삶의 중심이 학교, 또래 관계, 개인적 진로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다만 사회적 연결성 영역에서는 또래 간 협력 경험, 소통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부 확인되어, 장기적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공동체 인식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함.

(3) 중·장년 집단의 사회적 효과성 변화

- 중·장년 집단에서는 사회적 연결성과 문화적 감수성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변화가 관찰되었음. 특히 타인과의 소통, 협력, 관계 형성에 대한 인식이 사후 조사에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직장·가정 중심의 생활 구조 속에서 사회적 관계가 제한되기 쉬운 중·장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이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했음을 의미함.
- 문화적 감수성 영역에서도 예술 활동에 대한 태도 변화, 표현에 대한 자신감 증가,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학습 경험이자 자기 실현의 장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줌.
- 정서적 회복성 역시 일정 수준의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었으나, 청소년·노년층에 비해 변화 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남. 이는 중·장년층이 이미 일정 수준의 정서 조절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특성과 연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공동체 정체성 영역에서는 지역 활동 참여 의지와 소속감 인식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확인되어, 반복적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장기적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줌.

(4) 노년 집단의 사회적 효과성 변화

- 노년 집단에서는 정서적 회복성과 공동체 정체성 영역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었음. 정서적 회복성 측면에서는 정서 안정, 고립감 완화, 감정 표현의 용이성 등과 관련된 지표에서 사후 점수가 크게 상승하였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노년층에게 심리적 안전감과 정서적 지지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의미함.
- 공동체 정체성 영역에서도 지역 소속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인식, 공동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역할 인식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음을 시사함.
- 사회적 연결성 역시 노년 집단에서 비교적 높은 변화 폭을 보였으며, 이는 집단 활동과 공동 창작 경험이 새로운 관계 형성의 계기로 작동했음을 보여줌. 문화적 감수성 영역에서도 예술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가 나타났으나, 이는 정서적·사회적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조적인 역할로 해석할 수 있음.

VI. 세대별 특성에 따른 지속 의향과 영향 요인

1.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지속 의향
2. 지속 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지속 의향과
영향 요인 분석



VI 세대별 특성에 따른 지속 의향과 영향 요인

1. 대상별 특성에 따른 지속 의향

1.1. 만족도

- 대상자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참여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p>.05$).
- 먼저 대상 집단별로 살펴보면, 청년 집단의 만족도 평균이 3.8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노인 3.79점, 어린이 3.70점, 신중년 3.66점 순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F=0.896$, $p=.443$ 으로, 생애주기 집단에 따라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38>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Mean±SD	t or F	p
대상	어린이	3.70±0.57	0.896	0.443
	청년	3.80±0.51		
	신중년	3.66±0.65		
	노인	3.79±0.50		

1.2. 추천의도

- 대상자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추천의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p>.05$).
- 먼저 대상 집단별로 살펴보면, 노인 집단의 추천의도 평균이 3.8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 3.76점, 청년 3.70점, 신중년 3.69점 순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F=0.563$, $p=.640$ 으로, 생애주기 집단에 따라 추천의도가 유의하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39> 대상자 특성에 따른 추천의도의 차이

		Mean±SD	t or F	p
대상	어린이	3.76±0.68	0.563	0.640
	청년	3.70±0.50		
	신중년	3.69±0.52		
	노인	3.82±0.48		

1.3. 재참여의도

- 대상자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재참여의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먼저 대상 집단별로 살펴보면, 노인 집단의 재참여의도 평균이 3.9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신중년 3.81점, 청년 3.75점, 어린이 3.73점 순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F=1.218$, $p=.303$ 으로, 생애주기 집단에 따라 재참여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40>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재참여의도의 차이

		Mean±SD	t or F	p
대상	어린이	3.73±0.61	1.218	0.303
	청년	3.75±0.63		
	신중년	3.81±0.52		
	노인	3.93±0.47		

2. 지속 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

- 문화예술교육 참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 여기서 문화예술교육의 네 가지 영역(문화적 감수성, 사회적 연결성, 정서적 회복성, 공동체 정체성)과 각 영역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음.
- 먼저 문화예술교육의 네 가지 영역(문화적 감수성, 사회적 연결성, 정서적 회복성, 공동체 정체성)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전체 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음($F=7.505$, $p<.001$).
 - 설명력은 $R^2=0.079$ (Adj- $R^2=0.068$)로, 네 영역이 만족도의 약 7.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값은 1.784로 자기상관 문제는 크지 않은 수준이었음.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는 1.112~1.931 범위로 10 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개별 독립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정서적 회복성($\beta=0.314$, $p<.001$), 문화적 감수성($\beta=0.191$, $p=.006$), 공동체 정체성($\beta=0.167$, $p=.002$)은 모두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음.
 - 반면, 사회적 연결성($\beta=0.017$, $p=.765$)은 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음.

- '문화적 감수성' 영역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모형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F=1.444$, $p=.208$, $R^2=0.020$, $Adj-R^2=0.006$, $Durbin-Watson=1.777$). 모형에서 VIF는 1.176~1.73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임.
 - 다만 하위요인 중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는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beta=0.157$, $p=.024$).
 - 반면, '문화예술 참여 태도'($p=.276$),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p=.577$),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p=.759$),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p=.143$)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음.

- '사회적 연결성' 영역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모형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F=1.145$, $p=.331$, $R^2=0.010$, $Adj-R^2=0.001$, $Durbin-Watson=1.749$). VIF 값은 2.412~3.179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음.
 - 하위요인인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p=.834$), '소통과 경청의 태도'($p=.692$),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p=.378$) 모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서적 회복성' 영역의 하위요인을 투입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F=3.520$, $p=.004$, $R^2=0.048$, $Adj-R^2=0.034$, $Durbin-Watson=1.806$). VIF는 1.091~2.132 범위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음.
 - 하위요인 가운데 '스트레스 대처력'이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음($\beta=0.143$, $p=.009$).
 -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p=.545$),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p=.381$),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p=.786$)은 유의하지 않았고, '감정 조절'은 $p=.089$ 로 유의수준 .05 기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공동체 정체성' 영역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모형은 $F=4.651$, $p=.010$ 으로 모형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2=0.026$ ($Adj-R^2=0.020$), $Durbin-Watson=1.731$ 로 나타났음. VIF는 모두 1.580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음.
 - 그러나 개별 독립변수 수준에서는 '지역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p=.246$),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p=.125$) 모두 만족도에 대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음.

<표 41>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

영역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전체	(상수)	2.302	0.401		5.741	0.000	
	문화적 감수성	0.319	0.115	0.191	2.770	0.006	1.817
	사회적 연결성	0.024	0.079	0.017	0.299	0.765	1.206
	정서적 회복성	0.564	0.128	0.314	4.411	0.000	1.931
	공동체 정체성	0.173	0.056	0.167	3.099	0.002	1.112
	F=7.505, p=0.000, R ² =0.079, Adj-R ² =0.068, Durbin-Watson=1.784						
문화적 감수성	(상수)	3.488	0.321		10.870	0.000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0.194	0.086	0.157	2.263	0.024	1.732
	문화예술 참여 태도	0.087	0.079	0.070	1.090	0.276	1.496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0.044	0.078	0.032	0.558	0.577	1.176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0.021	0.069	0.021	0.308	0.759	1.675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	0.104	0.071	0.098	1.468	0.143	1.611
F=1.444, p=0.208, R ² =0.020, Adj-R ² =0.006, Durbin-Watson=1.777							
사회적 연결성	(상수)	3.289	0.254		12.956	0.000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	0.022	0.107	0.017	0.210	0.834	2.412
	소통과 경청의 태도	0.048	0.121	0.037	0.397	0.692	3.179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	0.098	0.111	0.079	0.882	0.378	2.831
F=1.145, p=0.331, R ² =0.010, Adj-R ² =0.001, Durbin-Watson=1.749							
정서적 회복성	(상수)	2.525	0.327		7.720	0.000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0.049	0.082	0.041	0.606	0.545	1.701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0.083	0.094	0.067	0.877	0.381	2.132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0.023	0.083	0.019	0.271	0.786	1.805
	감정 조절	0.128	0.075	0.101	1.704	0.089	1.286
	스트레스 대처력	0.150	0.057	0.143	2.636	0.009	1.091
F=3.520, p=0.004, R ² =0.048, Adj-R ² =0.034, Durbin-Watson=1.806							
공동체 정체성	(상수)	3.150	0.187		16.855	0.000	
	지역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	0.065	0.056	0.077	1.162	0.246	1.580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	0.101	0.065	0.101	1.539	0.125	1.580
F=4.651, p=0.010, R ² =0.026, Adj-R ² =0.020, Durbin-Watson=1.731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지속 의향과 영향 요인 분석

- 본 절에서는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 참여 경험·활동 기간·참여 경로에 따른 효과성 차이와 지속 의향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생애주기별 지속 의향의 형성 양상과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함. 특히 본 분석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이 어떻게 만족도, 재참여 의도, 추천 의도로 연결되는지를 세대별로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둠.
- 다중회귀 분석 결과, 지속 의향(만족도·재참여·추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 수준으로 나타남. 문화적 감수성, 사회적 연결성, 정서적 회복성, 공동체 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전반적인 지속 의향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됨.
- 전 생애주기 집단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속 의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다만 지속 의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는가에는 생애주기별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됨.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가 연령대별 삶의 과제와 결합되어 상이한 형태로 인식·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함.
 - 어린이·청소년 집단에서는 문화예술교육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보호자나 주변을 통한 추천 의도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흥미롭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될 경우, 주변과 공유하고 싶은 활동으로 받아들여지는 특성을 반영함.
 - 중·장년 집단에서는 재참여 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예술교육을 일회성 체험이 아닌 반복 가능한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연결됨.
 - 노년 집단의 경우 만족도, 재참여 의도, 추천 의도가 모두 안정적으로 높게 나타나, 문화예술교육이 삶의 질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문화적 감수성은 재참여 의도와 추천 의도 모두에 가장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술적 경험의 질과 해석 가능성이 참여 지속의 핵심 조건임을 보여줌. 정서적 회복성은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었고, 사회적 연결성과 공동체 정체성은 추천 의도와 재참여 의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여줌.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속 의향은 단일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생애주기, 참여 경험, 활동 기간, 참여 경로, 그리고 사회적 효과성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구조를 지님. 특히 사회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체감할수록 만족·재참여·추천 의도가 함께 강화된다는 점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단기 성과 중심 평가를 넘어 경험의 질과 누적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함.
- 이는 2022년 지역 이관 이후 부산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생애주기별 특성과 참여 맥락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속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즉 어린이·청소년에게는 경험의 긍정성과 확산을, 중·장년과 노년층에게는 반복 참여와 관계 지속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는 정책 설계가 요구됨.

(1) 어린이·청소년 집단

- 어린이 집단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참여 이후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추천 의도 역시 상대적으로 강하게 형성됨.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즐거움과 흥미 중심의 긍정적 경험으로 인식될 경우, 보호자·또래 등 주변과 공유하고 싶은 활동으로 받아들여지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청소년·청년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만족도와 추천 의도가 주요 지속 의향 지표로 나타났으나, 어린이 집단에 비해 정서적 안정과 자기 인식 변화가 지속 의향 형성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향이 확인됨. 특히 정서적 회복성과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와 추천 의도가 함께 상승하는 양상이 관찰됨. 다만 이들 집단에서는 재참여 의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변동 폭이 큰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학업·진로·생활 여건 변화 등 생애주기적 특성이 반복 참여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중·장년 집단

- 중·장년 집단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일회성 체험이 아닌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음. 설문조사 결과, 이 집단은 만족도와 추천 의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재참여 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됨.
- 참여 경험 및 활동 기간 분석 결과, 중·장년 집단에서 중·장기 참여자일수록 사회적 연결성과 정서적 회복성 지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재참여 의도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음. 다시 말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안정 경험이,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로 작동하고 있음.
- 또한 이 집단에서는 정보 기반 참여 경로(홍보물, 기관 안내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일상 속 자기 돌봄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선택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함.

(3) 노년 집단

- 노년 집단의 경우, 만족도·재참여 의도·추천 의도가 모두 안정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노년층에게 있어 단순한 문화 활동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정서적 회복성과 공동체 정체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참여자일수록 재참여 의도와 추천 의도가 함께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적 고립 완화와 소속감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함. 노년 집단에서는 반복 참여를 통해 형성된 관계 경험이 프로그램 지속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VII. AHP 및 설문조사 종합 해석 및 시사점

1. AHP 및 설문조사 종합 해석
2. 종합 해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VII AHP 및 설문조사 종합 해석 및 시사점

1. AHP 및 설문조사 종합 해석

- 본 연구는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을 다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설문조사 기반 사전·사후 변화 분석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반 상대적 중요도 인식조사를 병행하였음. 설문조사는 문화예술교육 참여 전·후 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이 어떠한 방향과 정도로 변화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AHP 조사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구성하는 주요 지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와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이러한 이중적 분석 설계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단일 차원에서 해석하는 한계를 보완함. 즉, 설문조사는 '실제 변화의 크기'를, AHP 조사는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효과 구조'를 각각 포착하며, 두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체감 효과와 정책적 판단 간의 관계, 단기 성과와 중·장기 가치 간의 긴장과 연계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1.1. AHP 결과 해석

- AHP 분석 결과,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는 단일 지표가 아닌 상호 연관된 복합적 구조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자 및 전문가 집단은 문화적 감수성, 정서적 회복성, 사회적 연결성, 공동체 정체성을 위계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였음.
- 특히 문화적 감수성은 다른 사회적 효과가 형성되기 위한 기초 조건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였음. 이는 예술 경험의 질과 이해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정서적 안정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 역시 지속적으로 확장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정서적 회복성은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었으며, 사회적 연결성과 공동체 정체성은 개인적 변화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지표로 평가됨.

1.2. 설문조사 결과 해석

- 설문조사 사전·사후 분석 결과,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는 전반적으로 문화적 감수성, 사회적 연결성, 정서적 회복성, 공동체 정체성의 네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단순한 여가 활동이나 만족도 제고를 넘어, 참여자의 인식 구조와 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개입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함.
- 특히 문화적 감수성 영역에서는 예술에 대한 이해와 수용 태도, 자기 표현에 대한 자신감,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향상되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예술 경험의 질적 확장을 통해 참여자의 문화적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사회적 연결성 영역에서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소통 태도, 협력 경험과 관련된 항목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집단 기반 문화예술교육의 상호작용적 특성이 관계 인식의 변화를 유도했음을 의미함.

- 정서적 회복성 영역에서는 스트레스 완화, 감정 조절, 자기 인식 및 심리적 안정과 관련된 항목에서 긍정적 변화가 두드러졌음. 특히 청소년·청년층과 노년층에서 이러한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생애주기별로 상이한 정서적 과제에 대응하며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함. 공동체 정체성 영역에서는 변화 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하였으나, 지역에 대한 관심, 공동 활동 참여 의지, 소속감 인식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되었음.
- 설문조사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발현됨을 명확히 보여줌. 어린이 집단에서는 창의적 사고, 자기 표현, 감정 인식과 같은 전인적 발달과 관련된 영역에서 폭넓은 변화가 관찰되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발달 초기 단계에서 감각적·정서적 경험을 확장하는 학습 환경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함.
- 청소년·청년 집단의 경우, 정서적 안정, 자아 인식, 감정 표현과 관련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변화가 나타남. 이는 진로 탐색과 정체성 형성이라는 발달 과업과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중·장년층에서는 사회적 관계 형성, 소통과 배려, 일상에서의 정서적 환기와 관련된 영역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노년층에서는 정서적 안정과 심리사회적 회복, 문화적 감수성 향상이 특히 크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이 단일한 효과를 생산하는 정책이 아니라, 참여자의 생애주기와 삶의 조건에 따라 다층적·맥락적으로 작동하는 공공정책임을 시사함.

1.3. 설문조사와 AHP 결과의 교차 해석

- 주목할 점은 설문조사에서 관찰된 변화의 크기와 AHP 조사에서 도출된 중요도 인식의 순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임. 예컨대 문화적 감수성과 정서적 회복성은 설문조사에서 비교적 큰 변화가 확인되었으나, 공동체 정체성은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 반면 AHP 조사에서는 공동체 정체성이 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적 목표로서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는 경향이 두드러졌음.
- 이러한 불일치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즉, 단기간에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과 정책적으로 중시되어야 할 영역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를 넘어 중·장기적 가치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1) 문화적 감수성

- AHP 조사에서 문화적 감수성은 다른 사회적 효과가 형성되기 위한 기초 조건으로 인식됨. 즉, 문화적 감수성은 단독으로 완결되는 효과가 아니라, 이후 정서적 회복성과 사회적 연결성으로 확장되는 출발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는 설문조사에서 문화적 감수성 관련 항목의 변화가 다른 영역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경향과도 부합함.

- 설문조사 결과에서 문화적 감수성과 관련된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사전-사후 향상을 보임. 이는 문화예술 교육이 참여자의 예술 이해, 수용 태도, 표현에 대한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해 줌. 특히 다중 회귀 분석 결과, 문화적 감수성의 상승은 재참여 의도와 추천 의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질과 예술적 경험의 깊이가 참여 지속성과 직결됨을 시사함.

(2) 사회적 연결성

- AHP 조사에서는 사회적 연결성이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중 정책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남. 이는 사회적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이 관계 형성의 공공적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회적 연결성과 관련된 설문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이 참여자 간 관계 형성과 소통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했음을 보여줌. 특히 소통과 협력 중심의 체험형·창작형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관계와 감정 조절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프로그램 유형과 운영 방식이 사회적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함.

(3) 정서적 회복성

- AHP 분석에서 정서적 회복성은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또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정서적 안정 영역은 만족도와 재참여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됨. 이는 정서적 회복성이 단기 체험을 장기 참여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매개 요인임을 시사함.
- 정서적 회복성과 관련된 설문 항목에서는 스트레스 완화, 감정 조절, 자기 이해와 관련된 영역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었음. 특히 청소년·청년층과 노년층에서 정서적 안정과 감정 조절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발달 단계별 정서적 과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줌.

(4) 공동체 정체성

- AHP 조사에서는 공동체 정체성이 문화예술교육의 장기적 목표로 인식되는 경향이 두드러짐. 이는 공동체 정체성이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 정책 효과로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공동체 정체성과 관련된 설문 항목에서는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났으나,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와 공동 활동 참여 의지 등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되었음. 이는 공동체 정체성이 단기간에 형성되기보다는 반복적 참여와 경험의 축적을 통해 형성되는 장기적 효과임을 반영하고 있음. AHP 결과와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공동체 정체성은 변화의 크기보다는 정책적 방향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임을 알 수 있음.

1.4. 지속 의향 분석과 사회적 효과성의 연결

-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지속 의향 분석 결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 재참여 의도, 추천 의도는 생애주기, 성별, 참여 경험, 활동 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은 사회적 효과성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 수준으로 나타남. 문화적 감수성, 정서적 회복성, 사회적 연결성, 공동체 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지속 의향 역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문화적 감수성은 재참여 의도와 추천 의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적 회복성은 전반적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됨. 사회적 연결성과 공동체 정체성은 추천 의도와 재참여 의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가 단순한 부가적 성과가 아니라, 지속 참여를 결정짓는 핵심 조건임을 의미함.

2. 종합 해석을 통해 본 정책적 시사점

▪ 문화예술교육 정책 인식의 전환 필요성

- 본 연구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이 단순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이나 개별 프로그램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참여자의 인식·정서·관계·공동체 인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효과를 동반한 공공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이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 집합'이나 '사업 단위 성과 관리' 중심으로 접근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정책으로 재인식할 필요성을 시사함.
- 특히 2022년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지역 이양 이후, 부산은 중앙 정책의 집행 단위를 넘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독자적 정책 설계 주체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어떠한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함.

▪ 사회적 효과성 지표 기반 정책 설계의 필요성

- 설문조사와 AHP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문화적 감수성, 사회적 연결성, 정서적 회복성, 공동체 정체성이라는 네 가지 사회적 효과성 지표를 중심으로 다차원적으로 나타남. 이들 지표는 각각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면서도, 정책적 설계와 평가 과정에서는 상호 연계된 효과 구조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향후 부산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설문조사에서 변화가 뚜렷하게 확인된 영역을 중심으로 참여자 체감 효과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HP 조사에서 중요도가 높게 인식된 사회적 연결성과 공동체 정체성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사회 관계 회복, 고립 완화, 공동체 지속가능성 강화라는 공공적 가치로 확장되는 기반이 될 것임.
- 이에 따라 향후 부산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단일 성과 지표나 만족도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적 효과성 지표를 정책 목표 설정과 사업 설계의 기본 틀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성과를 보다 설명 가능하고 책임성 있게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문화정책을 넘어 사회정책적 논의로 확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임.

▪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전략의 고도화**

-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동일한 정책 목표와 프로그램 구조를 모든 연령층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함.
- 어린이·청소년 대상 정책에서는 문화적 감수성과 자기 표현, 정서 인식과 같은 기초적 경험의 질을 강화하는 방향이 중요함. 이 시기의 문화예술교육은 성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 접근을 통해 감각적 경험과 표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청년·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정서적 환기와 사회적 관계 회복, 일상 속 문화 참여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정책 설계가 요구됨. 특히 중·장년층에서 사회적 연결성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점은 문화예술교육이 고립 예방과 관계 회복을 위한 공공적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노년층 정책에서는 정서적 회복성과 공동체 소속감 강화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교육이 노년기의 삶의 질과 심리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확인된 만큼, 향후 정책에서는 복지·돌봄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됨.

▪ **참여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프로그램 설계**

- 분석 결과, 성별, 참여 경험, 활동 기간, 사전 역량 수준 등 참여자 특성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와 지속 의향 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단순히 참여자 수 확대에 초점을 두기보다, 참여자의 특성과 경험 수준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참여 기간이 길수록 사전 역량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사전 역량이 낮은 참여자일수록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역량 취약군에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초기 개입과 지속 참여를 연계하는 정책 전략이 유효함을 의미함.
- 따라서 향후 정책에서는 단기 체험형 프로그램과 장기 참여형 프로그램을 명확히 구분하고, 참여자의 경험 수준에 따라 단계별·누적형 교육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지속 의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접근**

- 지속 의향 분석 결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 재참여 의도, 추천 의도는 사회적 효과성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남. 이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단순한 홍보나 참여 유도 전략이 아니라, 참여자가 체감하는 사회적 효과의 질에 달려 있음을 시사함.
- 특히 문화적 감수성은 재참여 의도와 추천 의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교육적·예술적 경험의 깊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 참여 구조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함.
- 정서적 회복성은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났으며, 사회적 연결성과 공동체 정체성은 추천 의도와 재참여 의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는 단기 만족도 제고를 넘어, 사회적 효과가 축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지속 의향 제고의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함.

▪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구조적 전환**

- 본 연구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과 공동체 인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개별 프로그램 단위에서 분절적으로 나타날 경우, 지역 차원의 사회적 효과로 충분히 축적되기 어렵다는 한계 역시 확인됨.

- 이에 따라 향후 부산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단기 공모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특정 지역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반복·심화되는 지역 기반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을 일회성 경험이 아니라, 지역의 기억과 관계가 축적되는 장기적 과정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정책 평가 체계의 고도화와 데이터 기반 정책 구축**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정량적 데이터로 분석함으로써, 정책 평가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함. 향후 정책에서는 만족도 조사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적 효과성 지표를 활용한 중·장기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반복 조사, 패널 연구, 지역 간 비교 연구 등 데이터 축적 전략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단기 사업 성과를 넘어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공공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부산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향후 사회적 효과성 중심 정책, 생애주기별 맞춤 전략, 지속 참여 구조 강화, 지역 기반 장기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함.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문화 향유를 넘어, 지역의 삶의 질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핵심 공공정책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임.

VIII. FGI 조사 결과 분석과 시사점

1. FGI조사 결과 분석

2. FGI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VIII FGI 조사 결과 분석과 시사점

1. FGI조사 결과 분석

1.1. 조사 개요

- 본 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화예술교육의 정량적 성과를 심층적으로 해석·보완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를 분석한 것임.
- FGI는 설문조사만으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가 형성되는 맥락과 과정, 그리고 정책 변화에 대한 현장 인식과 구조적 한계를 정성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조사 대상은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운영·실행·정책을 아우르는 세 개 집단, 즉 문화예술교육 단체 관계자, 예술강사, 정책관계자로 구성하였음.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다층적 관점과 교차 인식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FGI는 2025년 11월 부산문화재단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인식, 생애주기별 효과, 2022년 지역이양 이후 변화, 예술강사의 역할과 역량, 향후 정책 과제 등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이 이루어졌음.

1.2.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식

- FGI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을 단순한 예술활동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범주를 넘어, 개인과 지역사회의 회복을 촉진하는 사회적 장치로 인식하고 있었음.
- 논의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도출된 핵심 키워드는 주체성 회복, 관계 회복, 정서적 치유, 공동체 재생이었음.
-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예술강사들은 예술교육이 참여자의 자기표현을 촉진하고, 고립된 개인을 다시 사회적 관계망 속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하였음. 특히 참여자들이 예술 활동 과정에서 수동적인 위치를 벗어나,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문화적 주체로 변화하는 경험을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 정책관계자들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문화복지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인식하며, 노년층·장애인·이주민 등 문화 취약계층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 참여 확대, 관계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개인 차원의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의 정서적 안전망과 사회적 회복력 구축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줌.

1.3.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효과 인식

- FGI 분석 결과,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연령대에 따라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자기표현-공감-회복'이라는 공통된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기에는 감정 표현력과 협력심, 사회성 발달이 핵심 효과로 인식되었으며, 청소년·청년기에는 스트레스 완화와 자기정체성 탐색, 진로 인식 확대가 중요한 변화로 제시되었음. 신중년기에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재구성과 자기실현, 인생 재설계의 계기로서 문화예술교육의 의미가 강조되었고, 노년기에는 고립감 완화와 정서적 안정, 소속감 회복이 주요 효과로 인식되었음.
- 특히 예술강사들은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나는 참여자의 변화가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삶의 태도와 일상적 관계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진술하였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생애에 걸쳐 정서적 회복과 관계적 건강성이라는 공통된 기능을 수행함을 시사함.

1.4. 2022년 지역이양 이후의 변화 인식

- 2022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역이양 이후, FGI 참여자들은 형식적인 행정 이양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지역 주도성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보였음.
- 긍정적인 변화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의 가능성이 확대되었고, 기초 단위 및 민간 거점과의 협력 모델이 일부 실험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앙 또는 광역 단위에서 설정한 공모 틀 안에서 사업이 기획·운영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음.
- 특히 지역 현안에 기반한 자율적 기획이 어려운 예산 결정권의 제한, 그리고 참여자 수와 만족도 등 정량 지표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성과평가 체계의 경직성이 주요 구조적 문제로 제기됨. 이에 따라 FGI 참여자들은 진정한 지역주도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이양을 넘어, 문화 의제 설정권과 소규모 기획예산 결정권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1.5. 예술강사와 현장 전문가의 역할 인식

- 예술강사와 문화예술교육 단체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단순한 기능 전달자가 아닌, 참여자의 변화를 촉진하고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FGI에서는 공감과 소통 능력, 관계 중심의 리더십, 지역 이슈를 예술적으로 해석하는 기획력, 그리고 결과를 사회적 가치로 환류하는 기록·아카이빙 역량이 핵심 역량으로 도출되었음.

- 반면, 예술강사들은 낮은 강사비와 반복되는 행정·정산 부담, 단년도 사업 구조로 인한 불안정성을 주요 한계로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가 전문성의 축적과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을 제한한다고 진술하였음. 또한 재단 차원의 상시 연수 체계 구축, 멘토링, 강사 간 교류 플랫폼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1.6. 타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정책 경험

- 인천과 울산 등 타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FGI에서는 포용성과 접근성이 핵심 정책 키워드로 도출되었음.
- 인천은 기초재단이 없는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거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과 장애인 예술강사 양성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사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단순한 프로그램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실천 모델로 해석됨.

2. FGI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 **사회적 회복장치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역할 재정의**
 - FGI 분석 결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현장의 인식은 단순한 예술활동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범주를 넘어, 개인과 지역사회의 회복을 촉진하는 사회적 장치로 확장되어 있음.
 - 이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지역사회가 직면한 정서적·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공공정책 수단으로 재정의할 필요성을 시사함. 특히 고립, 단절, 불안이 일상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은 관계와 감정을 매개로 개인과 사회를 다시 연결하는 회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문화정책과 복지·돌봄·지역정책 간의 연계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개별 사업 성과를 넘어, 사회적 회복과 공동체 재생이라는 보다 확장된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
- **생애주기 기반 정책 설계의 고도화 필요성**
 - FGI 결과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가 생애주기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임. 아동기에는 감정 표현과 사회성 발달, 청소년·청년기에는 정서적 안정과 자기정체성 탐색, 신중년기에는 관계 회복과 자기 실현, 노년기에는 고립 완화와 정서적 안정, 소속감 회복이 핵심 효과로 인식되었음.
 - 향후 정책에서는 생애주기별 삶의 과제와 사회적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함. 특히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나는 참여자의 변화가 일회성 체험을 넘어 삶의 태도와 관계 방식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FGI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이 단기 사업이 아닌 지속적 개입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함.

▪ **실질적 지역주도성 확보를 위한 구조 전환**

- 2022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역이양 이후 변화에 대한 FGI 논의에서는, 행정적 이양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지역 주도성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나타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 가능성이 확대되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여전히 중앙 또는 광역 단위에서 설정한 공모 구조와 정량 성과 중심 평가 체계가 지역의 자율적 기획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특히 예산 결정권의 제한과 성과 지표의 경직성은 지역 현안에 기반한 장기적·실험적 기획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되었음. 이에 따라 FGI 참여자들은 단순한 행정 이양을 넘어, 문화 의제 설정권과 소규모 기획예산에 대한 지역 분산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지역주도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음.

▪ **성과평가 체계의 전환**

- FGI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참여자 수, 만족도 등 정량 지표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가 문화예술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현장에서는 관계 변화, 정서적 회복, 공동체 인식과 같은 질적 성과가 중요하게 체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정책 성과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공유되었음.
- 이는 향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사회적 효과성 지표를 중심으로 한 평가 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함.
-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정량 지표와 함께 질적 평가를 병행하는 복합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변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설계와 조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술강사와 현장 전문가의 역할 재정립 및 지원 강화**

- FGI 분석에서 예술강사와 문화예술교육 단체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단순한 기능 전달자가 아닌, 참여자의 변화를 촉진하고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그러나 동시에 단년도 사업 구조로 인한 불안정성이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됨. 또한 상시 연수 체계, 멘토링, 강사 간 네트워크 구축은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함.

▪ **타 지역 사례가 제시하는 정책 확장 가능성**

- 타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계자 FGI에서 도출된 사례들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포용성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줌. 민간 거점 중심 모델,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장애인 예술강사 양성 등은 문화예술교육이 특정 공간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생활권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사례는 부산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지역 특성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 다양한 실험과 확장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역 간 정책 학습과 교류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함.

▪ **장기적 공공정책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은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회복과 문화적 시민 형성을 위한 장기적 공공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남.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도성 강화, 사회적 효과 중심 평가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설계, 현장 인력의 안정적 지원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IX. 부산 문화예술 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제언

1.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제고와 확산
2. 부산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강화를 위한 실행 전략



IX 부산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제언

1.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제고와 확산

1.1. 지역 이양 이후의 과제

-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최근 지원 목적을 단순한 문화향유 확대에서 확장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한 관계 맺음 강화, 가족·세대 간의 공감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부산시 사회정책인 '15분도시' 정책과 연계하여 생활권 단위 지역 거점의 활용을 강조하는 등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지원하고 있음. 본 연구를 통해 2025년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서 <문화적 감수성>, <사회적 연결성>, <정서적 회복성>, <공동체 정체성>과 같은 능력이 강화되는 사회적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음.
- 이와 함께, 현장에서도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고되고 있음.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으로 아동의 정서적 표현을 높이고, 부모-자녀 간 유대감이 강화되는 효과가 확인된 사례,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개인의 자존감의 향상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회복과 공동체적 유대감 형성으로 이어지는 사례 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 "... 아이가 미술이나 무용 등 내면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치유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아이와 유대감이 깊어져요. 집에서는 함께 뭘 만들어보는 것을 잘 안하게 되고 학원에 보내면 아이만 보내지, 엄마가 따라가지 않잖아요. 부산문화재단에서 가족프로그램을 가끔 해주니까 캠프 체험도 하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고 프로그램 마지막에 전시를 하니 아이들이 '내 작품이 전시된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해해요. ..." (이미연 외, 2020)
 - "... 중구 특히 영주동은 대표적인 노인인구 밀집지역이며, 노후화된 지역으로 독거노인, 고독사 등이 지역의 문제점으로 여겨졌습니다.(중략) ... 주민들이 함께 예술활동에 참여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단절되었던 이웃 간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과 협력의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만들고,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은 '나'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 (FGI - 조용한 수다 김석휘 대표)
- 이처럼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교육은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의 창의적 역량 강화와 통합적 가치 실현 등을 시민들이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생활권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음.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사회의 공동체적 관계망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활력을 높이는 기반으로 기능함을 의미함. 나아가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예술교육은 '15분 도시'와 같은 주요 사회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될 때,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단순한 여가·취미 활동 지원을 넘어, 지역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실질적 공공정책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함.
-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지역 이양 이후, 지역(지자체) 주도의 정책 전개와 예산의 운영은 기대와 달리 실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미 중앙정부의 2차 종합계획 수립 당시 1차 종합계획 이행에서의 한계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전히 공급자(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전달 구조가 공고하고, 지역 내에서 자체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할 동력과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임.

- 특히 지역 차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예산편성은 국비 매칭이 중단된 이후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음. 17개 시도에서 지방비 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0% 감액되었고, 특히 지역센터 지원 예산은 40%나 줄어들었음. 이러한 지방 이양의 공백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확산 중임(정종은, 2025).
 - 2024년부터 광역센터 운영 및 기본사업에 대한 국비·지방비 매칭예산(80억)이 전체 삭감됨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광역센터의 인건비 편성 및 다양한 기반사업(연구·조사, 홍보·아카이빙, 연수·워크숍, 국제 교류 등)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지역거점의 역할에 제약이 되고 있음. 특히 지방이양사업(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사업) 예산이 '26년까지 보전되는 원칙임에도, 지자체의 고유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유아문화예술교육사업이나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예산이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지자체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예산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FGI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노준석본부장).
- 지역 이양은 지역이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함에 따라 능동적인 사업 전개와 지자체의 정책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반면 정치적 판단이나 지역 여건을 이유로 예산이 축소되거나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함께 존재함.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역 주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성과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요구됨. 특히 지자체의 문화예술교육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함.
- 최근 일반적인 문화예술지원 사업과 문화예술교육 사업 간의 경계가 점차 흐릿해지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과제임. 생활문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법정 문화도시와 같은 지역 특화 사업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고유한 범위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와 함께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이원화된 구조적 문제나 평생학습·복지기관·특화 세대별 지원 기관(중장년, 청년 등)에서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부산문화재단의 <생활문화 클라쓰>, <사회적 예술치유-일상을 담다> 등의 사업들은 그 목적과 내용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업과 뚜렷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음.
- 각각의 영역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문제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차별성을 강조하여 더 세분화한 방식의 운영보다는 분야 간의 유연한 협력과 연계가 필요함. 특히 광역·기초, 사회·학교 등을 통합한 문화예술교육과 생활권 단위에서의 유관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는 더욱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2. 지역사회 속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강화 방안

-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 이양 이후의 문화예술교육은 기존 사업의 유지나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변화된 지역 환경과 정책 조건을 반영한 방향 설정이라는 과제에 직면함.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문화정책 영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주요한 사회정책과 연결되어 시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공공정책 수단으로서 위상을 정립해야 함.

- 문화예술교육이 시민의 삶과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예술 고유의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라는 목적이 병행되어야 함.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시민의 문화적 권리와 역량의 강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역 현안과 공동체에 기반한 사업의 기획과 운영이 필요함. 또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단기적·즉자적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효과성 높여가는 정책적 관점이 요구됨.
-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정립과 정책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함. 첫째, 부산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응하는 사회정책과의 연계. 둘째, K-컬처 확산 속 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고유성을 발전시키는 방향. 셋째, 지역사회와 학교, 생활권 단위 유관 주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합형 문화예술교육의 실현임.

1.2.1. 사회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연계를 통한 지역 현안의 대응

- 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사람들이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문제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문화적 실천의 장으로 작동하고 있음. 본 연구 결과에서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협력과 소통의 경험, 관계 형성에 대한 인식 등 사회적 연결성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음. 또한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 공동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 강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식 형성 등 공동체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됨.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재인식하게 하고, 공동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을 시민들이 지역 현안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공공재로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쓰레기장이었던 공간을 직접 가꾸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마을의 유희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시킨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존감과 마을에 대한 소속감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FGI - 모이다 모상미 대표)
 - “아이들은 익숙한 일상의 쓰레기나 바다 환경을 예술 재료나 주제로 다루면서 높은 흥미와 자발적인 참여를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술 기술 습득을 넘어, 예술을 통한 사회 참여라는 인식을 체감하게 합니다.” (FGI - 모이다 모상미 대표)
- 최근 부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보편적인 사회문제들과 함께,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청년 인구 유출, 지역 소멸 등의 구조적 현안에 직면해 있음. 산복도로나 원도심 등 쇠퇴지역에서는 물리적 환경 문제와 함께 고립, 세대 간 단절 등의 복합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음. 또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다문화 포용의 문제, 상권 침체와 빈점포, 빈집·폐교·폐산업단지과 같은 도심 내 유희공간 발생도 심각해지고 있음. 물론 이러한 문제에 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해왔으나, 대체로 지원사업 위주의 다소 한정된 범위였음. 또, 사회정책(부처) 간 연계 부족과 실질적인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조로는 확장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오늘날 복합적인 사회 이슈는 단일 분야의 전문성으로만 접근이 어려움. 예컨대 지역소멸 위기의 대응은 문화예술, 산업, 일자리, 주거,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임. 기후위기인구구조 변화기술 발

전·사회갈등 등 동시대 현안에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음(김혁진, 2023, 김민경, 2024).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의 일반적인 사회정책과의 융합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새로운 대응방식을 제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생태환경 교육에서 단순 지식 전달이나 교훈의 방식이 아닌, 시민이 직접 예술적으로 체험하고 감각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더 깊은 공감이 가능함. 도시·복지·환경·교육·여가·의료 등 다양한 사회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연계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들에 능동적인 개입과 해결을 촉진할 수 있음.

- 따라서 부산의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은 개별 지원사업 차원을 넘어 도시재생, 생애주기별 복지사업, 다문화 정책 등 부산시의 주요 사회정책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음. 정책 간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문제에 대한 보조적 대응이 아니라, 예방적·회복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정책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에서 기관-부서 간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함. 문화정책에 한정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인구 정책, 돌봄 체계, 세대 통합,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의 핵심 사회정책과 융합되는 정책 모델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질적인 공공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예산 구조와 협력적 거버넌스, 장·단기 효과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병행되어야 함.

1.2.2 K-컬처 시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 고유성의 발전

- 글로컬(Glocal)의 개념에서 잘 드러나듯, K-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로컬리티)에 대한 관심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 이를 기반으로 한 창의성은 K-컬처의 저변을 확장하고 지속적인 혁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임. 특히 문화적 다양성과 고유성이 공존할 때, 지역문화는 세계적 문화흐름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과 현재를 연결하고, 고유한 문화적 자산과 정체성을 재해석·계승하려는 시도가 여러 지역에서 본격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의 생존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과제임. 그동안 추진되어 온 문화적 도시재생,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대표적인 정책들임.
- 문화예술교육은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의 토양을 형성하는 핵심 수단임. 시민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재발견하고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음. 본 연구 결과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창의적 사고와 탐색,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와 같이 문화적 감수성의 역량을 높이는데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음. 특히 이러한 변화는 어린이와 청소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미래 세대의 문화적 역량 형성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함.
- 문화적 감수성이 형성된 개인은 타인의 표현과 차이를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수용하며,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며, 나아가 개인적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며 공동의 의미 형성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이러한 과정은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은 미래 세대와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과 가능성을 연결함으로써 지역의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우리 단체가 운영한 「하단포구, 문화路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한 지역 이해를 넘어, 지역을 바라보는 태도가 '지식'에서 '관심', 더 나아가 '효능감'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참여자들은 포구의 기억과 정체화를 다시 살피고, 마을 곳곳의 장소를 새롭게 인식하며 지역과 다시 관계 맺는 경험을 했습니다"(FGI-숲 탁경아 대표)

- 최근 부산의 미래를 전망한 전략연구에서는 지역 자원 보존을 기반으로 한 문화재생 융·복합 도시, 국내 최대 수준의 이민자 포용을 전제로 한 다문화 주도 전략, 구시대와 새시대를 연결하는 스마트 평생교육 등이 향후 부산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로 도출됨. 아울러 원도심의 문화유산과 지역 먹거리, 해양레저 자원을 활용한 관광 전략을 통해 부산이 유니크한 도시로 도약할 가능성 또한 강조하였음(오재환 외. 2024).
- 이러한 논의는 부산의 미래가 지역 고유의 문화를 어떻게 발굴하고 가꾸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음을 시사함. 최근 '아카이브'를 비롯한 지역 자원에 대한 탐구 방식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층위가 재발견되고 있음. 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전승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문화적 창의성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시대에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의 문화적 자원과 시민을 연결하는 매개로 기능할 수 있음. 특히 향후 북항 재개발과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해양정책,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문화·여가·관광자원의 개발, 피란수도를 비롯한 근현대 문화유산 정책 등 부산의 주요 미래 전략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한 지역 고유성의 발전적 계승은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

1.2.3. 사회-학교, 지역 생활권 단위의 통합된 전 생애 문화예술교육의 실현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 및 청년 집단의 경우, 공동체 정체성 형성에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음. 또한 공동체 정체성은 단기간의 교육 참여만으로 크게 향상되기 어려운 영역임이 확인되었음. 이는 반복적인 예술 경험과 장기적 참여가 축적될 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문화예술교육이 특정 시기에 한정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그러나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은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 분리된 이원화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청소년기 개인의 예술 경험이 지역 사회로 연계·확장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음. 또한 평생학습관, 복지기관과 도서관·박물관·공원 및 대학 등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다수의 프로그램이 단기적, 일회성 프로그램임. 중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된 단계별 심화학습체계나 서로 다른 기관·주체 간의 협력 사업은 거의 없음. 한 편으로 생활권 단위에서 지속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과 같은 지역 거점 역시 부족한 실정임.
-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장르별로 분절되고 기량 중심에 국한된 전통적 예술교육의 한계를 넘어, 창의성과 감수성을 기르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소통과 공감 능력의 향상 등 폭넓은 문화적 가치를 함양하는 문화교육을 지향함.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학교문화예술교육의 연계·통합 운영이 필요함. 또한 기초문화재단, 지역 내 대학, 공공·민간 문화시설, 복지시설,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기초지자체, 문화재단, 교육청, 민간 단체 간 협력 구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주민, 경력단절여성, 정년 은퇴한 노인 남성 등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문화예술교육의 대상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구·군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문화와 예술교육의 복합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FGI - 부산시 임희태 주무관)

- 예를 들어 피란수도, 부산항, 을숙도 생태, 동래야류와 어방놀이 등 부산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주제로 한 사회-학교 연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 지역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한 마을교과서 등 기초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연계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음. 희망교육지구, 도시재생, 청년/신중년 지원, 어촌뉴딜/신활력 사업 등 유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통합형 문화예술교육의 운영도 가능함. 또한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권 거점에서 기초 문화재단, 평생학습관, 대학 등과 연계하여 기초적인 학습에서 대학 수준의 교육으로 이어지는 전 생애에 걸친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전개할 수 있음. 이러한 전 생애에 걸친 문화예술교육은 궁극적으로 지역을 더 나은 삶터로 만들어 가는 시민의 성숙한 삶의 태도와 방식, 가치관을 형성·지원하는 전인격적 교육이 될 수 있음.

2. 부산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강화를 위한 실행 전략

- 본 장에서는 연구 전반에서 도출된 정량·정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산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을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제안되는 전략은 단기적 사업 개선을 넘어, 지역 이양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사회의 핵심 공공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둠.

2.1. 시민의 생애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2.1.1.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정책 설계 전략

- 생애주기별 분석 결과,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는 전 연령대에서 확인되었으나, 효과가 강조되는 영역은 연령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어린이 집단에서는 문화적 감수성과 정서적 회복성이, 청소년·청년 집단에서는 정서적 회복성과 문화적 감수성이, 중·장년 집단에서는 사회적 연결성과 문화적 감수성이, 노년 집단에서는 정서적 회복성과 공동체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음.
-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전 연령 공통 프로그램' 중심에서 벗어나, 생애주기별 삶의 과제와 사회적 위험 요인을 반영한 차별화된 목표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함. 즉, 아동·청소년기에는 감정 표현과 사회성 발달, 청년기에는 정서 안정과 자기 정체성 탐색, 중·장년기에는 관계 재구성과 자기 실현, 노년기에는 고립 완화와 정서적 회복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방식의 세분화가 요구됨.

2.1.2. 대상 특성 기반 정책 설계의 확장

- 연구 결과, 정서적 회복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지속 의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효과로 확인됨.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단기 체험형 프로그램을 넘어,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상설 공공서비스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청년·신중년·노년을 대상으로 정서 안정, 감정 표현, 스트레스 완화,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신건강, 고립 예방, 돌봄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사회의 정서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함.
-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지속 의향 분석 결과, 참여 경험, 참여 기간, 사전 역량 수준에 따라 지속 의향과 체감 효과에 차이가 나타났음. 특히 기참여자 및 중·장기 참여자의 경우 만족도와 재참여 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전 점수가 낮은 참여자일수록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역량 취약군이나 사회적 고립 위험군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개입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향후 정책은 이주민, 경력단절여성, 은퇴 남성, 고립 위험 노년층 등 사회적 조건에 따라 상이한 위험 요인을 지닌 집단을 대상으로 한 대상 특화형 문화예술교육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2.1.3. 주제 특화 사업설계 및 기획 프로그램 운영 다변화

- 부산문화예술교육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구조가 단일한 공모 방식이나 개별 프로그램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목적과 실행 전략에 따라 다층적으로 설계·운영될 필요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주제특화 공모지원 사업과 자체 기획프로그램의 병행 운영은 부산문화예술교육 정책 구조가 성숙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으로 해석 가능함.
- 기간 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 사업은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행 사례를 축적하는 데 기여해 왔음. 이는 지역 현장의 역량을 발굴·확장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확보, 성과의 누적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난 바 있음.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정책적 목적을 보다 분명히 반영한 주제 특화 공모 방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주제특화 공모지원 사업은 특정 정책 방향이나 사회적 요구를 중심으로 사업 주제를 설정함으로써, 개별 실행 사례가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구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이는 공모사업이 단순한 예산 지원 수단을 넘어, 정책 실험과 성과 축적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한편, 공모 방식만으로는 정책적으로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실행이 요구되는 과제를 충분히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자체 기획프로그램 운영은 공모사업을 보완하는 정책적 장치로서 의미를 가짐.
- 자체 기획프로그램은 센터가 정책 방향을 직접 반영하여 설계·운영함으로써, 특정 주제나 실행 방식에 대한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정책적 기준점을 형성할 수 있음. 이는 향후 공모사업 설계 시 참고 가능한 실행 모델을 제공하고, 정책 실험 결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데 기여함.
- 주제특화 공모지원 사업과 자체 기획프로그램의 병행 운영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현장 자율성과 정책 방향성 간 균형을 유지하고 단기 실행 성과와 중장기 정책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며 성과의 분산을 방지하고 축적·확산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이러한 이원적 운영 구조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단년도 단위의 개별 사업 묶음이 아닌, 정책 목적에 따라 설계된 포트폴리오 형태로 관리할 필요성을 드러냄. 이는 향후 부산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공모사업과 자체 기획사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운영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을 의미함.
- 종합적으로 볼 때, 주제특화 공모지원 사업설계와 자체 기획프로그램 운영 다변화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행 성과를 정책 자산으로 축적하며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이는 부산문화예술교육이 단순한 사업 지원 구조를 넘어, 정책 목표-실행-성과 축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 가능함.

2.2. 문화예술교육의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

2.2.1. 예술강사 및 현장 인력의 지속가능성 강화 전략

- FGI 분석 결과, 예술강사와 현장 전문가들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주체로 인식되고 있었음. 특히 사회적 연결성과 정서적 회복성이 높은 프로그램일수록 강사의 공감 능력, 관계 조정 능력, 장기적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단년도 공모 구조, 낮은 강사비, 행정 부담 등은 전문성 축적과 지속 가능한 활동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되었음. 이에 따라 다년 지원 체계 도입, 상시 연수 및 멘토링, 강사 간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예술강사를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사회적 효과 창출의 핵심 인적 자원으로 재위치시킬 필요가 있음.

2.2.2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 조성

- 2010년 문체부 지정으로 시작한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비콘그라운드 패밀리 데크 내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2025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함. 특히 같은 공간에 위치한 장애 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와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성과 확장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지역 기반 실행 사례가 추진되었음.
- 대표적 사례로 <문화 다양성 주간>이 있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 선정으로 진행된 본 행사는 거점 공간 확보를 통한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과정, 이를 마주하는 시민의 경험을 하나의 교육 환경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계됨.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성과가 개인의 학습 결과를 넘어, 문화예술교육과 장애 예술의 포용적 공유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가능함.

<그림 3> 2025년도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캠페인



워크숍



체험

<그림 4>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거점 기획 프로그램



망미로컬 아카이빙



손이 들려주는 이야기들



모양모양모양·상상의섬

-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에서 강조하는 '성과 축적 기반 강화'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구조 구축'은 단기 사업 운영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성과가 누적되고 재해석될 수 있는 물리적·조직적 거점의 존재를 전제로 함. 이러한 맥락에서 센터 전용공간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축적성을 담보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타 지역 사례로 서울시는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5개소를 단계적으로 설립·운영한 바 있음. 이는 광역 단위 단일 거점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생활권 여건을 반영한 분산형 정책 인프라를 구축한 사례로 평가 가능함. 각 센터는 지역 문화자원과 교육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 기능을 수행하며, 문화예술교육이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완함. 이러한 다거점 체계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단순 사업 지원 차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 공공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짐.

<그림 5>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거점 5개소⁵⁾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

5) 출처: 서울문화재단(<https://www.sfac.or.kr>)

2.3. 지역 연계 및 로컬리티 강화

2.3.1. 지역 현안 대응 문화예술교육 강화

- FGI 및 지역사회 분석 결과,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소멸, 고령화, 고립, 다문화 포용, 유휴공간 활용 등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해 예방적·회복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도시재생, 복지, 환경, 인구 정책 등과 연계한 사회정책 협업 모델로 확장할 필요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고립 위험군 우선 연계'와 같은 정책 목표를 공모 기준에만 반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 발굴-참여 연계-후속 지원이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연계 프로토콜'로 제도화할 필요 있음. 특히 2025년 센터가 거점공간 기반 신규 기획(전시, 고령층 예술활동, 커뮤니티형 예술교육, 스마트팜 프로젝트 등)을 운영한 경험은 생활권 거점이 지역사회 취약군과 연결되는 매개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향후에는 복지·정신건강·주거·도시재생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여 참여자 모집과 사후 연계를 체계화할 필요 있음.
- 아울러 부산문화예술교육 주간이 사회참여예술 컨벤션과 연계되어 4,500여 명 규모로 운영된 점은 정책 확산의 공공 플랫폼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함. 따라서 향후에는 해당 행사가 단순 홍보·성과 공유에 그치지 않도록, 유관 부서(복지·환경·교육·도시 등)와의 공동 의제 설정, 구·군 생활권 사례의 교차 공유, 참여자-기관 매칭(상담·등록) 기능을 포함하는 '사회정책-문화예술교육 연합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사전·사후 분석과 FGI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 연결성과 공동체 정체성은 단기 프로그램만으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보다는, 반복적 참여와 관계 형성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권 단위, 마을 단위, 지역 자원 기반 문화예술교육 모델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함.
- 특히 부산의 경우, 피란수도 역사, 항만·해양 문화, 지역 생태, 전통예술 등 고유한 지역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큼. 이러한 접근은 문화예술교육을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이 아닌, 지역 서사와 기억을 재구성하는 공동체 학습 과정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2.3.2. '15분 도시' 정책과의 전략적 연계

- FGI 및 정책 분석 결과, 문화예술교육은 '15분 도시'와 같은 생활권 중심 사회정책과 연계될 때 사회적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을 생활권 단위로 확장하고, 복지·환경·교육·도시 정책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 있음.
- 부산은 이미 '15분 도시 특화' 공모를 3개 영역(지역성·생애주기·자율기획)으로 설계하여 39개 프로그램(750명, 692시수)을 운영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생활권 단위에서 사회정책과 접촉할 수 있는 실행 기반이 일정 수준 축적되었음을 의미하며, 향후에는 이 성과를 단년도 사업 성과로 환원하기보다 지역 현안 대응형 공공서비스 모델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 결과에서 공동체 정체성은 단기간 참여만으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보다는 반복적 경험과 장기적 참여의 축적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성격을 보였으며, 특히 어린이·청소년·청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관찰되는 경향이 확인된 바 있음. 따라서 공동체 정체성 영역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분절 구조를 완화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연속 참여 경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최소 실행 단위는 개별 기관이 아니라 '생활권 거점+연계 커리큘럼'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부산은 2025년에 센터 거점공간을 무상 확보하고 대관 20건을 운영했으며 거점 기반 프로그램을 다수 추진한 바 있음. 이러한 기반은 학교-지역 단절을 해소하는 매개로 활용 가능하므로, 향후에는 학교(희망교육지구 등)-지역거점(센터·생활문화센터 등)-지역 프로젝트(아카이빙·공공예술 등)로 이어지는 '기초-심화-실천'의 단계형 커리큘럼을 생활권 단위에서 반복 운영하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교육청, 기초문화재단, 대학, 복지기관, 마을조직 등 다양한 주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사전에 설계함으로써, 참여자의 생애 단계 변화에 따라 학습·관계·공동체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누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3.3. '로컬리티 발전' 문화예술교육 전략

- K-컬처 확산과 글로벌 담론의 확장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학습 대상'으로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이 지역의 기억과 서사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특히 기록-재해석-공유-콘텐츠화로 이어지는 참여 과정을 교육 안에 포함할 경우, 문화예술교육은 지역 고유성의 재구성 및 시민 주체 형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이 추진한 '망미로컬 아카이빙'과 같은 거점 기반 프로그램은 지역 자원 학습을 넘어 지역 가치 생산을 촉진하는 실행 모델로 평가 가능하며, 향후에는 이를 주제특화 사업으로 체계화하여 생활권 단위에서 확산 가능한 교육 모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즉, 교육 성과를 개인의 참여 경험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공유물(전시·공연·영상·지도·기록물 등)로 환류하는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부산문화재단은 202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협력기관 선정으로 국비 6천만 원을 확보하고, 센터와 장애인 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의 협업을 통해 문화다양성 주간(6개 프로그램, 25개 협력, 825명 참여)을 추진한 바 있음.
- 이는 로컬리티가 '포용'의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향후에는 행사 중심의 단발 사업을 넘어 포용(다문화·장애·세대)을 핵심 주제로 하는 상시 트랙을 구축하고, 협업 기반(거점기관 동거형 협업 등)을 제도화하여 지역 고유성 발전 전략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공동체 정체성은 단기 참여만으로는 크게 변화하기 어려운 영역임이 확인되었음. 이는 사회·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연계와 생활권 거점 기반의 장기적 학습 구조가 필요함을 시사함. 생활권 거점과 연계 커리큘럼을 최소 실행 단위로 설정하고, 기초문화재단, 학교, 복지기관, 대학 등과 협력하는 통합형 전 생애 문화예술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4. 연대와 협력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재생, 복지, 교육, 환경, 인구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특히 '15분 도시' 정책, 고립 예방 정책,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과의 연계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역 현안 대응의 전략적 수단으로 전환하는 핵심 경로가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부산시는 문화재단-학교-복지기관-마을 조직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관·부서 간 공동 기획과 예산 연계를 통해 통합형 정책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의 협업은 부산문화예술교육 성과를 국가 차원의 정책 자산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로 작용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축적한 지역 기반 실행 사례는 진흥원의 정책 연구, 시범사업, 확산 모델과 연계되어 중앙 정책 흐름 속에서 활용 가능함.
- 아울러 타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 협업은 각 지역에서 축적된 실행 경험을 상호 공유·비교·학습하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함. 이러한 광역 간 협업은 단일 지역 우수 사례 확산을 넘어, 지역 간 정책 학습과 공동 대응 구조로서 의미를 가짐.

2.5. 성과와 확산

2.5.1. 성과 확장의 정책적 방향과 관리 관점 전환

- 기존 부산문화예술교육은 학교 중심 교육에서 출발하여 최근 3년을 중심으로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생애주기별 교육으로 영역을 확장해 왔음. 이러한 변화는 문화예술교육이 특정 대상이나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시민의 일상과 다양한 사회적 장면으로 스며들 수 있는 실행 기반을 축적해 왔음을 보여줌.
- 그러나 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이나 만족도 중심 평가에 머무르는 한계 존재함. 향후에는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다음과 같은 중간·확장 성과까지 포함하는 정책 성과로 인식하고 관리할 필요 있음.
- 참여 주체의 구성 변화, 참여 방식과 역할의 전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맥락의 확장, 지역 내 협력 구조의 형성. 이는 성과 확장을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성과의 작동 범위와 정책적 의미를 확장하는 전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 있음.

<그림 6> 2025년도 15분 도시 특화 부산문화예술교육 지원(지역성)



우리동네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 실험실B

<그림 7> 2025년도 15분 도시 특화 부산문화예술교육 지원(생애주기)



꿈다락 문화학교



예술로 일상심포



황금빛 예술학교

2.5.2. 중앙-지역-광역 협업을 통한 성과 확산 전략

- 부산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는 지역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중앙 정책 기관 및 타 시도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 자산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이는 부산의 실행 사례를 국가 차원의 정책 모델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지역 간 정책 학습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부산문화예술교육의 성과 확장은 지역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중앙 정책 기관 및 타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다층적으로 확장될 필요 있음.

X. 요약 및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및 제언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X 요약 및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및 제언

-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문화 향유 경험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지역사회의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음. 특히 2022년 이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지역으로 이양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이 더 이상 중앙 정책의 하위 집행 수단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공공정책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부산문화예술교육이 실제로 어떠한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정책 설계와 실행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이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단순한 개인 만족도나 학습 성취 차원이 아니라, 문화적 감수성, 사회적 연결성, 정서적 회복성, 공동체 정체성이라는 네 가지 사회적 효과성 지표로 구조화하였음. 또한 정책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AHP 분석, 실제 참여자의 변화를 측정하는 사전·사후 설문조사, 생애주기별 차이를 분석한 집단 비교, 참여 지속 의향과 영향 요인을 검토한 회귀·분산 분석, 그리고 정량 분석 결과를 해석·보완하기 위한 FGI 분석을 결합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였음.
- AHP 분석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기대가 단순히 예술적 역량의 향상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음.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사회적 효과로 사회적 연결성과 정서적 회복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문화적 감수성과 공동체 정체성은 이러한 효과를 매개하고 확장하는 요소로 평가하였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표현 능력 향상이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넘어, 고립과 단절이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 관계 회복과 정서 안정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정책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생애주기별 AHP 분석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대 효과가 연령대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어린이·청소년·청년 집단에서는 사회적 연결성과 공동체 경험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반면, 신중년과 노년 집단에서는 정서적 회복성과 삶의 의미 회복이 가장 중요한 효과로 인식되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전 연령 공통 효과'를 전제로 설계되기보다는,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과 삶의 과제에 대응하는 정책 도구로 차별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 사전·사후 설문조사 분석 결과, 문화예술교육 참여 이후 네 가지 사회적 효과성 지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었음. 특히 사회적 연결성과 정서적 회복성은 대부분의 연령 집단에서 일관되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참여자의 감정 인식과 표현,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 정서적 안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 문화적 감수성 역시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어린이·청소년 집단에서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났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미래 세대의 창의성, 다양성 수용, 표현 역량 형성에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한편 공동체 정체성은 다른 지표에 비해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동체 인식이 단기간의 참여만으로 형성되기 어렵고,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경험을 통해 서서히 강화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으로 해석됨.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가 일회성 체험의 결과가 아니라, 지속성과 관계 형성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함.

- 생애주기별 분석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이 모든 연령대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효과의 성격과 작동 방식은 생애 단계별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어린이 집단에서는 또래 관계 형성과 감정 표현 능력, 협력 경험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연결성과 문화적 감수성의 급격한 향상으로 이어졌음. 청소년과 청년 집단에서는 정서적 회복성과 사회적 연결성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되었으나, 공동체 정체성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 이는 진로 불안, 이동성, 경쟁 환경 등 청년 세대가 처한 구조적 조건이 공동체 소속감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신중년 집단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과 자기 성찰, 삶의 의미 재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년 집단에서는 정서적 회복성과 공동체 정체성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교육이 고립 완화와 사회적 역할 회복의 핵심 매개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러한 분석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이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예방적·회복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지속 의향 분석 결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 재참여 의도, 추천 의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들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서적 회복성과 사회적 연결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었음. 이는 참여자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을 체감할수록, 해당 활동을 일회성 체험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의 일부로 인식하게 됨을 의미함.
- 특히 재참여 의도는 프로그램의 내용적 완성도보다도, 참여 과정에서 형성된 관계의 지속 가능성과 정서적 안정 경험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성과 관리 기준이 단기 만족도나 참여 인원 중심에서 벗어나, 관계의 지속성과 참여 경험의 누적 효과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FGI 분석 결과는 정량 분석에서 확인된 사회적 효과가 현장 경험과 정책 인식 차원에서도 일관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현장 수행 주체와 정책 관계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을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을 촉진하는 사회적 장치로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예술강사와 단체 관계자들은 참여자의 변화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일상과 관계 속에서 지속되는 사례를 다수 제시하며, 문화예술교육의 장기적 효과를 강조하였음.
- 동시에 FGI에서는 지역 이관 이후 예산 불안정, 단년도 공모 구조, 성과 지표의 경직성 등 제도적 한계도 함께 지적되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확산·유지할 정책 구조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음을 보여줌.
- 부산문화예술교육은 이미 사회적 연결성 회복, 정서적 안정, 공동체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음.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는 이미 확인된 사회적 효과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확장할 것인가에 있음.
- 이에 연구 결과와 정책 환경 변화, 현장 인식(FGI)을 종합하여, 향후 부산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을 다섯 가지 핵심 축으로 정리하여 제안하고자 함.

(1) 시민의 생애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 본 연구의 생애주기별 분석 결과,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는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효과가 강조되는 영역과 작동 방식은 생애 단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특정 연령대나 일회성 참여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삶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전 생애적 공공서비스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기에는 정서 표현과 사회성, 청년기에는 정체성 탐색과 정서 안정, 신중년기에는 관계 재구성과 자기 실현, 노년기에는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 소속감이 주요 효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생애주기별 삶의 과제와 사회적 위험 요인을 반영한 차별적 목표 설정형 정책으로 고도화되어야 함을 의미함.
- 이에 따라 부산문화예술교육은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환점마다 예술 경험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해야 하며, 학교-지역-생활권 거점을 연결하는 전 생애 문화예술교육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을 단기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시민의 삶을 지지하는 장기적 문화 안전망으로 전환하는 핵심 조건임.

(2) 문화예술교육의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

- 연구 결과와 FGI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는 프로그램 자체보다 이를 실행하는 사람과 공간의 안정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술강사를 단순한 프로그램 수행 인력이 아닌,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는 핵심 인적 자원으로 재위치시키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 다년 지원 체계 도입, 상시 연수와 멘토링, 강사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예술강사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과 거점 확보는 성과의 축적과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기반으로서 중요하며, 센터 전용공간과 같은 거점 인프라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

(3) 지역 현안 연계 및 로컬리티 강화

-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내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문제 인식과 공동체 참여로 확장되는 경로를 확인하였음. 사회적 연결성과 공동체 정체성의 변화는 특히 지역 기반, 생활권 중심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현안에 대응하는 문화적 실천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부산은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 유출, 원도심 쇠퇴, 다문화 포용 등 복합적인 사회적 과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문제는 단일 정책 영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문화예술교육은 시민이 감각적·경험적으로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

- 특히 피란수도 역사, 항만·해양 문화, 지역 생태, 전통예술과 같은 부산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은 지역 정체성과 로컬리티를 강화하는 핵심 전략임.

(4) 연대와 협력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구축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 내부에 머무르지 않는 연대와 협력의 거버넌스가 필수적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성과 공동체 정체성은 단일 프로그램이나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형성되기 어려우며, 다양한 주체 간 협력 구조 속에서 점진적으로 강화됨.
- 이에 따라 부산문화예술교육은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학교, 복지기관, 도시재생 조직, 마을공동체 등과 연계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15분 도시' 정책과 연계한 생활권 기반 문화예술교육은 교육·돌봄·복지·문화가 결합된 통합형 정책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또한, 중앙-광역-기초 간 협업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산의 실행 사례를 국가 차원의 정책 자산으로 확산하고, 타 지역과의 정책 학습과 공동 대응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5) 성과관리의 전환과 사회적 효과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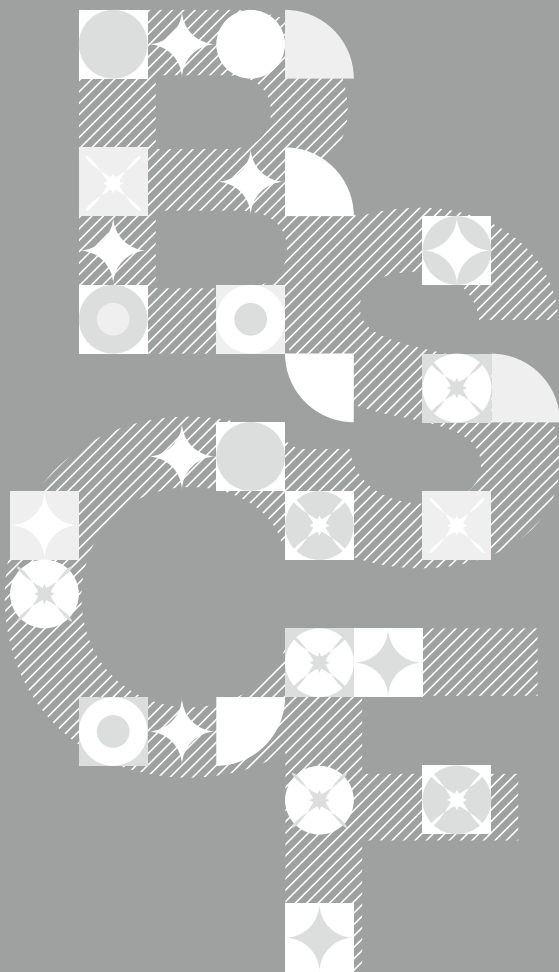
- 성과관리 체계를 사회적 효과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AHP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대적 중요도를 예산 배분과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축적된 성과는 정책 보고, 아카이빙, 사례 확산을 통해 시민과 공유되어야 하며, 이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참여 지속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작동할 것임.
- 문화예술교육을 시민의 생애와 함께하는 공공정책으로 재정립하고, 사람과 공간, 지역과 협력, 성과와 확산을 연결하는 구조적 전환의 방향을 제시함. 이러한 방향 전환을 통해 부산문화예술교육은 지역 이양 이후 시대에 걸맞은 선도적 정책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부산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설문조사, AHP 분석, FGI를 병행한 혼합연구(mixed methods) 방식으로 수행되었음.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문화적 경험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다만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적 특성상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향후 연구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보완·확장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동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 비교 방식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참여 이후의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음. 이러한 접근은 단기간 내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효과적이거나, 사회적 연결성이나 공동체 정체성과 같이 시간의 축적을 전제로 형성되는 효과를 충분히 포착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 FGI는 본 연구에서 정량 분석 결과를 해석·보완하기 위한 보조적 질적 연구로 활용되었으며, 정책 실행 맥락과 현장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다만 FGI는 목적표집 방식으로 구성된 소수의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모든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FGI는 수치로 포착되지 않는 변화의 원인과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님. 향후에는 FGI뿐 아니라 현장 관찰, 사례 기록, 참여자 서사 분석 등을 결합한 다층적 질적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형성 과정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부산문화예술교육 연구의 핵심 과제는 단발성 성과 측정을 넘어 연구-정책-실행-재연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효과성 지표를 제도화하고, 장기 추적조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검증·보완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구승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의 사회적 효과가 감성지능 및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예술교육연구. 한국예술교육학회. 2020.
- 권태일,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의 영향요인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민경,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정책의 현재와 과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SQUARE(<https://thearts.arko.or.kr/asquare/>). 2024.
- 김세훈,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2018.
- 김시아, 홍나미, 최유정, 정익중,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성공경험과 협업 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한국문화교육학회. 2023.
- 김정섭, 「지역문화정책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과제」, 『지역사회연구』, 2020.
- 김혁진,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세 가지 제안」, 인천문화재단-인천문화통신 3.0(<https://news2.ifac.or.kr/9117>). 2023.
- 듀이, 존, 이재언 역, 『경험으로서의 예술』, 나남, 2003.
- 류기혁, 김선경, 「학교 주도형 문화예술교육 운영 효과 연구: 문화예술역량 증진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한국문화교육학회. 2018.
- 박소연, 「성인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문화예술교육연구. 한국문화교육학회. 2020.
- 박소연, 이진규, 「생애단계별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 개발」, 『문화예술교육연구』, 14(3), 2019.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부산광역시, 2023.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수립 연구」, 부산문화재단. 2022.
-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 호밀밭, 2020.
- 부산문화재단, 「2025 사업결과보고서」, 2025.
- 서봉언, 이정란, 「사회경제적 지위 및 문화자본이 문화예술교육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관점에서 -」, 『문화예술교육연구』, 한국문화교육학회. 2014.
- 송동열, 「지역 이관 이후 문화예술교육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문화행정연구』, 2022.
- 송근원·이영, 「AHP의 일관성 향상을 위한 척도 재구성」, 『사회과학연구』, 29(2), 2013.
- 쉐러, 프리드리히, 김주환 역,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책세상, 2005.
- 염신규, 「[이슈] 20년을 맞이하는 제도권 문화예술교육을 돌아보며 - 회고와 전망①」, 문화정책리뷰(<https://culture-policy-review.tistory.com/>), 2025.
- 오재환 외, 「부산발전 비전 및 전략 - 2050 BUSAN PLAN」, 부산연구원, 2024.
- 윌리엄스, 레이몬드, 김성기 역, 「문화와 사회」, 『긴 혁명(The Long Revolution)』, 이론과실천, 2008.
- 임영식, 정경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척도개발 :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사)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17.
- 정문성 외,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예술 꽃 씨앗학교 프로그램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한국열린교육학회. 2012.
- 정보람·김휘정, 「문화예술교육이 아동의 정서반응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공감능력과 분노조절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한국문화경제학회. 2012.
- 정종은, 「새 정부 '지역문화정책'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이야기」, 『공감 그리고』 Vol.57, 부산문화재단, 2025.
- 조근태·조용근·강현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2003.
- 칸트, 임마누엘, 백종현 역, 「미적 판단의 분석」, 『판단력 비판』, 아카넷, 2009.

- 퍼트남, 로버트 D., 정승현 역,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나 홀로 볼링(Bowling Alone)』, 페이퍼로드, 2010.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년 백서 2005~202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5.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정책성과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 홍나미·김시아·정익중,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의 성과: 참여아동과 예술강사의 동반성장」, 『교육문화연구』,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 Belfiore, Eleonora & Bennett, Oliver. *The Social Impact of the Arts*, Palgrave Macmillan, 2008.
- Holden, John, *Cultural Value and the Crisis of Legitimacy*, Demos, 2006.
- Matarasso, François, *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Comedia, 1997.
- OECD, *Art for Art's Sake? The Impact of Arts Education*, OECD Publishing, 2013.
- Saaty, T. L., *A scaling method for priorities in hierarchical structures*, *Journal of Mathematical Psychology*, 15(3), 1977.
- UNESCO, *Road Map for Arts Education*, UNESCO, 2006.

부 록



부록 <응답용 설문지>

1. 어린이용 설문지

설문조사 설명 및 동의서 (어린이[초등학생])

연구명: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

1. 조사목적 및 수행사항

부산문화재단과 케이엠(KM)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사업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 목적: 2025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의 유의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사후 동일한 식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선택) 활용
- 수집 정보: 참여자 자택 전화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의 끝자리 수집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연구 수행기간인 2025년 11월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연구 수행이 완료된 이후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됩니다.

3. 참여자의 설문 내용 관련 자료 검토 내용

동일인 연구의 수행과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진 및 관련부처 등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 위 안에서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으며 연구대상자의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외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4. 자의적 참여 및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조사 참여자는 응답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추후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기관 : 부산문화재단

수행기관 : 케이엠(KM) (책임 연구원 : 이광민 경영학 박사)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연구의 내용에 대해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2.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3.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의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참여자 확인: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날짜: 2025년 월 일

9. 다음은 자녀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해 주십시오.

No	문 항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는 그림이나 음악을 볼 때 느낌이나 기분을 말로 표현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2	자녀는 예술 활동을 할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3	자녀는 공연이나 전시 등을 보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나 감정을 상상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4	자녀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거나 만들기를 하며 노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5	자녀는 새로운 예술 활동(예: 악기 연주, 연극 등)을 직접 해보고 싶어 한다.	①	②	③	④
6	자녀는 평소에 미술이나 음악 활동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	자녀는 친구가 슬퍼하거나 화가 나면 그 기분을 알아차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	자녀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싶어 한다.	①	②	③	④
9	자녀는 친구나 어른의 말을 끝까지 잘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0	자녀는 이야기할 때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11	자녀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갈등이 생겨도 잘 풀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12	자녀는 가족과 하루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13	자녀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4	자녀는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5	자녀는 다른 나라의 언어나 음식, 문화 등에 대해 궁금해 한다.	①	②	③	④
16	자녀는 문화가 다른 친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7	자녀는 평소에 독특한 방법이나 생각을 떠올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8	자녀는 새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보는 걸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19	자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0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상황에 맞게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1	자녀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2	자녀는 잘 안 풀릴 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23	자녀는 자신에게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4	자녀는 자신을 믿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5	자녀는 예술 활동 중 집중해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6	자녀는 예술 활동을 통해 기분이 좋아 보인다.	①	②	③	④
27	자녀는 다른 친구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①	②	③	④
28	자녀는 예술 활동 도중 또는 이후 칭찬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29	자녀는 속상할 때 마음을 가라앉히려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0	자녀는 화가 나도 참거나 차분해지려 한다.	①	②	③	④
31	자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만의 해소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2	자녀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①	②	③	④
33	자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4	자녀는 부산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5	자녀는 부산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36	자녀는 평소 부산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37	자녀는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38	자녀는 부산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39	자녀는 문화예술교육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40	자녀는 주위에 문화예술교육을 소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41	자녀는 다음에도 문화예술교육을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청소년 및 청년용 설문지

설문조사 설명 및 동의서 (청소년-청년)

연구명: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

1. 조사목적 및 수행사항

부산문화재단과 케이엠(KM)은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사업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 목적:** 2025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의 유의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사후 동일인 식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선택) 활용
- **수집 정보:** 참여자 자택 전화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의 끝자리 수집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연구 수행기간인 2025년 11월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연구 수행이 완료된 이후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됩니다.

3. 참여자의 설문 내용 관련 자료 검토 내용

동일인 연구의 수행과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진 및 관련부처 등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 위 안에서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으며 연구대상자의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4. 자의적 참여 및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조사 참여자는 응답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추후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의논할 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기관 : 부산문화재단

수행기관 : 케이엠(KM) (책임 연구원 : 이광민 경영학 박사)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연구의 내용에 대해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2.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3.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의 정보에 대한 보호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나는 언제든지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참여자 확인: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날짜: 2025년 월 일

9. 다음은 귀하의 인식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해 주십시오.

No	문항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림, 음악, 공연 등을 접할 때 느낀 감정을 말로 표현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예술 활동을 할 때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전시나 공연을 보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나 느낌을 상상해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노래 부르거나 만들기 같은 예술 활동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새로운 예술 활동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일상 속에서 예술 활동을 자주 해보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 변화를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누군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내 생각을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갈등이 생겨도 풀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일상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나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다른 나라의 언어나 음식, 문화 등에 대해 호기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일상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새로운 방식이나 시도를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내 생각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며 해결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23	나는 나에게 장점이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4	나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5	나는 활동 중 나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느낄 수 있다.	①	②	③	④
26	나는 활동을 통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27	나는 예술 활동이 내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28	나는 표현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①	②	③	④
29	나는 속상하거나 화가 날 때 감정을 잘 조절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30	나는 감정이 격해질 때 차분하게 행동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1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만의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32	나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3	나는 스트레스를 느낄 때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4	나는 부산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5	나는 부산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36	나는 평소 부산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37	나는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38	나는 부산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39	나는 문화예술교육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40	나는 주위에 문화예술교육을 소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41	나는 다음에도 문화예술교육을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3. 신중년용 설문지

설문조사 설명 및 동의서 (중장년)

연구명: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

1. 조사목적 및 수행사항

부산문화재단과 케이엠(KM)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사업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 목적:** 2025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의 유의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사후 동일한 식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선택) 활용
- **수집 정보:** 참여자 자택 전화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의 끝자리 수집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연구 수행기간인 2025년 11월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연구 수행이 완료된 이후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됩니다.

3. 참여자의 설문 내용 관련 자료 검토 내용

동일인 연구의 수행과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진 및 관련부처 등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으며 연구대상자의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외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4. 자의적 참여 및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조사 참여자는 응답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추후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기관 : 부산문화재단

수행기관 : 케이엠(KM) (책임 연구원 : 이광민 경영학 박사)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연구의 내용에 대해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2.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3.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지거나 내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참여자 확인: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날짜: 2025년 월 일

★ 해당되는 곳에 기입 및 "○" 또는 "√"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1. 본 연구는 사전-사후 두 번의 설문이 진행됩니다. 응답자를 구분하기 위해 응답자 ID를 아래 칸에 향후 조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핸드폰 번호(본인) 혹은 자택 전화번호 뒷자리를 넣어주세요.

응답자	ID	-				
-----	----	---	--	--	--	--

* 본인 전화번호(핸드폰, 자택 중) 중 끝번호 기재

예) 핸드폰 번호가 01*-****-1234인 경우

1	2	3	4
---	---	---	---

2. 귀하의 만 나이는? 만()세

3.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문화예술교육이란,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전통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배움으로써 예술적 감성과 창의적 생각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 및 활동을 말합니다

4. 귀하는 최근 3년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학교, 사설학원 제외)

- ① 있음 ② 없음

4-1. 최근 3년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횟수 (회)

4-2. 귀하가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3년미만 ③ 3년 이상

5.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지역 및 기관 홍보물)를 통해서
 ②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주변사람(친구/선후배/동료/가족/지인 등)의 참여 권유를 통해서
 ③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 스스로 참여
 ④ 기타 ()

6.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구(군)을 표시해주십시오.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부산진구	동구
중구	서구	북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	강서구	기장군

7. 귀하가 현재 문화예술교육을 받고 있는 구(군)을 표시해주십시오.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부산진구	동구
중구	서구	북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	강서구	기장군

8. 귀하가 참여하신 프로그램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

9. 다음은 귀하의 인식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해 주십시오.

No	문항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림, 음악, 공연 등을 접할 때 느낀 감정을 말로 표현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예술 활동을 할 때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전시나 공연을 보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나 느낌을 상상해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노래 부르거나 만들기 같은 예술 활동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새로운 예술 활동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일상 속에서 예술 활동을 자주 해보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 변화를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누군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내 생각을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갈등이 생겨도 풀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일상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나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다른 나라의 언어나 음식, 문화 등에 대해 호기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일상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새로운 방식이나 시도를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내 생각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며 해결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23	나는 나에게 장점이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4	나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5	나는 예술 활동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26	나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7	나는 예술 활동을 하면 내 안의 감정이 정돈되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28	나는 예술 활동이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9	나는 속상하거나 화가 날 때 감정을 잘 조절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30	나는 감정이 격해질 때 차분하게 행동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1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만의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32	나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3	나는 스트레스를 느낄 때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4	나는 부산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5	나는 부산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36	나는 평소 부산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37	나는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38	나는 부산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39	나는 문화예술교육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사후설문용)	①	②	③	④
40	나는 주위에 문화예술교육을 소개하고 싶다.(사후설문용)	①	②	③	④
41	나는 다음에도 문화예술교육을 참여하고 싶다.(사후설문용)	①	②	③	④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4. 노인용 설문지

설문조사 설명 및 동의서 (노인)

연구명: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

1. 조사목적 및 수행사항

부산문화재단과 케이엠(KM)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노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사업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 목적:** 2025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의 유의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사후 동일한 식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선택) 활용
- **수집 정보:** 참여자 자택 전화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의 끝자리 수집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연구 수행기간인 2025년 11월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연구 수행이 완료된 이후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됩니다.

3. 참여자의 설문 내용 관련 자료 검토 내용

동일인 연구의 수행과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진 및 관련부처 등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으며 연구대상자의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에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4. 자의적 참여 및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조사 참여자는 응답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추후 연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의논할 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기관 : 부산문화재단

수행기관 : 케이엠(KM) (책임 연구원 : 이광민 경영학 박사)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연구의 내용에 대해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2.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3.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나는 언제든지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참여자 확인: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날짜: 2025년 월 일

부산문화재단 케이엠(KM)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9. 다음은 귀하의 인식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해 주십시오.

No	문항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림, 음악, 공연 등을 접할 때 느낀 감정을 말로 표현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예술 활동을 할 때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전시나 공연을 보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나 느낌을 상상해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노래 부르거나 만들기 같은 예술 활동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새로운 예술 활동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일상 속에서 예술 활동을 자주 해보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 변화를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누군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내 생각을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갈등이 생겨도 풀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일상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나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다른 나라의 언어나 음식, 문화 등에 대해 호기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일상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새로운 방식이나 시도를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내 생각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며 해결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23	나는 나에게 장점이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4	나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5	나는 예술 활동을 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①	②	③	④
26	나는 예술 활동이 외로움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27	나는 예술 활동을 하며 웃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한다.	①	②	③	④
28	나는 예술 활동을 통해 나에게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9	나는 속상하거나 화가 날 때 감정을 잘 조절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30	나는 감정이 격해질 때 차분하게 행동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1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만의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32	나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3	나는 스트레스를 느낄 때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4	나는 예술 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35	나는 예술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이 소중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6	나는 부산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7	나는 부산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38	나는 평소 부산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39	나는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40	나는 부산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1	나는 문화예술교육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사후설문용)	①	②	③	④
42	나는 주위에 문화예술교육을 소개하고 싶다.(사후설문용)	①	②	③	④
43	나는 다음에도 문화예술교육을 참여하고 싶다.(사후설문용)	①	②	③	④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AHP 설문지>

1. 어린이, 청소년 및 청년, 신중년 교수자용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 설문 중요도 평가를 위한 AHP 전문가 설문지

본 설문지는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 설문 중요도” 조사를 위한 AHP* 전문가 (교수자)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조사가 사회적 효과성 연구 설문 중요도에 대하여만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설문지에 대한 목적 등은 아래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본 조사는 부산지역에서 추진 중인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참여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정서적·심리적 변화, 대인관계 개선, 공동체 인식 확산 등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생애주기별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하여 평가 전문가들께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설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분석과정)는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서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2025. 08

주관기관: 부산문화재단

수행기관: 케이엠(KM) (책임 연구원 : 이광민 경영학 박사)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케이엠(KM)

❖ **설문작성시 유의사항** ❖

첫째, 설문작성 전에 먼저 다음 페이지의 <표1. AHP 평가항목 및 계층구조>에 제시하는 평가항목의 계층구조와 평가내용을 읽으신 후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둘째, AHP 분석에서는 분석 결과 비일관성 비율(=비일관성지수/랜덤지수)이 함께 도출됩니다. 분석 결과 비일관성 비율이 0.2를 초과할 경우 재설문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십시오.

셋째, 평가항목(대안)간 비교는 평가항목(대안)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또는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비일관성 비율 등 설문의 응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예를 참조해 주십시오.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1. 응답 예

예) 항목 P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할 때 **항목 A가 항목 B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평가 항목	극히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극히 중요	평가 항목
항목A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항목B



2. 응답 일관도

- AHP 분석에서는 분석의 부산물로 비일관성 비율이 생성됩니다. 비일관성 비율이 **0.2이상**이 될 경우 **응답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일부 재설문 또는 전체 재설문을 할 수 있습니다.** 비일관성 비율이 높게 나오는 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정답 예) 1. $A > B$: A가 B보다 "약간중요"하다고 응답
 2. $A \gg C$: A가 C보다 "매우중요"하다고 응답
 ⇒ $B > C$ 라고 응답해야 함.

[비일관성 높아지는 원인 1] 서수적 일관성 결여 : $A > B > C$ 의 순위가 바뀌게 응답
 [비일관성 높아지는 원인 2] 기수적 일관성 결여 : 위 예에서 B가 C보다 "극히 중요"하다고 응답할 경우

<표1. AHP 평가항목 및 계층구조>

대항목	하위 항목
문화예술 이해 및 표현 역량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문화예술 참여 태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 역량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
	소통과 경청의 태도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
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역량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어린이(자아 성찰)
	청소년 및 청년(자아 정체성)
	신중년(삶의 의미)
	감정 조절
	어린이(또래 관계) 청소년 및 청년(감정 표현) 신중년(자아 회복) 스트레스 대처력
지역성	지역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
	20.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 설문 중요도 평가를 위한 AHP 전문가 설문

설문 I-II는 평가항목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대비교를 통해 평가하게 됩니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

I. 대항목

(질문) 참가자들이 신청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중요도를 평가함에 있어, 교수자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이해 및 표현 역량”,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 역량”, “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역량”, “지역성” 중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표는 무엇이며, 얼마만큼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대항목별 중요도 백분율 표기

평가항목	중요도
문화예술 이해 및 표현 역량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 역량	
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역량	
지역성	
총 합	100 점

(2) 대항목 별 쌍대비교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문화예술 이해 및 표현 역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 역량
문화예술 이해 및 표현 역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역량
문화예술 이해 및 표현 역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지역성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 역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역량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 역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지역성
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역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지역성

II-1. 대항목 <문화예술 이해 및 표현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

(질문) 교수자 관점에서 아래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만큼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 참여 태도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
문화예술 참여 태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문화예술 참여 태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문화예술 참여 태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

II-2. 대항목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

(질문) 교수자 관점에서 아래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만큼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소통과 경청의 태도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
소통과 경청의 태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

II-3. 대항목 <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

(질문) 교수자 관점에서 아래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만큼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감정1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감정 조절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감정2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스트레스 대처력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감정1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감정 조절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감정2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스트레스 대처력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감정1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감정 조절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감정2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스트레스 대처력
감정1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감정 조절
감정1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감정2
감정1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스트레스 대처력
감정 조절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또래 관계
감정 조절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스트레스 대처력
감정2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스트레스 대처력

감정1	어린이(자아 성찰), 청소년 및 청년(자아 정체성), 신중년(삶의 의미)
감정2	어린이(또래 관계), 청소년 및 청년(감정 표현), 신중년(자아 회복)

(질문) 교수자 관점에서 아래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만큼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지역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

※ 오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노인담당 교수자용

<표1. AHP 평가항목 및 계층구조>

대항목	하위 항목
문화예술 이해 및 표현 역량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문화예술 참여 태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 역량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
	소통과 경청의 태도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
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역량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우울감 완화
	감정 조절
	자존감 회복
	사회적 소속감
	스트레스 대처력
지역성	지역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
	20.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 설문 중요도 평가를 위한 AHP 전문가 설문

설문 I-II는 평가항목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쌍대비교를 통해 평가하게 됩니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

I. 대항목

(질문) 참가자들이 신청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중요도를 평가함에 있어, 교수자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이해 및 표현 역량”,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 역량”, “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역량”, “지역성” 중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표는 무엇이며, 얼마만큼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대항목별 중요도 백분율 표기

평가항목	중요도
문화예술 이해 및 표현 역량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 역량	
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역량	
지역성	
총 합	100 점

(2) 대항목 별 쌍대비교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문화예술 이해 및 표현 역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 역량
문화예술 이해 및 표현 역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역량
문화예술 이해 및 표현 역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지역성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 역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역량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 역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지역성
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역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지역성

II-1. 대항목 <문화예술 이해 및 표현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

(질문) 교수자 관점에서 아래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만큼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 참여 태도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예술적 감성과 표현 이해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
문화예술 참여 태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문화예술 참여 태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문화예술 참여 태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
창의적인 사고와 탐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자기 생각의 표현과 공유

II-2. 대항목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

(질문) 교수자 관점에서 아래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만큼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소통과 경청의 태도
타인의 감정 이해와 배려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
소통과 경청의 태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관계 형성과 가족 소통

II-3. 대항목 <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

(질문) 교수자 관점에서 아래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만큼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우울감 완화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감정 조절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자존감 회복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소속감
자기 인식과 긍정 정서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스트레스 대처력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우울감 완화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감정 조절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자존감 회복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소속감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시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스트레스 대처력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우울감 완화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감정 조절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자존감 회복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소속감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스트레스 대처력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감정 조절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자존감 회복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소속감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스트레스 대처력
감정 조절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자존감 회복
감정 조절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소속감
감정 조절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스트레스 대처력
자존감 회복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소속감
자존감 회복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스트레스 대처력
사회적 소속감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스트레스 대처력

(질문) 교수자 관점에서 아래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만큼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지역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

※ 오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 FGI 질문지

- 문화예술교육단체 -

1.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2. 부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사회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생애주기별(어린이, 청소년·청년, 신중년, 노년) 문화예술교육에서 기대하는 핵심 효과성은 무엇이며,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성은 어떠합니까?
4. 참여자 특성(성별·경험 등)에 따라 효과성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5. 프로그램 운영요소(기간, 차시, 구성 등)가 효과성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6.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소속감과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7. 문화예술교육단체를 운영하면서 느낀 가장 큰 보람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8.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체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해 재단이 어떤 정책이나 지원사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0. 2022년 지역이양 이후, 진정한 지역주도 문화예술교육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사업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외 부산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 FGI 질문지

-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

1.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2. 부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사회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생애주기별(어린이, 청소년·청년, 신중년, 노년) 문화예술교육에서 기대하는 핵심 효과성은 무엇이며,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성은 어떠합니까?
4. 참여자 특성(성별·경험 등)에 따라 효과성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5. 프로그램 운영요소(기간, 차시, 구성 등)가 효과성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6.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소속감과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7. 문화예술교육 강의를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보람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8.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술강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해 재단이 어떤 정책이나 지원사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0. 2022년 지역이양 이후, 진정한 지역주도 문화예술교육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사업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외 부산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 FGI 질문지

- 정책관계자(전문가) -

1.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은 정책적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 부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3.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과 지원은 무엇입니까?
4. 2022년 지역이양 이후 문화예술교육의 제도적·행정적 변화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정책과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5.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재단-지자체-진흥원 간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역 관계자(현장, 재단, 지자체, 유관 기관 등)의 협력 거버넌스와 역할 분담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6. 부산의 문화예술교육이 앞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 전문가로서 제안하고 싶은 중장기 발전 방향이나 개선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 FGI 질문지

- 정책관계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1. 문화예술교육의 지역이양 이후, 국가와 지역(지자체·재단)의 역할 분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은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 부산 사례가 타 지역과 비교해 가지는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바라본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은 어떤 것이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어떤 사회적 효과성이 우선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사회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제도(정책·평가), 재정(지속 가능 자원), 인력(전문가 양성·강사 지원), 정보(연구·데이터) 측면에서 구체적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5. 향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진흥원과 지방자치단체(또는 지역재단) 간 협력 구조는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6. 그 외, 부산을 포함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나 새로운 정책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 FGI 질문지

- 정책관계자(부산시) -

1. 부산시가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2. 부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 사회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3. 현행 부산시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행정체계에서 사회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 2022년 지역이양 이후, 부산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5.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도(조례·평가), 재정(지속재원·민관협력), 인력(전문가·강사) 등

* 그 외, 부산 문화예술교육정책 및 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 FGI 질문지

- 정책관계자(타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1.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은 정책적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 귀 지역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사회에 가져온 사회적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3. 2022년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지역이양 이후, 귀 센터의 조직 운영·사업 구조·행정체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4.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광역·기초·현장 간 지원체계와 협력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5. 지역 이양 이후,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비전과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이 앞으로 지속가능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광역센터의 중장기 발전 방향이나 개선 과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집필 내역

책임 연구

박소윤(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장)

연구총괄 I.1.1~1.2, 2.1~2.2, 3.3.3, 4, II.1.1~1.2, 2, III.2, IV.2, V.2, VI.3, VII, VIII, IX.2, X.

공동 연구

김해성(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교수) VII.

송교성(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II.1.2, IX.1.

김예인(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I.1.1, IX.2.

이광민·정영주(케이엠) I.2.1~2.2, 3.1.1~3.1.2, III.1, IV1, V1, VI.1~2.

부산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

발행인 오재환

발행처 (재)부산문화재단

연구수행 (재)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

설문조사 케이엠

발행일 2025. 12. 30.

디자인 제작 디자인콕스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홈페이지 www.bscf.or.kr

전화 051-745-7205~7(정책기획센터)



위 저작물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를
준수할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